

A Study on Activation Strategy and Support Model
Development for Childcare in Goyang City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모델 개발 연구

문 정 화
성 기 옥
선 승 아

A Study on Activation Strategy and Support Model Development for Childcare in
Goyang City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모델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성기욱(생활과복지연구소, 대표)

선승아(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발 행 일 2022년 07월 31일

저 자 문정화, 성기욱, 선승아

발 행 인 정원호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51-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0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0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06
제2장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와 정책 동향	09
제1절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	11
제2절 아동돌봄 정책 동향 분석	15
제3절 학교돌봄 정책	18
제4절 마을돌봄 정책	21
제3장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분석	29
제1절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31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분석	42
제3절 요약과 시사점	51
제4장 고양시 아동돌봄 실태 분석	55
제1절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 만족도와 욕구 분석	57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 만족도와 욕구 분석	77
제3절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자 FGI와 자문회의 분석	108
제4절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 도출	111

제5장 아동돌봄 국내외 사례 연구	115
제1절 국외 돌봄 사례 분석	117
제2절 국내 돌봄 사례 분석	135
제3절 요약과 시사점	144
 제6장 정책제언	 147
제1절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149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164
 참고문헌	 168
부록	173
Abstract	198

표 목차

[표 2-1] 초등돌봄교실 유형 비교	19
[표 2-2] 학교돌봄	20
[표 2-3] 지역아동센터 인력 배치 기준	22
[표 2-4] 아이돌봄 자원사업 서비스 유형 비교	25
[표 2-5] 마을돌봄	28
[표 3-1] 고양시 2022년 아동 인구 현황	31
[표 3-2] 고양시 2022년 만 6~11세 연령 구간 인구수	32
[표 3-3] 아동 비율 추이	32
[표 3-4] 시도별 아동돌봄 사업의 인력 현황	35
[표 3-5] 경기도 학교돌봄터 현황	36
[표 3-6]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아동 현황	37
[표 3-7]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38
[표 3-8] 유사 인구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38
[표 3-9] 고양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38
[표 3-10] 고양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현황	40
[표 3-11] 고양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현황	41
[표 3-12] 2019년 경기도와 고양시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	43
[표 3-13] 고양시 초등아동 인구 대비 공급	46
[표 3-14] 고양시 행정동별 돌봄 기관과 정원	49
[표 4-1] 아동돌봄 이용 아동의 분석내용	57
[표 4-2] 아동의 일반적인 사항	58
[표 4-3]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자기결정	59
[표 4-4]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 찬반	60
[표 4-5]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정도와 평균 이용 시간	61
[표 4-6] 아동의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64

[표 4-7] 아동의 돌봄 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65
[표 4-8]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느낌	66
[표 4-9] 아동의 돌봄 기관 계속 이용 여부	67
[표 4-10] 아동이 생각하는 돌봄 기관의 유용성	68
[표 4-11] 아동이 생각하는 돌봄 기관의 장점과 바라는 점	69
[표 4-12] 아동의 사교육 이용 여부와 병행 시 도움 정도	70
[표 4-13] 아동이 하교 후 지내고 싶은 장소	71
[표 4-14] 아동의 희망 이용 시간	72
[표 4-15] 아동의 다른 이용 아동에 대한 만족도	72
[표 4-16] 아동이 선호하는 돌봄 방식	73
[표 4-17] 아동이 끼니를 해결하고 싶은 장소	74
[표 4-18]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 의사	74
[표 4-19] 아동의 하루 돌봄 공백 시간	75
[표 4-20] 아동의 행복감	76
[표 4-21]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의 분석내용	77
[표 4-22] 보호자의 일반적인 사항	79
[표 4-23] 보호자의 특성	80
[표 4-24]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82
[표 4-25] 돌봄 기관을 이용한 기간	82
[표 4-26] 돌봄 기관의 이용 횟수 - 학기와 방학	83
[표 4-27] 돌봄 기관의 이용 시간 - 학기와 방학	84
[표 4-28] 보호자가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	85
[표 4-29] 등·하원 방식 - 학기와 방학	86
[표 4-30] 자녀 기준 돌봄 기관부터 집까지의 거리	87
[표 4-31] 학기와 방학 중 급식 이용 여부와 월평균 이용료	88
[표 4-32] 개인 부담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이용료	88

[표 4-33] 부모의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90
[표 4-34] 부모의 돌봄 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91
[표 4-35] 향후 돌봄 기관 이용 기간	91
[표 4-36] 부모가 생각하는 돌봄 기관의 유용성	92
[표 4-37] 돌봄 기관의 이용이 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	93
[표 4-38] 아동돌봄서비스의 항목별 필요도	93
[표 4-39]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 이유, 월평균 사교육비	94
[표 4-40] 사교육과 아동돌봄서비스의 병행 어려움과 그 이유	95
[표 4-41] 시간대별 돌봄 형태 - 학기와 방학	97
[표 4-42] 아동돌봄서비스 인지율	97
[표 4-43] 긴급할 때 자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98
[표 4-44]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어려움 정도와 그 대안	99
[표 4-45] 부담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100
[표 4-46] 돌봄 공백으로 인한 병원 이용의 어려움	100
[표 4-47] 아동 전용 식당의 이용 의향과 미이용 이유	101
[표 4-48] 보호자가 선호하는 돌봄 방식 - 1순위	102
[표 4-49] 보호자가 선호하는 돌봄 방식 - 2순위	103
[표 4-50] 부모의 지역 내 추가 돌봄 장소 선호도	103
[표 4-51]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	104
[표 4-52]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고양시의 지원	105
[표 4-53] 부모가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라는 점	106
[표 4-54] 보호자의 행복감과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107
[표 4-55] 아동돌봄 미이용 학부모 FGI 결과	109
[표 4-56] 아동돌봄 종사자 FGI와 자문회의 결과	109
[표 5-1] 일본 -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 비교	124
[표 5-2] 프리티즈헴의 현황(2022년)	130

[표 5-3] 프리티즈헴의 연령별 이용 인원(2022년)	130
[표 5-4] 프리티즈헴의 시간대별 활동 내용 예시	131
[표 5-5] 프리티즈헴의 코윈 지원금(2022년)	131
[표 5-6] 프리티즈헴의 부모부담금 상한제 기준	132
[표 5-7] 스웨덴 - 프리티즈헴, 프리티즈클럽 비교	133
[표 5-8] 스웨덴의 교사별 급여 비교	134
[표 5-9]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비교	137
[표 5-10] 국내 사례 비교	142
[표 6-1]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역할	158
[표 6-2] 고양시 아동돌봄 자원센터의 기능별 세부 사업	161

그림 목차

[그림 1-1]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7
[그림 3-1] 고양시 아동돌봄 주무 부서	34
[그림 3-2] 고양시 초등아동 인구 대비 공급	45
[그림 3-3] 고양시 돌봄 기관별 분포	48
[그림 5-1] 일본 - 일체형의 이미지	127
[그림 6-1] 지자체 아동돌봄 통합 정보 플랫폼 운영 사례	157
[그림 6-2]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역할	159
[그림 6-3] 광주시 키움지원단 역할	160
[그림 6-4]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센터의 기능	160
[그림 6-5] 고양시 아동돌봄 로드맵	163
[그림 6-6]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방향	164
[그림 6-7]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166

요 약

1.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뚜렷한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돌봄 필요성이 증가함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돌봄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고양시는 초등아동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 틈새돌봄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또한 전달체계 분절과 이를 통합할 전담기구가 없어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정책 수립이 어렵고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돌봄 교사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임
- 정부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동시에 고양시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해 아동돌봄 활성화 필요
- 고양시 아동돌봄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아동 돌봄서비스 개발 필요

○ 연구 목적

-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과 지원 모델 개발

□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 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아동돌봄 이론적 논의 및 정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돌봄에 대한 이론 검토 • 아동돌봄 정책 동향 분석 • 학교돌봄 정책 • 마을돌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고양시 아동돌봄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 만족도와 욕구 분석 •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학부모 만족도와 욕구 분석 •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자 FGI와 자문회의 분석 • 2차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기 지역사회보장실태조사, 2021년 고양시 사회조사, 2020년 고양시민행복실태조사, 2021년 고양시 아동돌봄연구회 설문조사 •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FGI • 2차 자료 분석
아동돌봄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돌봄 사례(일본, 스웨덴) • 국내 돌봄 사례(서울 중구,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시, 전북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및 아동돌봄 지원 모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제시 •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2.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와 정책 동향

□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

○ 돌봄과 돌봄 윤리

- 돌봄(Caring)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써 환자와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행위와 행위를 강제하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함(Daly, 2002)
- 돌봄윤리는 1980년대 이후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모든 인간은 의존을 경험하며 돌봄이 취약한 의존인의 돌봄 요구에 도덕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규범화하는 윤리

○ 사회적 돌봄과 공공성

- 사회적 돌봄은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수행하던 돌봄 부담을 가족이나 국가, 시장, 지역사회 등에서 나누어 부담하는 것(Daly and Lewis, 2000)
- 공공성이란 합의된 개념 정의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행위주체로서 국가나 공공조직이 공공재로 간주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함. 다만 공공성이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조직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간영역에서도 공익적 목적성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함
-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혜자 범위의 보편성, 포괄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 구성, 서비스의 신뢰 형성과 개방성, 반응성 확보, 재정적 책임 확보, 공공부문의 공급 주체와 규제자의 역할 강화 필요

○ 돌봄 민주주의

- 돌봄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돌봄 책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며, 돌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돌봄(caring with)’의 실천이 필요함

□ 아동돌봄 정책 동향 분석

- 정부는 2018년부터 온종일 돌봄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돌봄에
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함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 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아동돌봄 공동체
중앙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 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 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보건복지부 사업공고 지침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작 연도	2004	2021	2004	2019	2005	2007	2020	2019
지원 대상	초등 1~6학년 (저학년, 맞벌이 우선)		만 18세 미만	초등 1~6학년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초등 1~6학년 (학교밖아동 포함)	만 12세 이하
지원 기준	소득 기준 없음		우선돌봄아 동·일반아동 =50:50	소득 기준 없음 맞벌이 가정 중심	우선순위 지원 대상, 기타 지원 대상으로 구분	소득유형과 연령별 구분에 따라 다름	없음	-
지원 내용	보호, 교육, 일부 급·간식 지원		보호, 교육, 급·간식 제공		학습지원, 창의 융합, 진로체험 활동, 급식	아이돌보미 가 가정에서 1:1 돌봄서비 스 제공	독서문화 프 로그램, 간식 제공	일시·긴급돌 봄, 프로그램, 급·간식 지원
지원 형태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교재, 준 비물 등 수탁자 부담)	소득유형과 연 령별로 상이함	무상	-
인력	돌봄전담사(최 대 22명 담당)	업무 담당자, 관 리자 각 1명씩	인원에 따라 생활복지사, 영양사 배치 차이	동시간 이용 아 동 20명당 돌봄 선생님 1명	팀장 1명, 반 별 담임 1명	아이돌보미	담당자 1명, 돌 봄선생님, 강사 추가 가능	-
학기 중	방과 후~19시 내외	방과 후~19시	14시~19시	방과 후~19시	방과 후~21시	1회 2시간 이상 산청, (추가) 최 소 30분 단위	방과후~19시 주5일, 1일 5시 간 이내	공동체별 상이
방학 중	9시~17시(여 건에 따름)	9시~18시	12시~17시	9시~18시	1일 4시간			

3.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분석

□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 고양시 아동 인구

- 2022년 3월 기준, 고양시의 전체 인구는 약 108만 명이며, 그중 만 6~11세의 초등학생은 5만 8,000여 명으로 5.3%를 차지함. 2022년 아동 인구는 2008년 대비 31% 감소

○ 고양시 아동돌봄 조례

-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20.05.29.)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돌봄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에 대해 명시
-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1.12.28.)
 -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아이돌봄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명시함

○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 부서와 인력

- 고양시는 주로 아동청소년과가 담당함. 그 외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 도서관센터, 교육청에서 일부 담당. 아동돌봄을 전담하는 팀은 없음
-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양시의 인력은 3명으로 유사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수임

○ 고양시 아동돌봄사업 현황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아동돌봄 공동체
담당 부서	교육청, 각 학교	아동청소년과(아동정책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	도서관센터	주민자치과
시설 현황	88개교 242개실	1개교 3개실	32개	3개소	3개소 6개실	-	3개	4개소
이용 인원	4,840명	66명	815명	100명	120명	1,695명	-	99명
운영 인력	-	관리자 1명, 돌봄 교사 4명	종사자 80명, 돌봄 교사 32명, 특기적성강사 9명	1곳당 4명 (총 12명)	1곳당 3명 (총 9명)	전담인력 10명, 아이돌보미 309명	-	54명
총 예산	1,791,792	237,420	4,001,287	975,964	523,536	5,224,769	66,000	58,560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주〉 *시설현황에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기준, 나머지는 2022년 기준임

**이용인원과 운영인력에서 아동돌봄공동체만 2022년 기준, 나머지는 2021년 기준임

***예산은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천원임

□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현황

○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 2019년 분석 결과

- 초등아동 돌봄 수요: 최소 24.8%, 최대 60.6%, 공급률 9.1%
- 최소 돌봄 수요와 공급의 격차 15.7%

- 2021년과 2022년 수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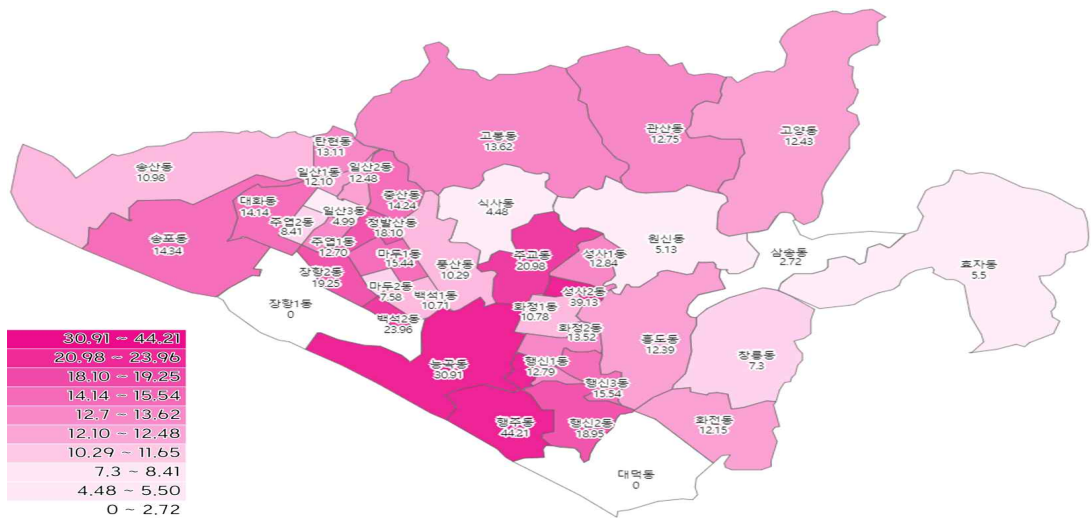
- 2021년 아동돌봄 필요비율 43%, 2022년 53%

: 낮은 응답률과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요 측정이 정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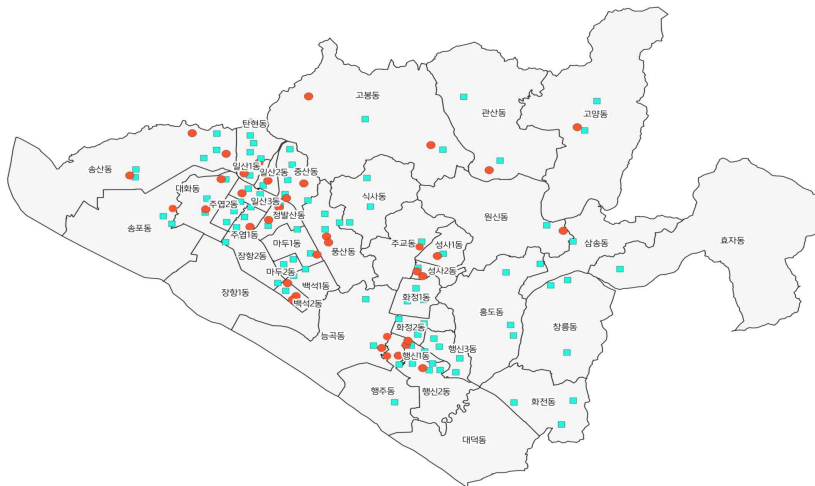
○ 고양시 행정동별 초등인구 대비 아동돌봄 공급

- 아동돌봄 수요는 2022년 1월 기준 만 6~11세 인구로 계산
- 행정동별 아동돌봄 제공은 돌봄 기관(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원 합산
- 고양시 아동 인구 대비 돌봄 공급률: 11.65%

- 평균 미만의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는 지역: 덕양구 6개동, 일산동구 5개동, 일산서구 3개동이며 0~5% 미만은 5개동(대덕동, 장항1동, 삼송동, 식사동, 일산 3동)임
- 아동 인구가 2,000명 이상이라 마을돌봄과 학교돌봄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선 경우(송산동, 일산3동, 풍산동, 원신동)
- 학교돌봄 인프라만 있고 마을돌봄 인프라가 없는 경우(주엽2동, 마두2동, 백석1동, 화정1동, 창릉동, 효자동, 식사동, 삼송동)
- 돌봄 기관이 전혀 없는 경우(장항1동, 대덕동)



돌봄 기관
 ● 마을돌봄
 ■ 학교돌봄



4. 고양시 아동돌봄 실태 분석

□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 만족도와 욕구 분석

- 분석 대상과 방법: 돌봄 기관(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이용하는 초등 1~6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 분석 결과
 - 일반적인 사항
 - (성별) 남아 50.4%, 여아 49.6%로 비슷함
 - (학년)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26명, 2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나머지 학년은 50여 명 내외임
 - (지역) 덕양구 42.5%, 일산서구 30.8%, 일산동구 26.7%
 -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41.3%, 다함께돌봄센터 18.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6.7%, 학교돌봄터 16.3%, 초등돌봄교실 7.5%
 - 돌봄 기관 이용 경험
 -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자기 결정) 돌봄 기관을 다니기 전에 부모가 기관 설명 78.3%, 기관을 다니고 싶은지 아동의 의사 확인 72.9%. 돌봄 기관 이용

- 에 찬성 66.7%임. 주된 반대 이유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45.5%)임
- (이용 경험의 만족도) 등·하원 시 안전 74.6%, 이용시간 보통 66.7%이고 길다는 응답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 학교돌봄터 28.2%로 상대적으로 높음
 - (세부 만족도) 접근성 3.88점, 안전한 등·하원 4.24점, 충분한 놀이 공간 4.15점, 충분한 놀잇감 4.31점, 안전함 4.23점, 충분한 돌봄 4.45점, 돌봄 교사의 친절도 4.54점, 돌봄 교사가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김 4.2점, 급·간식 4.16점, 병원 동행 3.63점, 의견 표현 4.12점, 의견 수용 4.18점, 공부지도 4.03점, 예체능활동 4.27점, 체험활동 4.42점, 친구에게 추천 정도 4.03점, 친구와 사이좋게 지냄 4.2점, 기관 이용 후 더 건강해짐 3.84점, 기관 이용 후 더 행복해짐 4.01점
 - (전반적 만족도) 전체 4.26점(지역아동센터 4.42점, 초등돌봄교실 4.33점, 다함께돌봄센터 4.25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13점, 학교돌봄터 3.97점)
 - (이용에 따른 느낌) 이용이 자랑스러움 4.03점(초등돌봄교실 4.28점, 지역아동센터 4.22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95점, 다함께돌봄센터 3.84점, 학교돌봄터 3.72점)
 - (계속 이용 여부와 이유) 계속 이용 94.2%이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87.5%로 가장 낮음.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64.3%)임
 - (돌봄 기관의 유용성) 생활을 편안하고 즐겁게 함 4.22점, 영양가 있는 식사 4.2점, 안전하게 보호함 4.14점, 친구를 많이 사귀 4.13점, 공부에 도움이 됨 4.09점
 - (돌봄 기관의 장점) 교우 관계 43.4%
 - (돌봄 기관에 바라는 점) 여행, 체험활동, 야외활동 15%, 공부보다 쉬거나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함 10.7%
 - (사교육) 이용 67.1%(초등돌봄교실 94.4%, 다함께돌봄센터 86.4%, 학교돌봄터 79.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0%, 지역아동센터 51.5%)
- 돌봄 관련 선호
- (학교 후 지내고 싶은 장소) 집 45.8%, 돌봄 기관 30.8%
 - (희망 이용 시간) 하루 1~2시간 29.2%, 2~3시간 23.3%, 3~4시간 19.6%

임. 가장 높은 응답: 1~2시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2~3시간(학교돌봄터), 3~4시간(초등돌봄교실)

- (다른 아동 만족도) 동급생 4.16점, 상급생 3.86점, 하급생 3.79점
- (선호하는 돌봄 방식) 마을돌봄 44.2%, 학교돌봄 25.8%, 가정방문형 16.7%, 가족돌봄 6.7%, 보호자 포함 공동체돌봄 5.8%, 공동체돌봄 0.8%
(학교돌봄 이용 아동은 학교돌봄을, 마을돌봄 이용 아동은 마을돌봄을 더 선호함)
- (선호하는 식사 방식) 편익점 35%, 도시락 28.3%, 아동 전용 식당 21.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아동 전용 식당을 31.3%로 가장 선호함)
-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 돌봄 기관 이용 의사) 이용 80%, 돌봄 외에도 교육과 여가 기능 수행
- 돌봄 공백과 행복감
 - (하루 중 돌봄 공백 시간) 1시간 미만 50.8%(하루 5시간 이상 어른 없이 혼자 지낸다는 아동이 5%이며 그중 2학년 중 3.8%가 여기에 해당)
 - (행복감) 7.85점(3점 이하인 아동 전체의 5.8%,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의 경우 3점 이하가 20%임)

□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 만족도와 욕구 분석

- 분석 대상과 방법: 돌봄 기관(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이용하는 보호자 2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진행
- 분석 결과
 - 일반적인 사항
 - (성별) 남성 18.8% < 여성 81.3%
 - (연령) 20대 0.4%, 30대 31.7%, 40대 64.6%, 50대 2.9%, 60대 이상 0.4%
 - (지역) 덕양구 42.5%, 일산서구 30.8%, 일산동구 26.7%
 -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61.3%, 다함께돌봄센터 18.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6.7%, 학교돌봄터 16.3%, 초등돌봄교실 7.5%
 - (학력) 대졸 63.3%, 고졸 이하 26.3%, 대학원 이상 10.4%

- (동거가족 수) 4명 46.3%, 5명 이상 24.6%, 3명 23.3%, 2명 이하 5.8%
 - (가족 특징) 맞벌이 가구 6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4%, 다문화가정 10%, 장애학생과 건강보호학생 가정 1.7%
 - (자녀 수) 2명 49.6%, 3명 25%, 1명 22.5%, 4명 2.9%
 -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400만 원 미만 37.1%, 400만~600만 원 미만 31.7%, 600만~800만 원 미만 14.2%, 200만 원 미만 9.2%, 800만 원 이상 7.9%
 - (주거 형태) 아파트 79.2%, 다세대주택 15%, 단독·연립주택 각 2.9%
 - (아버지 특성) 40대 71.7%, 동거 중 87.5%, 상용근로자 66.2%, 평균 근로 시간 10.04시간
 - (어머니 특성) 40대 62.9%, 동거 중 92.1%, 상용근로자 54.3%, 평균 근로 시간 8.77시간
- 돌봄 기관 이용 현황
- (이용하는 이유) 학교나 집과 가까워서 57.9%
 - (이용 기간) 6개월 미만 40%, 1~2년 30.4%
 - (이용 횟수) 학기 중(일주일에 5일 이상 67.9%, 비정기적 이용 1.3%), 방학 중(일주일에 5일 이상 66.3%, 비정기적 이용 5%)
 - (이용 시간) 학기 중(2~4시간 72.9%, 하루 5시간 4.6%), 방학 중(2~4시간 45.9%, 5시간 이상 24.2%)
 -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 친구나 이웃 42.1%(학교돌봄터: 학교에서 알려 줘서 79.5%)
 - (등·하원(교) 방식과 이동 시간) 모두 '자녀 혼자 걸어서'가 가장 많음, 자녀 기준 집에서 돌봄 기관까지 10분 미만 56.3%, 걸어서 다닐 수 없음 8.3%
 - (급식 이용 여부) 학기 중 급식 이용 74.2%(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7.5%, 지역아동센터 90.9%). 방학 중 급식 이용 90%(지역아동센터 94.9%, 초등 돌봄교실 77.8%)
 - (급식, 프로그램 이용료 등 개인 부담 비용을 포함 월평균 이용료) 평균 1만 6,887원, 0원 55.8%(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5%, 지역아동센터 79.8%, 초등돌봄교실 27.8%, 다함께돌봄센터 15.9%, 학교돌봄터 12.8%)

- 돌봄 기관 이용 경험

- (세부 만족도) 충분한 이용 시간 4.48점, 집~기관 거리 4.38점, 차량 지원 3.73점, 유연한 이용 4.43점, 이용료 4.49점, 1인당 충분한 공간 4.34점, 교재와 교구 4.33점, 안전성과 안락함 4.49점, 돌봄 교사의 전문적 역량 4.38점, 돌봄 교사의 인성 4.45점, 교사 1인당 아동 수 4.15점, 등·하원 동행 3.93점, 숙제 지도와 준비물 챙겨주기 4점, 급·간식 4.4점, 병원 동행과 아픈 아이 돌봄 3.98점, 교과목 보충학습 4.04점, 예체능활동 4.44점, 체험활동 4.35점, 다른 아동과 자녀의 관계 4.27점, 기관을 향한 주변의 시선 4.22점
- (전반적 만족도) 4.51점(지역아동센터 4.65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58점, 다함께돌봄센터 4.43점, 학교돌봄터 4.31점, 초등돌봄교실 4.28점)
- (향후 이용 기간) 초등학교 졸업까지 이용 55%(지역아동센터 72.7%, 다함께돌봄센터 54.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
- (돌봄 기관의 유용성) 안전한 보호 4.58점, 사회성 발달 4.49점, 정서 안정 4.46점, 학습 태도와 능력 향상 4.31점
- (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 4.38점(200만 원 미만 4.55점, 800만 원 이상 4.11점: 소득이 낮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음)
- (필요한 아동돌봄서비스) 급·간식 제공 4.41점, 예체능활동 4.36점, 체험활동 4.33점, 교과목 보충학습 4.18점, 숙제 지도와 준비물 챙겨주기 3.93점, 병원 동행과 아픈 아이 돌봄 제공 3.90점, 종료 후 이동 편의 제공 3.48점, 등하교(원) 동행서비스 3.39점
- (사교육 이용과 이유) 이용함 71.3%(학교돌봄터 87.2%, 초등돌봄교실 83.3%, 다함께돌봄센터 81.8%, 지역아동센터 59.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7.5%). 평균 2.19개 이용. 주된 이용 이유 ‘아동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길 위해서(63.2%)’
- (자녀 1인당 월 사교육비) 평균 35만 649원(학교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40만 원 이상)
- (사교육 병행 어려움과 이유) 병행 어려움 29.2%. 주된 이유 ‘시간을 조율하기 어려워(70%)’
- (학기 중, 방학 때 시간대별 아동의 돌봄 형태) 학기 중, 방학 때 모두 17~19시에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 증가.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7~9

시, 17~19시에 도우미 이용하는 경우가 소수 있음

- (아동돌봄서비스 인지) 초등돌봄교실(89.2%), 지역아동센터(68.8%), 학교 돌봄터(53.3%), 다함께돌봄센터(36.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 아이돌봄 지원사업(35.8%),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17.9%), 공동육아 나눔터(14.2%)

- 아동돌봄의 어려움

- (긴급한 돌봄 경험과 어려움 정도) 긴급할 때 자녀돌봄 공백으로 어려움 있음 63.8%. 상황별 어려움 정도(자녀가 아플 때 4.28점)
- (긴급한 돌봄 공백 시 돌봄 대안) 주로 사적 자원으로 해결(부모 중 한 명이 맡아서 돌봄 34.6%, 조부모 등 가족이 돌봄 28.1%, 아동이 혼자 있음 23.9%)
- (부담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1회 평균 2만 4,843원
- (돌봄 공백으로 병원 이용 어려움 경험) 있음 30.8%

- 돌봄 관련 선호

- (아동 전용 식당 이용 의향과 그 이유) 이용 의사 86.7%(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에서 챙겨줄 수 있다 34.4%)
- (선호하는 돌봄 방식과 그 이유) 1순위: 마을돌봄 56.3%(학교 또는 집과 접근성이 좋음 32.5%,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 28.3%). 2순위: 학교 돌봄 45%(학교 또는 집과 접근성이 좋음 25%,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17.9%)
- (선호하는 돌봄 장소) 초등학교 유휴 공간 38.3%. 공공건물의 유휴공간 활용 26.3%,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 활용 25.8%

- 고양시 아동돌봄

-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 인식) 질이 만족스러움 3.8점, 원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함 3.28점, 정보를 찾기 쉬움 3.26점, 양이 충분함 3.17점
-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고양시의 지원) 돌봄 기관의 개수를 늘리는 것 27.8%, 돌봄 교사 인력 보충 15.8%, 품질관리 14.2%, 틈새 돌봄서비스 추가 14.2%, 돌봄 기관의 시설 환경 개선 9.2%, 아동 전용 식당 추가 운영 6.7%, 이동서비스 추가 6.3%, 적극적 홍보 3.8%

- 행복감

- (보호자의 행복감) 평균 6.36점(200만 원 미만 5.91점으로 가장 낮음, 800만 원 이상 7.16점으로 가장 높음)
-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평균 7.22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85점]를 제외한 나머지는 7점대)

□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 FGI와 자문회의 분석

○ 분석 대상과 방법

- 아동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 7명과 돌봄 기관 종사자 14명을 학부모 1개 집단과 돌봄 기관 종사자 2개 집단으로 나누어 FGI(Focus Group Interview) 수행
-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 4명은 개별 자문회의 참여

○ 연구 결과

구분	연구결과
아동돌봄 미이용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이나 활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마다 초등돌봄교실의 질에 차이가 있음 · 다자녀는 서로 돌볼 수 있지만, 외동은 돌봄에 더욱 취약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림 · 안전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고, 그 외의 공적 돌봄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음 · 병원동행서비스 긴급 돌봄이 가능해서 희망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은 불안할 수 있음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가 1, 2학년이라 3학년 이상은 이용하기 어렵고 기대 안 하는 분위기. 저학년 중에서도 대기자 많음 · 돌봄 교사별로 근무시간 차이 있음(8시간, 6시간). 아동의 이용이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짐. 같은 학교 내의 같은 돌봄 기관인데 이용에 차이 발생 · 자유로운 출입 불가능(학교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학교도 있음) · 인력의 부족으로 아이들과 교류가 힘들(청소도 해야 하는데 놀아줄 수 없음) · 중증장애아동 입소 시 적절한 돌봄이 어려움
학교돌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협의가 어렵고, 같은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교류가 거의 없음 · 다른 학교에 비해 돌봄 제공이 많은 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함. 다른 학교 학생이 오는 경우 거의 없음 · 아동의 불만은 놀잇감이 부족한 것과 인력 부족으로 외부활동 제약이 있는 것 ·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교사는 무기계약직인 반면 학교돌봄터의 돌봄 교사는 계약직으로 처우 차이가 많음

구분	연구결과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부족으로 후원금이나 프로포절 사업으로 보충함(추가 업무) · 아동의 불만은 낙인감과 센터에서 쉬지 못하는 것임 · 학부모의 불만은 초등생의 이른 귀가 · 센터를 둘러싼 마을, 학부모 등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음 · 월세 부담 때문에 공간 지원 필요(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함) · 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필요. 상근 돌봄 교사의 추가 배치 또는 인건비 증가 필요 · 실효성 낮고 불필요한 의무교육 제외 필요 · 야외활동 등 이용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 필요 · 센터-학교-마을 간 연계가 필요함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교사는 4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에 있는 반면에 희망자리로 배치되는 매니저는 6시간 근무에 생활임금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낌. 또한 서울시에 비해 돌봄 교사 처우가 낮아 책임감과 의욕이 저하됨 · 대기자가 많은 상황 · 교사 수가 한정되어 아이들과 외부활동을 거의 못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업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학부모가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면적 기준이 있으나 도시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힘들 · 고양시는 신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아 의무설치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다자녀가 대부분. 차상위가정은 드물. 자원협약체의 심의를 통해서 기준 외 인원 수용 가능. 취약계층이 적은 이유는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학원을 선택함 · 아동의 불만은 의무시수(주 15~20시간) 부담(이용이 유연하지 않음) · 다양한 돌봄 기관의 통합이 필요함
아이돌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의 노무 문제 발생 시 노조 대응 어려움. 특히 출퇴근 산재가 증가함 · 특성상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워 특별제외 적용 필요함 · 돌보미가 부족하지만 교육 조건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충원이 어려움 · 정년이 없는데 고령돌보미의 경우 이용자의 기피로 돌봄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음 · 전국 동시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이 느려서 실무자의 수기작업 증가 · 이용자와 돌보미의 악성민원 응대로 종사자 소진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기관 증대 필요(지침상 복수기관 지정 가능) · 추가수당, 장기근속수당 또는 급량비, 소진 예방 지원 등 필요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아이돌보미 채용 관리 역할)
아동돌봄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선정 3년 이후 유지 여부가 불투명함 ·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이 중요함 · 사업비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인력을 충원함 · 프로그램의 질을 학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을 프로그램에 투입함 · 기존에 자생하던 공동체가 사업에 신청한 경우로, 공동체가 사업을 위해 갑자기 생성·유지되긴 어려울 수 있음. 공동체 검증이 필요하고 신생 공동체의 경우 성장할 수 있는 점진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임 · 상주인력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공동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을 잘 지켜야 함 · 시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 도출

○ 2차 자료

-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2022): 아동돌봄 필요성과 어려움이 매우 높은 편. 그러나 관련 서비스의 인지율은 가장 낮음
-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2020): 교육·보육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3점, 사회적 돌봄 만족도는 5.66점으로 높지 않음
- 2021년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2021): 고양시는 18세 미만 인구 1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가 1.71개로, 유사 인구 규모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임
- 고양시 아동돌봄연구회 설문조사(2021): 아동 돌봄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임. 선호하는 돌봄 장소는 학교 내 공간으로 86.7%임

○ 정책 동향과 현황

-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부서의 네트워킹을 주도할 중심기구가 없음
- 지역아동센터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며(고양시 32개 < 성남시 53개) 이마저도 감소 추세임. 다함께돌봄센터 수 역시 적음(고양시 3개 < 수원시 11개, 성남시 23개, 용인시 11개)
- 낮은 초등인구 대비(만 6~11세) 돌봄 공급률이 11.65%, 평균 미만의 행정동은 총 14개임. 아동 인구가 공급을 훨씬 웃돌거나 마을돌봄이 없어 공급 확충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서 특히 공급률이 낮게 나타남

○ 설문조사

- (아동) 아동의 자기결정권 존중 필요. 돌봄 기관이 아동의 생활 반경 근 거리에 있어야 함. 돌봄 기관은 돌봄 이상의 역할, 즉 교육, 여가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하루 5시간 이상 어른 없이 아동 혼자 있

는 경우가 5%로, 돌봄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중 행복감이 3점 이하(10점 만점)로 낮은 아동이 20%이므로 이들에게 관심이 필요함

- (보호자) 이동 시 차량 지원, 등하교 동행서비스, 병원 동행과 아픈 아이 돌봄 제공에 관한 만족도가 낮음. 식사 해결과 다양한 활동 욕구가 높음.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63.8%) 자녀가 아플 때의 어려움이 가장 컸고(4.28점), 돌봄 기관에 맡겨 이를 해결하는 경우는 소수(5.2%)임. 보호자의 86.7%가 아동 전용 식당을 이용할 의사가 있음. 돌봄 기관 확충이 고양시에서 가장 필요함 (27.8%)

○ FGI와 자문회의

- (미이용 학부모)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임. 돌봄 기관마다 돌봄의 질이 다름. 학교돌봄을 가장 선호함.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돌봄 기관 종사자) 열악한 급여와 처우가 가장 큰 문제임. 4~6시간의 짧은 근무시간에 과도한 행정업무로 돌봄 제공이 어려움. 인력 부족과 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움. 정서 문제를 지닌 아동 대처에 한계 있음. 아동뿐 아니라 이용 학부모의 비협조로 업무 스트레스 과중

5. 아동돌봄 국내외 사례 연구

□ 국외 돌봄 사례 분석

○ 일본

-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시작됨.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과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로 구분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시·정·촌이 통합 관리함
- 방과 후 아동플랜(2007~2014) 수립부터 신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9~2023)에 이르기까지 두 사업을 일체형 또는 연계형으로 통합 시도. 2021년부터 내각

부에 아동가정청을 신설하여 아동돌봄 통합 과정 운영 중임. 최근까지 일체형 중심의 방과 후 아동클럽, 방과 후 아동교실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설 방과 후 아동클럽의 약 80%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스웨덴

- 코뮌이 영유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돌봄 유형을 통합 관리하며 1개 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됨. 재정도 기본적으로 코뮌에서 총당함
- 대부분 초등학교 시설로 통합됨.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와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이용 가능. 부모의 퇴근 시간이 돌봄 기관의 돌봄이 끝나는 시간과 일치함
- 2011년 교사양성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 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함
- 아동 관점의 발달 상황을 최우선으로 삼아 충분한 휴식과 야외활동, 토론을 통한 다양성 존중 자세와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도록 함

□ 국내 돌봄 사례 분석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 유형을 규모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역할을 구분해 공급뿐 아니라 돌봄 기관 간 연계도 책임짐. 포털을 통해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노원구) 아픈 아동의 돌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했으며, 아동식당 3개소로 밥상돌봄서비스도 제공하여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식사만 이용할 수 있음
- (서울 중구) 지자체가 직접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틈새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함
- (경기 성남시) 모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아동 편의상 식사만 이용할 수 있고 급간식비, 일시돌봄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영됨
- (경기 오산시) 상시돌봄과 틈새돌봄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마을 자원을 적극 연계하며, 아픈 아동의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함
- (울산 울주군)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내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가질 수 있

는 단점을 많이 해결함

- (전남 광양시) 아동돌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담당 부처를 단일화하고 광양아이키움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함
- (전북 완주군)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함. 지역 구성원을 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함

□ 시사점

- 지자체가 주도하여 통합된 아동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초등학교를 아동돌봄을 위해 더 개방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 이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노동 문화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틈새돌봄을 확대해야 함
- 아동의 입장과 욕구를 정책에 더욱 반영해야 함
- 돌봄 기관을 연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와 정보 전달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 필요함
- 일시·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아동식당이나 아픈 아이 돌봄 등 추가 서비스가 필요함
- 마을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기존의 정책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를 해결해야 함
- 업무의 효율을 위해 담당 부처 개편이 시급함

6. 결론 및 정책제언

□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 아동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
 -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와 선호 파악 및 돌봄 공급계획 수립
 - 다양한 형태의 돌봄 기관 마련
 - 아동돌봄 기관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학교돌봄 확대, 고양시 공동체 돌봄 정책 마련

-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

- 일시돌봄 활성화 및 긴급/틈새돌봄 강화
- 아동 병간호 서비스: 아픈 아동 가정으로 아이돌보미 일정 기간 무상 파견
- 아동식당 운영: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도 돌봄 기관을 이용하여 끼니 해결
-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전문가 상담 지원
- 돌봄 기관 야외활동 지원: 아동의 가장 큰 욕구이므로 인력과 공간 지원

○ 아동돌봄 종사자 양성 및 지원

- 돌봄 종사자 체계적 양성: 실효성 있는 교육 시행 및 공동체돌봄활동가 양성
- 돌봄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임금을 고양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돌봄 교사 근무시간 연장 지원
- 행정업무 간소화

○ 아동돌봄 모델 구축 및 이용자 접근성 강화

- 고양시 아동돌봄 모델 구축
- 고양시 아동돌봄 인식 제고를 위한 모델 브랜드화 (예시: 고양아이 행복센터)
- 고양시 아동돌봄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아동돌봄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협의체 활성화

- 아동돌봄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

- (1안) 고양시 아동돌봄지원센터 설립

- 고양시 아동돌봄지원센터 기능 및 세부 사업

기능	세부 사업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기획	①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 ② 수요·공급조사 및 공급 우선 지역 및 입지 지정 ③ 아동돌봄 기관 확충을 위한 조사 및 개발 ④ 고양시 아동돌봄 중장기 및 시행계획 수립 ⑤ 고양시 아동돌봄 질 제고를 위한 연구 ⑥ 아동돌봄관련 서비스 및 매뉴얼 개발
아동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운영	① 지역돌봄협의체, 지역돌봄실무협의체 활성화 지원 ② 아동돌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③ 아동돌봄서비스 기관 연계 ④ 고양시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⑤ 민간자원 개발
아동돌봄 기관 및 종사자 지원	① 아동돌봄 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② 아동돌봄 종사자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③ 아동돌봄 대체인력 교육 및 지원 ④ 공동체돌봄활동가 양성 ⑤ 아동돌봄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아동돌봄 특화서비스 지원	① 긴급돌봄 및 틈새돌봄 운영 ② 아동식당 운영 ③ 아동 카페 및 아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④ 아동 심리 정서 프로그램 운영(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⑤ 아동 병간호서비스 운영(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등

- (2안) 아동돌봄 전담부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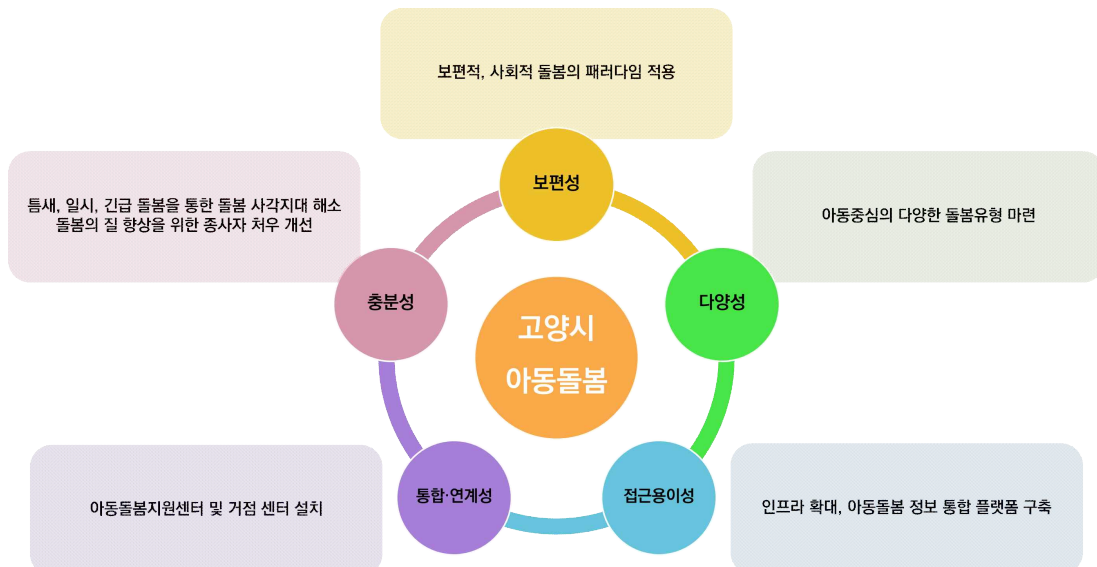
-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
- 지역돌봄실무협의체 설치 및 활성화
- 행정구별 아동돌봄 협업 거점센터 지정

○ 고양시 아동돌봄 중장기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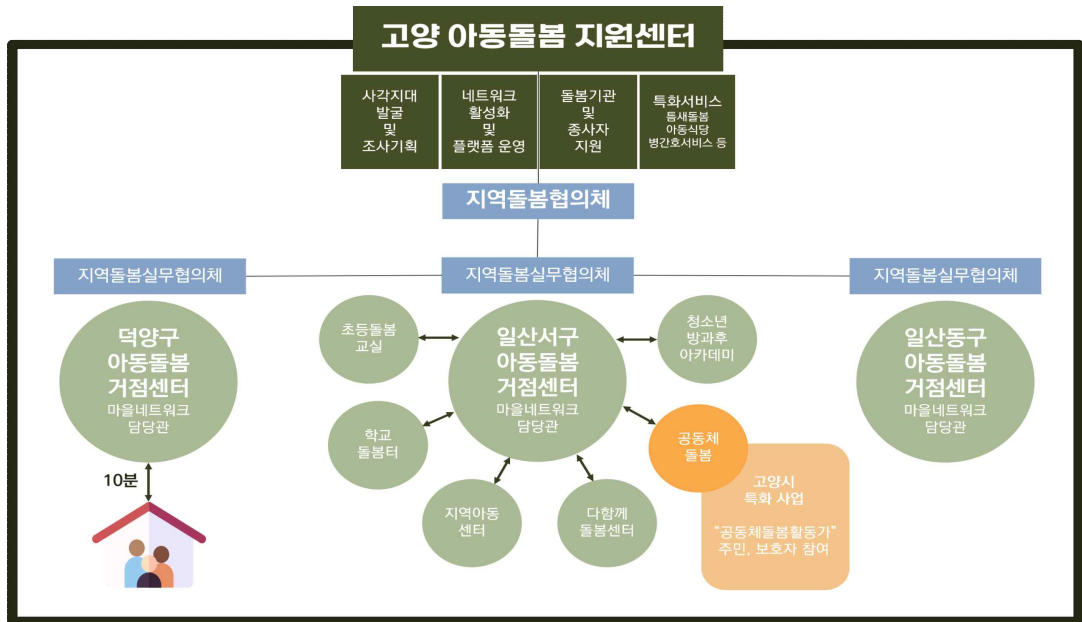


□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방향



○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과 목적

1)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뚜렷한 저출생 현상으로 사회적 아동돌봄 필요성 증가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등으로 양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2012년 1.3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이보다 낮은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저출생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음

정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초등아동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지자체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아동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질 제고,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와 아동 중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현행 5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양시도 2020년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돌봄의 시장 책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1년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동돌봄 사업과 온 마을 아이돌봄 시설 설치와 지원 그리고 연도별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고양시 아동돌봄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3) 초등아동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돌봄 공백이 큼

지금까지 대부분의 돌봄 정책은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6세 이상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취학 전 주된 돌봄 기관인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취학 후 초등학교 수업 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돌봄 공백이 크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후 맞벌이 부모 등 아이들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초등돌봄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한국일보, 2018.09.06.).

현재 초등생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초등돌봄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지역 간 격차가 심하며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지의 경우에도 아동 수가 적고 돌봄 기관이 멀어 돌봄 사업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주체가 민간인 경우 임차료 부담, 운영비 부족 등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2014년 43개소였던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는 2022년 현재 32개소로 줄어들었다. 저소득층 아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서 낙인감이 있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접근성에 제약이 있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은 대기자가 많으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방학, 학교 재량휴일, 긴급 상황 등과 관련해 긴급, 틈새, 일시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돌봄서비스가 현재 맞벌이 부부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부모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질병, 교육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돌봄 기관 추가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의 어려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부지이자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충족하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지 않고 무상임차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아동돌봄 공급기관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5) 전달체계 분절에 따른 통합적·체계적 정책 수립의 어려움과 조직·인력 미비

또한 초등돌봄 제공 기관은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여성가족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로 부처별 정책 사업마다 담당 부처가 다르고, 지원되는 근거법 또한 달라서 돌봄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양시 역시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 도서관센터 등 다양한 부서에서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를 통합할 아동돌봄 전담팀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계해 통합하기도 어렵다.

6)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아동돌봄 필요

지금까지 아동돌봄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제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였으므로 지자체의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최근 서울시, 성남시, 오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제도를 활용하고 지자체 자체 돌봄서비스를 개발하여 아동돌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도 정부 주도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동시에 공동체 활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고양시 아동돌봄¹⁾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과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¹⁾ 본 연구의 '아동돌봄'은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에 한하며 돌봄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뜻한다.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돌봄과 관련한 이론을 검토하고 아동돌봄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동돌봄정책을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둘째,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과 아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였다. 고양시의 아동 인구, 아동돌봄 관련 조례,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 부서와 인력, 고양시 아동돌봄 사업 현황을 통해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을 분석하였고,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와 공급을 행정구와 행정동별로 분석했다.

셋째, 고양시 아동돌봄 실태를 분석하였다. 고양시 아동돌봄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만족도와 욕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고, 아동돌봄 미이용 학부모,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자료와 2차 자료(고양시 5기 지역사회보장 실태조사, 고양시 돌봄연구회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아동돌봄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동돌봄사업의 연계, 통합 방안과 관련하여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고유의 차별화된 아동돌봄사업을 수행하는 서울 중구,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시, 전북 완주군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 분석 내용에 근거하여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과 지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1]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연구 내용	세부내용	연구방법
아동돌봄 이론적 논의 및 정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돌봄에 대한 이론 검토 • 아동돌봄 정책 동향 분석 • 학교돌봄 정책 • 마을돌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 분석 • 통계자료 분석
고양시 아동돌봄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 만족도와 욕구 분석 •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학부모 만족도 및 욕구 분석 •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 FGI와 자문회의 분석 • 2차 자료 분석 : 제5기 지역사회보장실태조사, 2021년 고양시 사회조사, 2020년 고양시민행복실태조사, 2021년 고양시 아동돌봄연구회 설문조사 •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 FGI • 2차 자료 분석
아동돌봄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돌봄 사례(일본, 스웨덴) • 국내 돌봄 사례(서울 중구,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시, 전북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연구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및 아동돌봄 지원 모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제시 •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제 2 장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와 정책 동향

제1절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아동돌봄 정책 동향 분석

제3절 학교돌봄 정책

제4절 마을돌봄 정책

제2절 아동돌봄의 이론적 논의

1. 돌봄과 돌봄윤리

돌봄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공간,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힘들다. Fisher & Tronto(1990)는 돌봄(Caring)이 인간의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며 개선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Held(2006)는 돌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먹이기, 씻기기, 환경정리 등 기능적 돌봄을 넘어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 배려 같은 ‘관계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성에 따라 돌봄은 기계로 대체가 불가하며, 돌봄 받는 대상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ngster(2007)는 돌봄의 필수적 속성을 관심(attentiveness), 반응(responsiveness), 존중(respect)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은 존중을 기반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며,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고, 대상자에게 내재한 능력을 발전·유지하고, 고통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Daly(2002)는 돌봄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행위와 행위를 강제하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최희경(2010)은 돌봄을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신체적, 정신적 수고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그리고 돌봄은 단순히 의존적인 이들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친근감, 헌신, 관심 등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는 1980년대 이후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모든 인간은 의존을 경험하며 돌봄 의존이 취약한 자의 돌봄 요구는 매우 절박하고 또한 도덕적인 것으로 본다. 즉, 돌봄윤리는 돌봄 의존이 취약한 자의 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도덕적 응답으로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규범화하는 윤리이다.

Gilligan(1982)에 따르면 돌봄은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라

는 것을 전제로 돌봄 제공자와 돌봄 대상자를 동시에 고양한다. 이로써 일상적 돌봄 개념을 도덕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돌봄을 중심 가치로 하는 도덕 발달 단계를 자신만을 돌보는 첫 번째 단계, 타인을 돌보는 두 번째 단계, 서로가 함께 고양되는 세 번째 단계로 설명하고 세 번째 단계를 가장 성숙한 도덕발달 단계라고 설명하였다. Noddings(1984)는 윤리적 돌봄의 관계에 주목하고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의 상호 호혜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돌봄윤리는 여성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가정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을 사회, 정치 제도의 원리이자 정치윤리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게 하려는 시도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 사회적 돌봄과 공공성

Engster(2007)는 돌봄의 동기를 인간의 상호의존성으로 보면서 인간 존재는 보편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므로 모두에게 타인을 돌봐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적 돌봄은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수행하던 돌봄 부담을 가족이나 국가, 시장, 지역사회 등에서 분담하는 것(Daly & Lewis, 2000)으로서 돌봄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다(임의영, 2019). 사회적 돌봄은 복지국가의 변화와 발전을 포착하기 위한 중심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내에서 공적 돌봄 개입이 정책 의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의 일이다. 그 당시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던 한국적 복지모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조성되었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인구층을 위한 돌봄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마경희, 2010). 인간의 생존을 위해 돌봄은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공공재로서 사적 영역으로 방치할 수 없으며 공적 가치와 국가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홍선미, 2022).

공공성이란 합의된 개념 정의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조직이 행위 주체로서 공공재로 간주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성

이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조직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간영역에서도 공익적 목적성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최영, 2022).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혜자 범위의 보편성과 포괄성,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서비스 구성, 서비스의 신뢰 형성과 개방성·반응성 확보, 재정적 책임성 등의 실현이 필요하며(임성욱, 노연희, 2012), 재정적 책임 확보와 공공부문의 공급 주체와 규제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욕구가 있는 모든 대상을 포괄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접근성과 이를 위한 재정적 책임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선미, 2022).

3. 돌봄 민주주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돌봄을 받았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헐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봄은 장애, 질병 등 특수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관련한 이슈로 강조되었고 돌봄 제공자 역시 주로 여성이 수행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겨져 돌봄 노동은 성별화, 저가치화되어 왔다(장수정, 2020).

Kittay(2016)는 돌봄이 필요한 인간의 ‘의존’이 필수적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간 의존의 정당성과 보편성 그리고 비의존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돌봄 관계가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제도의 재구조화를 주장하였다. 개인주의와 시장주의 패러다임이 돌봄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전제하고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적 기반을 둔 돌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회구조가 재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는 Tronto(2014)가 주장한 개념으로 모든 시민이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돌봄 책임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돌봄 책임을 더 많이 가지는 경우 기회 불평등을 경험하고, 돌봄 책임의 불균형으로 부정의가 고착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돌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돌봄(caring with)’의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Tronto(2014)는 돌봄을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의제로 본다. 누가 돌봄을 책임지고, 누가 돌봄을 제공하며, 돌봄 관제 당사자들을 누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돌봄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돌봄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함께 돌봄의 실현을 위해서는 돌봄 책임 분배 과정과 의사결정에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와 돌봄의 책임이 공유될 수 있도록 민주적 조건과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했던 돌봄의 가치를 인식하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등 돌봄책임 분배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상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모두의 욕구와 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고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가 서로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와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함께 돌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가치 변화가 필요하며 함께 돌봄 실천을 통해 시민 간 신뢰를 쌓고 돌봄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Tronto, 2014).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의 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대안적 돌봄 실천과 정책까지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정책 분석과 대안 모색의 틀로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송이 외, 2021).

제2절 아동돌봄 정책 동향 분석

1.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계획²⁾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고 중앙부처 간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온종일 돌봄이란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등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로써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온종일 돌봄은 일반적으로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과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여 2022년에 초등학생 53만 명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이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등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³⁾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고 있으나 초등아동 돌봄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²⁾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³⁾ 관계부처합동(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참고하여 작성함

다.

아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계획 중 영유아를 제외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이돌봄미의 역량 강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돌봄공동체 사업 등 보완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초등교육 혁신을 통해 아동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며,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고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3.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경기도⁴⁾

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경기도는 2021년에 각각 발표했다.

1) 보건복지부(2020)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 중심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한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의 추진과제로 아동 중심 공적 보호·돌봄 체계 구축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할 뿐 아니라 내실화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2) 경기도(2021)의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아동돌봄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아동돌봄의 촘촘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도만의 특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돌봄의 거점

4)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와 경기도(2021).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참고하여 작성함

기능을 수행하고,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나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내 다양한 돌봄 기관의 운영 지원, 시군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⁵⁾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46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아동의 보육과 돌봄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중 초등아동과 관련한 내용은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으로, 마을돌봄을 활용해 집 근처에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학교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교육, 자격 관리 제도와 민간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⁵⁾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참고하여 작성함

제3절 학교돌봄 정책

아동돌봄은 크게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를 포함한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아동돌봄공동체 등을 포함한 마을돌봄으로 구분한다.

1.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전용 또는 겸용 교실 등의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정규수업 이외에 제공하는 돌봄을 말한다. 저학년을 우선으로 수용하고,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주요 대상이다(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일 2022.05.11.).

2004년에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2010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처음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맞벌이 가구의 아동도 주요 이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에 포함되면서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와 개선이 더욱 요구되어 2021년에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교육청, 2022). 이는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500실로 늘리고, 수요를 고려하여 19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며,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교육부, 2021.08.04.).

초등돌봄교실은 크게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고, 1개 교실에 20명으로 구성하되 최대 22명까지 편성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초등돌봄교실 유형 비교

구분	오후 돌봄교실	다함께꿈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저녁 돌봄교실
운영 시간	지자체 여건과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부터 17~19시까지 운영 권장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17시(또는 19시)~22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운영 인력	초등보육전담사	학교의 여건별로 다양한 인력 활용	초등보육전담사
참여 대상	1~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기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3~6학년 학생, 1~2학년 오후돌봄교실 대기학생 중 희망자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특이점		간식 및 급식 미제공, 무상 프로그램 미제공	참여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돌봄 기관과의 연계 운영

〈자료〉 경기도교육청(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판 2022

2. 학교돌봄터⁶⁾

학교돌봄터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근거하여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의하여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는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학교는 활용가능교실이나 학교 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교돌봄터 운영·관리를 책임진다. 이로써 안전한 돌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2021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22년 기준 경기도에서 8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지만, 비영리 법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운영예산은 복지부(국고), 교육청(지방비), 지자체(지방비)가 1:1:2 비율로 구성한다. 인력의 경우, 교실당 업무 담당자 1명과 학교당 관리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기본 이용대상이지만,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가 우선 이용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13~17시에 운영하되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틈새돌봄(7~9시), 돌봄시간 연장(17~19시)이 가능하다. 하나의 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6) 관계부처합동(2021)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학교돌봄터 사업-”을 참고하여 작성함

와 초등돌봄교실을 함께 운영할 때 긴밀한 연계를 위해 지자체 돌봄 종사자와 학교 돌봄 전담사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의 대안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권형진, 2021.10.11.). 또한 실제로 초등학교는 학교돌봄터의 신규 설치 보다 기존 돌봄교실의 전환을 원하지만, 돌봄 교사 재배치 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분석된다.

[표 2-2] 학교돌봄

구분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중앙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교육부 협조)
근거법령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보건복지부 사업공고 지침
시작연도	2004	2021
지원대상	초등 1~6학년 (저학년, 맞벌이 가구의 아동 우선)	
지원기준	소득 기준 없음	
지원내용	보호, 교육, 일부 급·간식 지원	
지원형태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인력	돌봄전담사(최대 22명 담당)	교실당 업무 담당자 1명, 학교 내 관리자 1명
학기 중	방과 후~19시 내외	방과 후~19시
방학 중	9시~17시(여건에 따라 자율)	9시~18시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각 사업 안내서

제4절 마을돌봄 정책

1. 지역아동센터⁷⁾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체험활동, 공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결식아동과 나홀로아동이 증가하자 2004년에 민간이 운영하던 공부방을 법제화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시작되었다. 당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분을 공급 확대를 피해 신고제를 도입하여 진입 문턱을 낮추었다(강지원, 2017).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높은 접근성,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확장했으며(홍나미 외, 2019), 질적 성장을 위해 2009년부터 평가·컨설팅 사업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2019년에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기준을 개선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여러 돌봄 정책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 아동은 ‘우선돌봄아동’과 ‘일반아동’, ‘돌봄 특례’로 구분한다. 우선돌봄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 가구 등의 아동을 말한다. 일반아동은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이다. 돌봄 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호자가 실질적으로 부재하는 등 가정 내 돌봄이 받기 어려운 아동 등)에 해당한다. 현재 시설별 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

⁷⁾ 보건복지부(2022b) “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아동이어야 한다.

운영 형식은 다음과 같다. 주중을 포함한 주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학기 중에는 14~19시, 방학 중에는 12~17시가 필수 운영시간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종사자 배치기준이 다르다. 10명 이상 30명 이상의 센터는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을, 30명 이상은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을 두게 되어 있다.

[표 2-3] 지역아동센터 인력 배치 기준

기준(이용 아동 수)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10명 미만*	1	-	-
10명 이상 30명 미만	1	1	-
30명 이상	1	2 (아동 50명 초과: 1명 추가)	1 (아동 50명 이상만 해당)

〈자료〉 보건복지부(2022b), 2022 지역아동센터 자원 사업안내

〈주〉 *2012년부터 신규 설치 불가

2. 다함께돌봄센터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아동복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된 돌봄 인프라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202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역의 초등돌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유연하게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로,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한다. 이처럼 지자체가 설치·운영의 주체이므로 직영방식의 운영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보건복지부(2022a) “2022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지만,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구의 자녀, 저학년 등이 우선 입소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들에게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

주 5일(주중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하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는 14~19시에, 방학 중에는 9~18시에 운영한다. 현행 표준 운영시간이 이처럼 제한적이라 출퇴근 시간대의 맞벌이 가구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어 아침(7~9시), 저녁(19~21시)에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력 배치의 경우,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센터장 1명과 돌봄선생님 1명이 센터 내 필수 인력이다. 여건에 따라 돌봄선생님을 시간제(4시간) 2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간대 돌봄필수인력 1인당 일시돌봄 이용 아동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해야 한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⁹⁾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과 사교육비·양육 부담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는 돌봄 사업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저소득층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과 후에 방치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2008년까지 계속해서 양적으로 확대되다가, 2009년에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중단 제도를 도입하여 질적 성장을 꾀했다. 2011년에는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청

9) 여성가족부(2021) “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함

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양계민 외, 2010).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332개소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21).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지역 상황에 맞게 대상 학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용 아동은 우선순위 지원대상과 기타 지원대상으로 나뉜다. 우선순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차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기타 지원대상은 추천서를 바탕으로 지원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크게 일반형과 주말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형의 경우, 방과 후부터 21시까지로 1일 4시수, 주 5~6일을 운영하며, 1주에 20시수 이상(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자율 편성)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학원, 치료 등이 사유가 있을 때, 모집정원의 30% 이내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로 단축해 참여 가능하다. 일반형은 분기별 1회 이상 주말(토요일)활동을 하도록 한다. 반면, 주말형의 경우, 하루 5시수를 기준으로 주말(토~일요일)에 연간 80일 이상 운영한다. 방학 중이라면 평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인력은 전담 팀장 1명과 1개반 당 1명의 담임이 필요하다. 주말형은 담당자 1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팀장은 주로 ①사업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②지역연계협력, ③사업성과관리, ④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담임은 ①프로그램 기획지원, ②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등, ③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④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아이돌봄 지원사업¹⁰⁾

2007년에 시작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며,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¹⁰⁾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종류가 나뉘지만,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나머지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에 다른 가구 유형별로 정부지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가형~다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하고,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거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을 말한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여기에 2015년 출생을 기준으로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에 차이를 둔다.

각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4]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비교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돌봄 기관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요금	기본형 10,550원, 종합형 13,720원	12,660원	16,870원
정부지원	연 84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정부지원시간 특례(960시간) 적용	- A형(가, 나), B형(가):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여부를 선택 - A형(다, 라), B형(나~라):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자료〉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주〉 *기본형(등 하원 보조, 보육,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비전염성 질병에 걸린 때 도보로 병원 동행 가능), 종합형(기본형에 가사 추가된 형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인력은 아이돌보미로 부르는데, 이들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 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한다. 기본 수당인 돌봄수당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수당이 붙는다. 예를 들어,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이면 시간당 3,17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이외에 명절상여금과 교통비를 받고 있다.

5.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¹¹⁾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초등 틈새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안정적인 아동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 총괄하며, 경기도의 20개 시군 내 작은도서관 75개가 참여한다(2022년 기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와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근거한다.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시행, 간식 제공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전한 틈새돌봄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따라 이용 인원, 운영시간, 인력 현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1~6학년생과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아동까지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돌봄(정원 외 아동 수용)을 실시할 수 있다. 최소 10명 내외의 돌봄 인원을 확보하고,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은 인근 아동의 20%를 수용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단, 주 5일간 하루 최대 5시간 범위에서 작은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인력 배치 역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담당자와 돌봄선생님으로 구분된다. 작은도서관 당 22,000천 원의 예산이 주어지는데, 프로그램비, 돌봄비(돌봄인력 실비), 간식비로 구성된다. 각 세부 항목 계획은 재량 운영이 가능하다.

¹¹⁾ 경기도 도서관정책과(2021) “2022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6.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¹²⁾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5조(돌봄공간 조성 등)에 근거하고 경기도 공동체지원과가 주관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다양한 아동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서비스 접근성 등 관 주도의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됐다. 즉, 마을 주민이 공동체를 조성하여 마을의 초등 틈새돌봄을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마을이 함께 아동을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아동돌봄공동체는 10명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지역 내 아동돌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공동체 1곳당 1억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돌봄 공간 시설비(5천만 원 이내, 공사비+자산취득비)와 프로그램 사업비(6천만 원 이내)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사업비가 3년 동안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준공 후 최소 3년 이상 지속해야 한다.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돌봄을 실시하지만, 영유아와 통합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연령을 결정할 수 있다. 돌봄 장소는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하고,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돌봄 대상,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등과 협의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사업비 내 비목인 강사비 중 돌봄강사비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에게 1일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래 강사나 보조강사를 초대할 수도 있다. 또한 간식비 4천 원 이내, 급식비 6천 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¹²⁾ 경기도 공동체지원과(2021) “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2-5] 마을돌봄

구분	마을돌봄				
	지역이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기도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경기도 작은도서관지원 조례
시작연도	2004	2019	2005	2007	2020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초등 1~6학년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초등 1~6학년 (학교배아동 포함)
지원기준	우선돌봄이동: 일반아동 = 50:50	소득 기준 없음 맞벌이가정 중심	우선순위 지원대상, 기타 지원대상으로 구분	소득유형과 연령별 구분에 따라 다름	없음
지원내용	보호, 교육, 급식 제공		학습지원, 창의융합, 진로체험활동, 급식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1:1 돌봄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간식 제공
지원형태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교재, 준비물 등 수이자 부담)	소득유형과 연령별로 정부지원율이 상이함	무상
인력	(10~30명) 생활복지사 1명 (30명~) 생활복지사 2명, 영양사 1명	동시간 이용 아동 20명당 돌봄 선생 1명(주요/시간제) 1명	팀장 1명, 반별 담임 1명	아이돌보미	담당자 1명, 돌봄선생님, 2차 추가 가능
학기 중	14시~19시	방과 후~19시	방과 후~21시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방과후~19시
비학 중	12시~17시	9시~18시	1일 4시간	최소 30분 단위	주5일, 1일 5시간 이내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각 사업 안내서					공통체별 상이

제 3 장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분석

제1절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분석

제3절 요약과 시사점

제절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1. 고양시 아동 인구

2022년 3월 기준, 고양시의 전체 인구는 약 108만이며, 그중 만 6~11세의 초등학생은 5만 8천여 명으로 5.3%를 차지한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수원, 용인, 성남과 비교하면, 고양시의 초등학생 인구가 수원시와 성남시보다는 약 만 명 더 많지만, 용인시는 고양시보다 약 1만 4천 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시 인구수 대비 비율로 보면, 고양시는 수원시(3.9%)보다 1.4% 정도 더 높고, 성남시와는 비슷하다. 용인시는 인구 대비 초등학생 비율이 6.7%로 고양시보다 1.4% 높다.

[표 3-1] 고양시 2022년 아동 인구 현황

구분	인구수	아동(0~17세)		영유아(0~5세)		초등학생(6~11세)		중고생(12~17세)	
		명	%	명	%	명	%	명	%
전국	51,610,695	7,419,905	14.4	1,896,449	3.7	2,760,438	5.3	2,763,018	5.4
경기도	13,575,936	2,136,370	15.7	560,638	4.1	798,206	5.9	777,526	5.7
고양시	1,079,065	156,837	14.6	39,596	3.7	57,551	5.3	59,690	5.5
수원시	1,185,569	180,172	15.2	33,993	2.9	46,292	3.9	67,640	5.7
용인시	1,075,784	189,348	17.6	45,844	4.3	71,989	6.7	71,515	6.6
성남시	929,463	132,320	14.2	33,450	3.6	47,578	5.2	50,292	5.4

〈자료〉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3월 기준

고양시의 초등학생을 만 6~11세로 정의했을 때, 연령 구간에 따른 인구수는 만 6세 9,164명, 만 7세 9,121명, 만 8세 9,075명, 만 9세 10,061명, 만 10세 9,990명, 만 11세 10,140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고양시 2022년 만 6~11세 연령 구간 인구수

(단위: 만 나이, 명)

총거주자	6~11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070,065	57,551	9,164	9,121	9,075	10,061	9,990	10,140

〈자료〉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3월 기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3월을 기준으로 만 6~11세 아동의 인구수를 비교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령 구간 인구 비율이 2008년 8.96%에서 2022년 5.33%로 많이 감소했으며 1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아동인구는 2008년 대비 31%가 감소했다.

[표 3-3] 아동 비율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8.03	2010.03	2012.03	2014.03	2016.03	2018.03	2020.03	2022.03
만 6~11세 인구수	83,145	73,862	65,072	60,628	58,559	58,628	58,507	57,551
전체 인구 대비 비율	8.96	7.85	6.77	6.07	5.69	5.63	5.45	5.33

〈자료〉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고양시 아동돌봄 조례

1)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돌봄아동이란 초등학교 중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 및 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돌봄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돌봄 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고양시 온 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년, 고양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아동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례에서 보다 아동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온 마을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및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돌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고양시장은 적극적으로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목적으로 아이돌봄 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 부서와 인력

고양시에서 대부분의 아동돌봄 사업은 아동청소년과가 담당한다. 영유아 중심인 아동보호팀과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심으로 보자면, 먼저 아동정책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를 맡고 있다. 드림스타팀은 해당 센터와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한다. 청소년팀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 시설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 도서관센터, 교육청에서 일부를 책임진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지원팀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주민자치과의 마을공동체팀이 아동돌봄공동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센터의 작은도서관은 아이돌봄작은도서관 사업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총괄하고 있다.

[그림 3-1] 고양시 아동돌봄 주무 부서



현재 고양시는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은 돌봄 기관 관리 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 아동수당, 아동급식을 관리하며, 아동정책팀장은 이러한 업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아동돌봄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인력은 3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아동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도 살펴봤을 때, 수원시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보육아동과의 아동복지팀에서 수행하고, 그 밖의 업무도 담당하므로 팀장은 인력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다함께돌봄은 보육아동과의 드림스타팀 일부 인력이 맡아서 관리한다. 이렇게 수원시의 아동돌봄 사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총 6명이다. 이에 반해 용인시는 아동보육과의 아동돌봄팀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 돌봄 등 아동돌봄 사업을 전담하며, 총 7명이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역시 아동보육과의 다함께돌봄팀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를 관리하며, 총 6명의 인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산시는 아동청소년과의 온종일 돌봄팀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 돌봄 구축, 네트워킹 등을 전담하고, 4명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고양시는 아동돌봄의 주요 사업을 아동정책팀에서 담당하지만, 아동정책팀은 아동돌봄 외의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은 상황이고, 수원시는 아동복지팀과 드림스타트팀으로 아동돌봄 담당이 나뉘어져 있다. 즉, 고양시와 수원시는 아동돌봄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없다. 반면 용인시, 성남시, 오산시에는 아동돌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아동돌봄 전담팀이 있다. 이렇게 전담팀으로 주무 부서를 구성하면 아동돌봄 사업 간 협력 및 연계가 수월할 수 있다.

[표 3-4] 시도별 아동돌봄 사업의 인력 현황

지역	인원	팀	담당 업무
고양시	3명 (팀장 제외)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온마을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총괄, 덕양구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토요운영 운영지원 및 관리 등 일산동·서구의 지역아동센터 장애통합·특기적성강사지원 운영지원 및 관리 등
수원시	6명 (팀장 제외)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지역아동센터 시설 신고·변경 및 지도점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국비사업) 지급, 수원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관리 지역아동센터 시설 신고·변경 및 지도점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용자 관리, 아동복지교사 지원(단시간제) 등 지역아동센터 시설 신고·변경 및 지도점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용자 관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급(도비지원사업) 등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보조금 지원 및 지도점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수요조사 선정 및 협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설치 온종일 돌봄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학교돌봄터 운영관리 등
용인시	7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아동돌봄업무 총괄(팀장)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수립,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및 총괄, 지역아동센터 보조금(국비) 예산관리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도비, 시비) 관리, 아동복지교사 관리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결정 및 이용자 보고, 지역아동센터 현황관리 및 업무지원, 돌봄서비스 수요조사 등 다함께돌봄센터 및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자체-학교 돌봄협력모델 추진 온종일 돌봄 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예산관리 및 총괄, 다함께돌봄센터 지도점검 및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소 등 아동복지교사
성남시	6명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팀	다함께돌봄 업무 총괄(팀장) 다함께돌봄, 기초돌봄협의체 시립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확충 아동복지교사 2명

지역	인원	팀	담당 업무
오산시	4명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	온종일 돌봄 총괄, 지역아동센터 업무 총괄, 마을-학교 연계 돌봄 네트워크 구축(팀장) 온종일 돌봄 구축 성과관리, 함께자람센터(상시) 개소-운영 지원, 다함께돌봄 예산관리 등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관리와 운영보조금 교부 및 정산, 학교돌봄터 운영 등 함께자람센터(상시, 틈새)의 운영지원 개선,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이용 아동 모집 및 관리, 온종일 돌봄 구축 관리, 다함께돌봄 예산관리

〈자료〉 각 시의 홈페이지(접속일 2022.06.15.)

〈주〉 ※기술된 아동돌봄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하는 경우 '등'으로 표기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제외

4. 고양시 아동돌봄사업 현황

1)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고양시는 2021년 기준, 88개교에서 243개실을 운영한다. 총 이용 아동은 4,860명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담당, 관리하고, 시비 100%로 1,791,792천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학교돌봄터의 경우, 2021년 기준, 향동숲내초등학교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3개실을 66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신규 설치된 교실은 1개실로 정원이 28명이다. 나머지 2개실은 기존돌봄교실 중 방과후수업 연계형돌봄교실을 전환한 것으로 각각 정원이 19명이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초등학교에 관리자 1명과 돌봄 교사 4명이 있다. 예산은 총 237,420천 원인데 그중 시비가 135,252천 원으로 약 57%를 차지한다. 그 외에 국비와 도비가 각각 51,084천 원씩 소요된다.

경기도에서 학교돌봄터를 설치, 운영하는 시는 2022년 기준 8곳으로, 시흥시가 5개실로 가장 많다. 오산시가 4개실로 그다음이며,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가 3개실로 고양시와 같다.

[표 3-5] 경기도 학교돌봄터 현황

지역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오산시	시흥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교실 수	3	2	3	4	5	3	3	1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2022년 기준)

2)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정책팀이 담당하고 2021년 기준 총 32개소(덕양구 12, 일산동구 11, 일산서구 9개소)에 종사자 80명, 돌봄 교사 32명, 특기적성강사 9명이 재직한다.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성남시가 53개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적으며 이마저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2개소 중 법인 운영이 13개소(사회복지 2, 종교 2, 기타 9개소), 개인 운영이 19개소로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다. 한편,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16개로 가장 많고, 월세 운영이 13개, 자가 운영이 2개, 전세 운영이 1개이다.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815명의 아동이 이용하는데, 우선돌봄아동이 464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한다. 이어 돌봄특례아동이 232명이며, 일반아동이 119명으로 14.6%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1,297,000천 원, 도비 599,252천 원, 시비 2,105,035천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표 3-6]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아동 현황

운영주체별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기타 법인	개인	합계
개소	2	2	9	19	32
시설유형별	자가	무상	전세	월세	합계
개소	2	16	1	13	32
입소아동	우선돌봄	돌봄특례	일반아동	합계	
명	464	232	119	815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2021년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이 관리하고, 중산 다함께돌봄센터,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원당 다함께돌봄센터로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 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원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원은 20명이지만 나머지 두 곳의 정원은 40명이다. 중산 다함께돌봄센터는 참다솜법인이, 대화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당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하여 운영한다. 여기에는 국비 474,317천 원, 도비 121,409천 원, 시비 380,238천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표 3-7]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이름	개소일	위탁운영자	정원
중산 다함께돌봄센터	2019.12.01.	(사)참다솜법인	40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2020.12.11.	(재)경기도사회서비스원	40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2021.07.01.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	20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2022년 기준)

〈주〉 *대화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파트 커뮤니티 소재로 단지 내 아동 비율 있음(7:3)

경기도 내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수원, 성남, 용인은 고양시보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적극적이다. 수원에 11개소, 성남에 23개소, 용인에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고양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뿐으로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3-8] 유사 인구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지역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센터 수	3	11	23	11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각 지역 홈페이지(2022년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팀에서 담당하고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토당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3개소를 모두 운영한다. 시설당 2개의 반이 있으며 반마다 담임 1명을 배치했으며, 각 시설에 팀장 1명이 있어 3개소에 종사자가 3명씩 근무 중이다. 고양시는 이용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조정해 40명을 정원으로 한다. 여기에는 기금 261,768천 원, 시비 261,768천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표 3-9] 고양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

이름	종사자	이용 대상	정원
성사청소년문화의집	3명	초등학교 5~6학년	40
토당청소년수련관	3명	초등학교 5~6학년	40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3명	초등학교 4~6학년	40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2022년 기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지원팀에서 담당하고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2021년 기준 전담인력은 10명이고 아이돌보미는 309명이다. 영아종일제를 제외하고 시간제돌봄만 살펴봤을 때, 2021년에 실이용가구는 969가구, 실이

용 아동은 1,632명이다. 국비 3,657,338천 원, 도비 783,715천 원, 시비 783,716천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양시의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도서관센터에서 담당한다. 3개 작은도서관이 참여하는데, 탄현동에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가족도서관’, 행신동에 ‘재미 있는 느티나무 온 가족도서관’, 중산동에 ‘고양일산1단지 하늘벗작은도서관’이 있다. 각 작은도서관에 22,000천 원의 예산이 부여되었다. 이는 도비 19,800천 원, 시비 46,200천 원으로 구성된다.

아동돌봄공동체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2022년 기준 4개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에 도비 29,280천 원, 시비 29,280천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관산동에 ‘나너우리’는 2019에 시작해 2021년에 지원이 끝났으며, 공동체 구성원 15명이 아동 40명을 돌본다.

주엽1동에 ‘키움아이코칭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받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하며 공동체 구성원 14명에 돌봄아동 14명이 있다.

중산동에 ‘마을문화공간 사다리’ 역시 2022년까지 지원받으며, 구성원 10명이 아동 15명을 돌본다. 주 2회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고 기존의 자생하던 공동체가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참여 회원에게 후원비를 받아 공간의 임대료를 해결하고 있다.

일산1동에 ‘동양아파트 꿈자람터’는 2021년에 시작해 2023년까지 지원받고, 15명의 구성원이 30명의 아동을 돌본다. 마을활동가가 주축이 되어 공동체를 이끌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생하던 공동체를 활용하였다. 2명씩 돌아가면서 돌봄 봉사를 상시로 하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은 자유롭게 놀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표 3-10] 고양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지원 기간	이름	위치	보조금 지원액			돌봄아동 /구성원(명)
			총계	공간조성	돌봄사업비	
2019 ~2021	나너우리	관산동	100,000	50,000	50,000	40/15
2020 ~2022	키움아이코칭연구소	주엽1동	44,000	22,000	22,000	14/14
	마을문화공간 사다리	중산동	100,000	50,000	50,000	15/10
2021 ~2023	동양아파트 꿈자람터	일산1동	100,000	50,000	50,000	30/15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경기데이터드림 아동돌봄공동체 현황(2022년 기준)

[표 3-11] 고양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현황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담당 부서	교육청, 각 학교	아동청소년과(아동정책팀)					
시설 현황*	88개교 242개실	1개교 3개실	32개	3개소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여성가족과(다문화지원팀)	아이돌봄 도서관
이용 인원**	4,840명	66명	815명	100명	3개소 6개실	1,695명	3개
운영 인력**	-	관리자 1명, 돌봄 교사 4명	종사자 80명, 돌봄 교사 32명, 특기적성강사 9명	1교당 4명 (총 12명)	1교당 3명 (총 9명)	전담인력 10명, 아 이돌보미 309명	-
계	1,791,792	237,420	4,001,287	975,964	523,536	5,224,769	66,000
국비	-	51,084	1,297,000	474,317	-	3,657,338	-
기금	-	-	-	-	261,768	-	-
도비	-	51,084	599,252	121,409	-	783,715	19,800
시비	1,791,792	135,252	2,105,035	380,238	261,768	783,716	46,200
합계							

자료: 고양시 내부자료

주: *시설현황에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기준, 나머지는 2022년 기준임

**이용인원과 운영인력에서 아동돌봄공동체만 2022년 기준, 나머지는 2021년 기준임

***예산은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천원임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분석

1.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합동해 각 지역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를 시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신입생과 초등 2학년부터 초등 5학년이다.

1) 2019년 수요·공급 분석

남승연 외(2019)는 2019년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경기도의 아동돌봄 수요·공급을 분석했다. 응답자 중 29.7%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 비율을 전체 초등학교 인구에 적용하여 최소 돌봄 수요를 추정했다. 전체 초등학교생 752,499명의 29.7%인 223,492명이 최소 돌봄 수요이다. 다음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또는 교육비 지원 가정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들의 비율(56.7%)을 동일하게 전체 초등학교생 수에 적용하여 최대 돌봄 수요를 449,242명으로 추정했다.

같은 방법으로 고양시의 아동돌봄 수요를 추정했다. 고양시는 당시 설문 응답률이 59.4%였고, 돌봄 필요 응답 비율 24.8%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비율 60.6%를 전체 초등학교생 인구에 적용했다. 그 결과, 최소 돌봄 수요는 13,590명, 최대 돌봄 수요는 33,207명이었다. 한편 남승연 외(2019)는 돌봄공급을 초등학교교실의 수용 예정 인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초등 현원만을 고려해서 계산했는데, 고양시의 초등학교 공급률은 초등인구 대비 9.1%로 상당히 낮았다. 결론적으로, 최소 돌봄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15.7%였는데, 이는 고양시 초등학교생 중 15.7%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표 3-12] 2019년 경기도와 고양시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

(단위: 명, %)

	돌봄 수요				돌봄 공급						차이 (최소돌봄수요- 돌봄공급)	
	① 필요응답 (최소)		② 필요가구유형 (최대)		초등돌봄교실 (수용 예정)		지역아동센터 (초등 현원)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경기도	223,492	29.7	449,242	59.7	64,693	8.6	16,440	2.2	81,133	10.8	142,359	18.9
고양시	13,590	24.8	33,207	60.6	4,400	8.0	607	1.1	5,007	9.1	8,583	15.7

〈자료〉 남승연 외(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p.55

2) 2020년과 2021년 수요조사 결과

2021년 고양시의 응답자는 19,417명으로 응답률이 35.9%로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2022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의 고양시 응답률은 16.5%, 응답자는 3,965명으로 더 낮은 응답을 보였다. 당시 돌봄 필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응답률이 매우 낮다는 점과 표본추출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돌봄의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2. 고양시 행정동별 초등인구 대비 아동돌봄 공급

1) 분석 목적과 방법

2022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행정동별 초등인구와 행정동별 아동돌봄 기관의 공급으로 수요·공급을 분석하고자 한다.

고양시는 2022년에 행정동을 개편했으나(44개 동) 본 연구에서는 2021년 데이터임을 고려하여 행정동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39개 동).

행정동별 아동돌봄의 수요는 2022년 1월 기준 만 6~11세의 아동 인구로 정의한다.

행정동별 아동돌봄의 공급은 2022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포함된 아동돌봄 기관(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원 합으로 정의한다¹³⁾. 돌봄 기관의 행정동 분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

동에 돌봄 기관이 없는 등 실제 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21년 고양시 돌봄안내지도 중 오후돌봄과 다함께꿈터의 교실수를 참고했다. 이때 오후돌봄 정원은 교실 수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인 22명을, 다함께꿈터 정원은 교실 수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인 25명을 곱하여 계산했다.

나머지 4개 돌봄 기관의 정원은 고양시 내부자료(2021년 기준)를 참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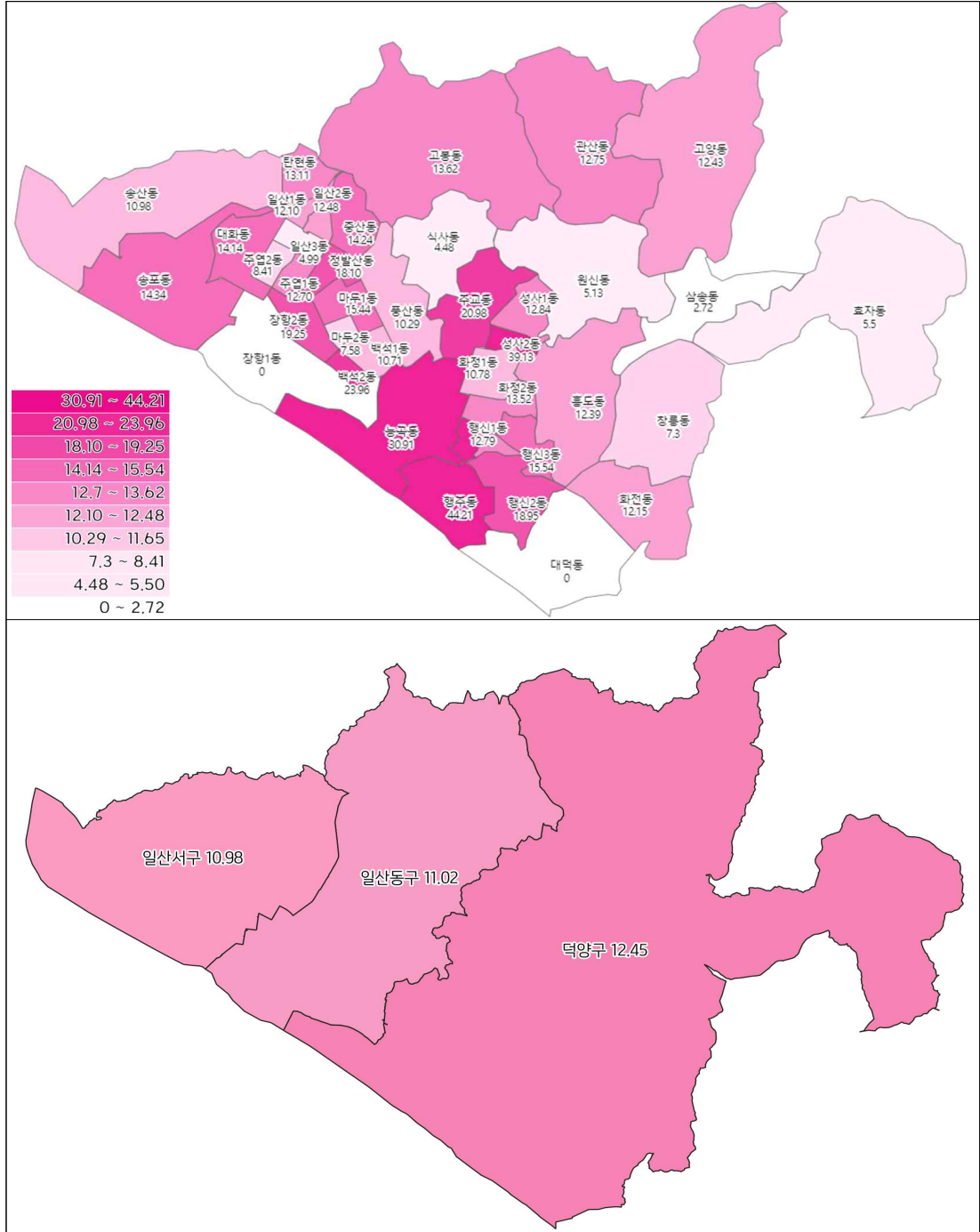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고양시의 전체 초등아동 인구 대비 돌봄 공급률은 11.65%로, 고양시의 초등학생 중 11.65%만이 공적 돌봄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구마다 공급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일산서구의 공급률이 10.98%, 일산동구의 공급률이 11.02%로 나타나 고양시 전체보다 낮았다. 반면, 덕양구의 공급률은 12.45%로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덕양구는 남부의 일부 동에 돌봄 기관이 몰려 있다는 점과 한 개 행정동의 크기가 다른 행정구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지역 간 불균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된다.

초등생 대비 공급률이 0~5% 미만인 지역은 총 5개로 대덕동, 장항1동, 삼송동, 식사동, 일산3동이 있다. 5~10% 미만인 지역은 5개로 원신동, 효자동, 창릉동, 마두2동, 주엽2동이 있다. 10~11.65% 미만인 지역은 4개로 풍산동, 백석1동, 화정1동, 송산동이 있다. 이렇게 평균 미만의 돌봄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덕양구 6개동, 일산동구 5개동, 일산서구 3개동이다.

13) (예) A동 아동돌봄 공급 = 지역아동센터 29명 +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 2개×22명 + 다함께꿈터 1개×25명) + 다함께돌봄센터 30명
= 128명

[그림 3-2] 고양시 초등학교 인구 대비 공급



[표 3-13] 고양시 초·중·고등학교 인구 대비 공급

구	동	공급(명)	초·중·고 인구(명)	초·중·고 대비 공급(%)
덕양구	행주동	214	484	44.21
덕양구	성사2동	171	437	39.13
덕양구	능곡동	187	605	30.91
일산동구	백석2동	132	551	23.96
덕양구	주교동	86	410	20.98
일산동구	장항2동	138	717	19.25
덕양구	행신2동	255	1,346	18.95
일산동구	정발산동	166	917	18.10
덕양구	행신3동	316	2,034	15.54
일산동구	마두1동	217	1,405	15.44
일산서구	송포동	153	1,067	14.34
일산동구	중산동	326	2,289	14.24
일산서구	대화동	209	1,478	14.14
일산동구	고봉동	114	837	13.62
덕양구	화정2동	254	1,879	13.52
일산서구	탄현동	392	2,991	13.11
덕양구	성사동	117	911	12.84
덕양구	행신동	117	915	12.79
덕양구	관산동	190	1,490	12.75
일산서구	주엽1동	182	1,433	12.70
일산서구	일산2동	73	585	12.48
덕양구		3,206	25,754	12.45
덕양구	고양동	203	1,633	12.43
덕양구	흥도동	336	2,711	12.39
덕양구	화전동	251	2,065	12.15
일산서구	일산1동	160	1,322	12.10
고양시		6,703	57,534	11.65
일산동구		1,684	15,275	11.02
일산서구		1,813	16,505	10.98
일산서구	송산동	384	3,496	10.98
덕양구	화정1동	157	1,457	10.78
일산동구	백석1동	132	1,233	10.71
일산동구	풍산동	239	2,323	10.29
일산서구	주엽2동	132	1,570	8.41
일산동구	마두2동	88	1,161	7.58
덕양구	창릉동	110	1,507	7.30
덕양구	효자동	66	1,200	5.50
덕양구	원신동	107	2,087	5.13
일산서구	일산3동	128	2,563	4.99
일산동구	식사동	132	2,949	4.48
덕양구	삼송동	69	2,536	2.72
덕양구	대덕동*	0	47	0.00
일산동구	장항1동*	0	893	0.00

〈주〉 *대덕동과 장항1동은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동에 돌봄기관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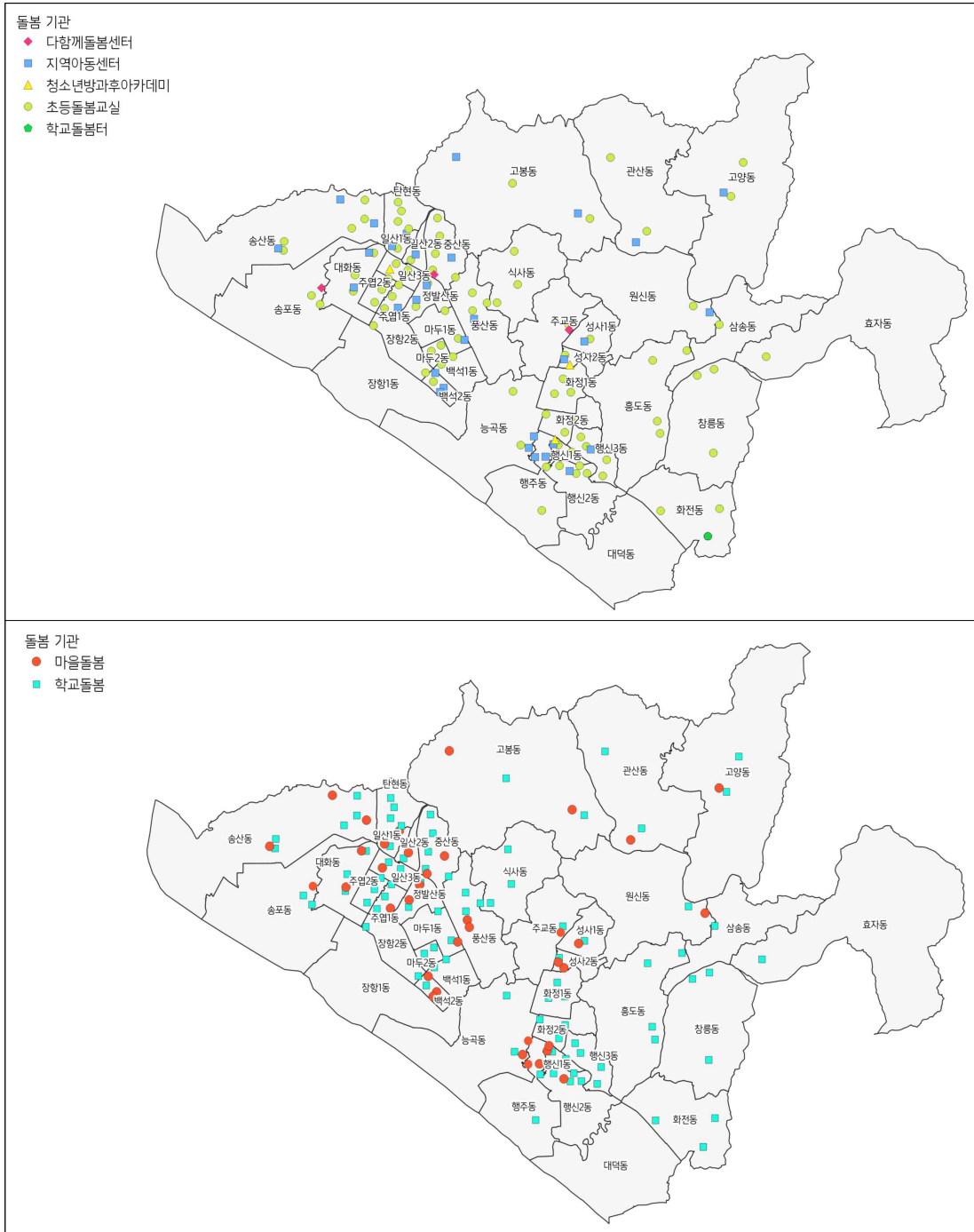
고양시의 초등아동 인구 대비 공급률(11.65%)보다 낮은 공급률의 행정동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아동의 인구가 2,000명 이상이라는 점이다. 고양시의 아동돌봄 공급이 낮은 상황으로 아동 인구가 많으면 공급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송산동, 일산3동, 풍산동, 원신동은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아동돌봄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마을돌봄 인프라가 없어 돌봄 공급 확충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 있다. 주엽2동, 마두2동, 백석1동, 화정1동, 창릉동, 효자동, 식사동, 삼송동은 학교돌봄 인프라만 있고 마을돌봄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다. 즉 마을돌봄이 없어 돌봄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돌봄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돌봄 기관이 절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있다. 대덕동과 장항1동은 해당동에 돌봄 기관이 없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인근의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생활 근거리에 돌봄 기관이 없는 아동도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림 3-3] 고양시 돌봄 기관별 분포



[표 3-14] 고양시 행정동별 돌봄 기관과 정원

구	동	구분	시설명	정원	구	동	구분	시설명	정원
일산 서구	대 화 동	지역아동센터	다메섹지역아동센터	26	덕 양 구	고 양 동	지역아동센터	늘푸른교실지역아동센터	49
		지역아동센터	실가지역아동센터	29			초등돌봄교실	고양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성지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목암초등학교	88
		초등돌봄교실	장성초등학교	44				합	203
		초등돌봄교실	장춘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고양관산초등학교	66
일산 서구	송 산 동		합	209	덕 양 구	관 산 동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36
		초등돌봄교실	가좌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내유초등학교	88
		지역아동센터	사랑샘지역아동센터	35				합	190
		초등돌봄교실	덕이초등학교	44			지역아동센터	가나인지역아동센터	48
		초등돌봄교실	백송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능곡초등학교	66
일산 서구	송 산 동	초등돌봄교실	송포초등학교	44	덕 양 구	능 곡 동	초등돌봄교실	대곡초등학교	44
		지역아동센터	한울타리지역아동센터	19			지역아동센터	푸른학교반디교실지역아동센터	29
		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19				합	187
		초등돌봄교실	한산초등학교	91			초등돌봄교실	고양오금초등학교	69
			합	384			초등돌봄교실	삼송초등학교	88
일산 서구	송 포 동	초등돌봄교실	고양한내초등학교	69	덕 양 구	삼 송 동	초등돌봄교실	원흥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대화초등학교	44				합	201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0			초등돌봄교실	성사초등학교	88
			합	153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역아동센터	29
			합	153				합	117
일산 서구	일산 1동	지역아동센터	아가씨21지역아동센터	35	덕 양 구	성사 2동	지역아동센터	글로벌지역아동센터	40
		지역아동센터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3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성사청소년문화의집	40
		초등돌봄교실	한뫼초등학교	91			초등돌봄교실	성라초등학교	91
			합	160				합	171
일산 서구	일산 2동	지역아동센터	일산지역아동센터	29	덕 양 구	원 신 동	지역아동센터	삼송지역아동센터	19
		초등돌봄교실	일산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신원초등학교	88
			합	73				합	107
일산 서구	일산 3동	초등돌봄교실	고양신일초등학교	44	덕 양 구	주 교 동	다함께돌봄센터	원당다함께돌봄센터	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40			초등돌봄교실	원당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신촌초등학교	44				합	86
			합	128			초등돌봄교실	고양동산초등학교	44
일산 서구	주엽 1동	초등돌봄교실	강선초등학교	66	덕 양 구	창 림 동	초등돌봄교실	용두초등학교	22
		초등돌봄교실	문화초등학교	47			초등돌봄교실	창릉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주엽초등학교	44				합	110
		지역아동센터	강선지역아동센터	25			지역아동센터	여울림지역아동센터	29
			합	182			초등돌봄교실	신능초등학교	44
일산 서구	주엽 2동	초등돌봄교실	한수초등학교	44	덕 양 구	행신 1동	초등돌봄교실	행신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문촌초등학교	44				합	117
		초등돌봄교실	오마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고양용현초등학교	44
			합	132			지역아동센터	반석지역아동센터	29
일산 서구	탄 현 동	초등돌봄교실	상탄초등학교	66	덕 양 구	행신 2동	초등돌봄교실	무원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현산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소만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호곡초등학교	91			초등돌봄교실	행남초등학교	94
		초등돌봄교실	황룡초등학교	169				합	255
			합	392					

구	동	구분	시설명	정원	구	동	구분	시설명	정원
일산 동구	고 봉 동	지역아동센터	맑은샘지역아동센터	29	덕 양 구	행신 3동	초등돌봄교실	가람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벽제초등학교	44			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40
		초등돌봄교실	성석초등학교	22			초등돌봄교실	서정초등학교	44
		지역아동센터	한사랑푸른지역아동센터	19			초등돌봄교실	성신초등학교	69
		합	114	초등돌봄교실			아람초등학교	119	
일산 동구	마두 1동	초등돌봄교실	냉천초등학교	94	덕 양 구	행 주 동	합	316	
		초등돌봄교실	백마초등학교	94			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29
		지역아동센터	아가페지역아동센터	29			지역아동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29
		합	217	초등돌봄교실			토당초등학교	44	
일산 동구	마두 2동	초등돌봄교실	낙민초등학교	44	덕 양 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토당청소년수련관	40
		초등돌봄교실	정발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행주초등학교	72
		합	88	합			214		
일산 동구	백석 1동	초등돌봄교실	고양백석초등학교	66	덕 양 구	화 전 동	초등돌봄교실	덕은초등학교	22
		초등돌봄교실	금계초등학교	66			학교돌봄터	항동숲내초등학교	66
일산 동구	백석 2동	합	132	덕 양 구	화정 1동	초등돌봄교실	항동숲내초등학교	94	
		지역아동센터	동넉지역아동센터			40	초등돌봄교실	항동초등학교	69
		초등돌봄교실	백산초등학교			44	합	251	
		지역아동센터	신성지역아동센터			19	초등돌봄교실	고양화수초등학교	66
		지역아동센터	푸른우리지역아동센터			29	초등돌봄교실	용정초등학교	22
일산 동구	식 사 동	합	132	덕 양 구	화정2 동	초등돌봄교실	화중초등학교	69	
		초등돌봄교실	양일초등학교			44	합	157	
		초등돌봄교실	원중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고양화정초등학교	94
		초등돌봄교실	일산은행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백양초등학교	44
일산 동구	장항 2동	합	132	덕 양 구	효 자 동	초등돌봄교실	지도초등학교	116	
		초등돌봄교실	한류초등학교			94	합	254	
		초등돌봄교실	호수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지축초등학교	66
일산 동구	정발 산동	합	138	덕 양 구	흥 도 동	초등돌봄교실	지축초등학교	66	
		지역아동센터	새꿈터지역아동센터			24	합	66	
		지역아동센터	정발산성지역아동센터			29	초등돌봄교실	도래울초등학교	88
		초등돌봄교실	율동초등학교			69	초등돌봄교실	흥도초등학교	116
		초등돌봄교실	저동초등학교			44	합	204	
일산 동구	중 산 동	합	166						
		초등돌봄교실	고봉초등학교						44
		지역아동센터	밀알지역아동센터						19
		초등돌봄교실	모당초등학교						69
		초등돌봄교실	안곡초등학교						44
		다함께돌봄센터	중산다함께돌봄센터						40
		초등돌봄교실	중산초등학교						66
		초등돌봄교실	하늘초등학교						44
합	326								
일산 동구	풍 산 동	지역아동센터	동지지역아동센터						31
		초등돌봄교실	다솜초등학교						69
		지역아동센터	주향지역아동센터						29
		초등돌봄교실	풍동초등학교						44
		초등돌봄교실	풍산초등학교						66
		합	239						

제3절 요약과 시사점

1. 고양시 아동돌봄 현황 분석

1) 고양시 아동 인구 현황

고양시 만 6~11세 인구는 57,551명으로 시 전체 인구 중 5.3%(2022년 3월 기준)이며 수원, 성남시보다는 1만 명 정도 더 많으며,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는 수원시보다 약 2% 더 많고, 성남시와는 비슷하다. 고양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인구는 2008년 83,145명(8.96%), 2014년 6628명(6.08%), 2022년 53,551명(5.33%)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고양시 아동돌봄 전달체계와 인력 현황

고양시 아동돌봄은 주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과 드림스타트팀(아동복지교사 지원), 청소년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수행한다. 여성가족과 다문화지원팀(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아동돌봄공동체 사업), 도서관센터(아이돌봄 작은도서관), 교육청(초등돌봄교실)에서도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아동돌봄 사업 운영체계가 파편화되어 있다. 게다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시청과 교육청이 돌봄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힘든 상황이다. 고양시는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이 주요 아동돌봄사업을 담당하는데, 전담인력은 3명이다. 즉, 고양시에는 아동돌봄 전담팀이 없고 전담인력이 적어 통합적인 아동돌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고양시 아동돌봄 사업 현황

고양시 아동돌봄은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이 88개교에서 242개실이 운영 중이

며 4,840명이 이용하고 있다. 학교돌봄터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향동숲내초등학교 한 곳에서 3개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돌봄 중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기준 총 32개소(덕양구 12, 일산동구 11, 일산서구 9개소)에 종사자 80명, 돌봄 교사 32명, 특기적성강사 9명이 재직한다. 법인 운영이 13개소(사회복지 2, 종교 2, 기타 9개소), 개인 운영이 19개소이며, 그중 월세 운영이 13개소나 되어 운영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일반아동을 정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일반아동은 14.6%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고 총 이용 인원은 100명이다. 경기도내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수원시(11개소), 성남시(23개소), 용인시(11개소)에 비해 고양시의 다함께돌봄센터 수가 적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보다는 일반아동 비율이 높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2021년 기준 전담인력은 10명, 아이돌보미는 309명이다. 영아종일제를 제외하고 시간제돌봄만 살펴보면 2021년에 실이용 가구는 969가구, 실이용 아동은 1,632명이다. 고양시 3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돌봄공동체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 고양시 아동돌봄 수요·공급 분석

1)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2019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 분석 결과 수요는 최소 24.8%(돌봄 필요 응답 비율을 전체 초등학교생 인구에 적용)에서 최대 60.6%(맞벌이, 한부모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추정되었다. 고양시 초등아동 돌봄 공급률은 9.1%로 최소 비율을 적용했을 때 고양시 초등생의 15.7%(8,353명)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공적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다만 2021년, 2022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경우 고양시 응답률이 매우 감소했고, 표본 추출 방식이 아니므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고양시 행정동별 초등인구 대비 아동돌봄 공급

2022년 초등인구 대비 행정동별 아동돌봄 공급(아동돌봄 기관의 정원 합)을 볼 때 공급률은 11.65%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평균 미만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덕양구 6개동, 일산동구 5개동, 일산서구 3개동이며, 공급률이 0~5% 미만인 동은 5개동(대덕동, 장항1동, 삼송동, 식사동, 일산3동)이다. 아동 인구가 2,000명 이상으로 마을돌봄과 학교돌봄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넘어선 경우는 송산동, 일산3동, 풍산동, 원신동으로 나타났다. 학교돌봄 인프라만 있고 마을돌봄 인프라가 없는 경우는 주엽2동, 마두2동, 백석1동, 화정1동, 창릉동, 효자동, 식사동, 삼송동으로 나타났다. 돌봄 기관이 전무한 경우는 장항1동, 대덕동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등인구 대비 아동돌봄 공급이 부족한데, 지역 간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고른 지역 안배를 통한 돌봄 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제 4 장

고양시 아동돌봄 실태 분석

제1절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
만족도와 욕구 분석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
만족도와 욕구 분석

제3절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자 FGI와
자문회의 분석

제4절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
도출

제절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 만족도와 욕구 분석

1. 분석개요

1) 분석 목적

아동돌봄 활성화 및 모델 개발에 있어 돌봄의 당사자인 아동의 만족도와 욕구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동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서비스 만족도와 돌봄 관련 욕구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분석 대상과 방법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와 동일하게 여기에서 돌봄 기관이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말한다.

분석 대상은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총 240명이 참여했다.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문조사원 또는 돌봄교사가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분석내용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아동의 만족도 및 욕구에 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아동돌봄 이용 아동의 분석내용

구분	분석내용
돌봄 기관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아동 자기결정 · 등하원, 시간 등 이용 경험의 만족도 ·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 · 이용에 따른 느낌 · 계속 이용 여부와 이유 · 돌봄 기관의 유용성 · 돌봄 기관의 장점

구분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기관에 바라는 점 · 사교육 이용 여부와 병행 시 도움 정도
돌봄 관련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교 후 지내고 싶은 장소와 희망 이용 시간 · 돌봄 기관의 다른 아동에 대한 만족도 · 선호하는 돌봄 방식 · 선호하는 식사 방식 ·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 돌봄 기관 이용 의사
돌봄공백과 행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중 돌봄공백의 시간 · 행복감

2. 분석 결과

1) 일반적인 사항

설문응답자는 남아 50.4%, 여아 49.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26명, 2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나머지 학년들은 50여 명 내외이다. 인구가 많은 덕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42.5%로 가장 많고, 일산서구 30.8%, 일산동구 26.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이 41.3%로 가장 많고,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6.3%~18.3%였으며, 학교의 협조 어려움으로 인해 초등돌봄교실은 7.5%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표 4-2] 아동의 일반적인 사항

		사례 수	%			사례 수	%
■ 전체 ■		(240)	100.0	거주지역	일산서구	(74)	30.8
성별	남성	(121)	50.4		일산동구	(64)	26.7
	여성	(119)	49.6		덕양구	(102)	42.5
학년	1학년	(48)	20.0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7.5
	2학년	(52)	21.7		학교돌봄터	(39)	16.3
	3학년	(26)	10.8		다함께돌봄센터	(44)	18.3
	4학년	(29)	12.1		지역아동센터	(99)	41.3
	5학년	(40)	16.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16.7
	6학년	(45)	18.8				

2) 돌봄 기관 이용 경험

(1)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자기결정 - 아동 27.1%는 돌봄이용 전 의사 확인 기회가 없었음

돌봄 기관을 다니기 전에 부모님이 기관 설명해 준 경우는 전체의 78.3%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이 86.4%로 가장 많이 설명을 들었고,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61.1%가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해 설명을 들은 아동이 가장 적었다.

돌봄 기관을 다니기 전에 부모님이 기관을 다니고 싶은지 아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는 전체의 72.9%였다. 3~4학년 아동이 가장 경험이 많았으며 1학년은 45.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의 의사 확인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고 학교돌봄터가 41%로 가장 적었다.

[표 4-3]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자기결정

			사례 수	예(%)	아니오(%)
돌봄 기관 이용 전에 설명을 들었는지	■ 전체 ■		(240)	78.3	21.7
	학년	1학년	(48)	72.9	27.1
		2학년	(52)	76.9	23.1
		3학년	(26)	84.6	15.4
		4학년	(29)	79.3	20.7
		5학년	(40)	82.5	17.5
		6학년	(45)	77.8	22.2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61.1	38.9
		학교돌봄터	(39)	74.4	25.6
		다함께돌봄센터	(44)	86.4	13.6
		지역아동센터	(99)	76.8	23.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85.0	15.0
돌봄 기관 이용에 대한 의 사 확인 여부	■ 전체 ■		(240)	72.9	27.1
	학년	1학년	(48)	45.8	54.2
		2학년	(52)	71.2	28.8
		3학년	(26)	88.5	11.5
		4학년	(29)	86.2	13.8
		5학년	(40)	80.0	20.0
		6학년	(45)	80.0	20.0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61.1	38.9
		학교돌봄터	(39)	41.0	59.0
		다함께돌봄센터	(44)	81.8	18.2
		지역아동센터	(99)	78.8	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85.0	15.0

돌봄 기관 이용에 대해 아동은 평균 3.97점 정도로 찬성했는데, 찬성함(찬성함+매우 찬성함)은 66.7%, 반대함(반대함+매우 반대함)은 14.6%, 보통은 28.8%로 나타났다. 전 학년 중 5학년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기관 중 다함께돌봄센터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였다. 반대의 경우, 전 학년 중 5학년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관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반대가 7.5%로 가장 많았다. 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찬성과 반대가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기관 이용 반대사유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가 45.5%로 가장 많았고, ‘기관의 친구들이 많음에 들지 않아서’가 18.2%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 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관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귀찮아서’, ‘학원이 많아서’ 등의 의견도 있었다.

[표 4-4]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 찬반

(단위: 점)

		사례 수	반대함	보통	찬성함	5점 평균
■ 전체 ■		(240)	4.6	28.8	66.7	3.97
학년	1학년	(48)	4.2	29.2	66.7	4.06
	2학년	(52)	1.9	34.6	63.5	3.94
	3학년	(26)	3.8	30.8	65.4	3.81
	4학년	(29)	3.4	17.2	79.3	4.21
	5학년	(40)	10.0	27.5	62.5	3.83
	6학년	(45)	4.4	28.9	66.7	3.98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6	38.9	55.6	3.83
	학교돌봄터	(39)	2.6	43.6	53.8	3.87
	다함께돌봄센터	(44)	6.8	18.2	75.0	4.05
	지역아동센터	(99)	3.0	29.3	67.7	3.9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7.5	20.0	72.5	4.03
돌봄 기관 이용 반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45.5%) · 기관의 친구들이 많음에 들지 않아서(18.2%) ·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서(9.1%) · 귀찮아서(9.1%) · 학원이 많아서(9.1%) · 다니기 싫어서(9.1%) 				

(2) 등하원, 시간 등 이용 경험의 만족도 - 안전함 74.6%, 이용 시간 보통 66.7%

돌봄 기관 등하원 시 ‘안전하지 않다(매우 안전하지 않음+안전하지 않음)’가 전체의 2.1%, ‘보통’이 23.3%, ‘안전함(매우 안전함+안전함)’이 74.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15점 정도로 안전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 아동이 7.5%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기관의 평균 이용 시간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66.7%로 가장 많았고 ‘깊(깊+너무 깊)’ 20.4%, ‘짧음(너무 짧음+ 짧음)’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와 학교돌봄터(28.2%)가 이용 시간이 길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5]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정도와 평균 이용 시간

			사례 수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함	5점 평균
평 하 원 안 전 정 도	■ 전체 ■		(240)	2.1	23.3	74.6	4.15
	학년	1학년	(48)	0.0	16.7	83.3	4.33
		2학년	(52)	1.9	26.9	71.2	4.17
		3학년	(26)	3.8	19.2	76.9	4.19
		4학년	(29)	3.4	20.7	75.9	4.21
		5학년	(40)	5.0	22.5	72.5	4.05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0.0	22.2	77.8	4.33
		학교돌봄터	(39)	0.0	20.5	79.5	4.31
		다함께돌봄센터	(44)	2.3	25.0	72.7	4.14
		지역아동센터	(99)	1.0	21.2	77.8	4.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7.5	30.0	62.5	3.93
평 균 이 용 시 간	■ 전체 ■		(240)	12.9	66.7	20.4	3.10
	학년	1학년	(48)	16.7	62.5	20.8	3.08
		2학년	(52)	17.3	67.3	15.4	3.04
		3학년	(26)	11.5	65.4	23.1	3.15
		4학년	(29)	6.9	72.4	20.7	3.14
		5학년	(40)	10.0	60.0	30.0	3.23
		6학년	(45)	11.1	73.3	15.6	3.02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11.1	83.3	5.6	2.94
		학교돌봄터	(39)	15.4	56.4	28.2	3.21
		다함께돌봄센터	(44)	18.2	68.2	13.6	2.95
		지역아동센터	(99)	13.1	69.7	17.2	3.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5.0	60.0	35.0	3.30

(3)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

① 접근성 - 집에서의 접근성 3.88점, 안전한 등·하원 4.24점

집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8점이며, 전 학년 중 1학년이 4.23점으로 가장 높았고, 6학년이 3.47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 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4.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3.35점으로 가장 낮았다.

등·하원의 안전함에 대한 만족도는 4.2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2학년 경우 만족도가 각각 4.31점, 4.2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② 시설 - 학교돌봄터: 충분한 놀이 공간 및 교재 등에서 낮은 만족도

충분한 놀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5학년이 3.98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이 4.3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학교 건물을 쓰는 학교돌봄터의 만족도가 4.05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재, 장난감 등이 충분한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1학년의 만족도가 4.02점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 중 학교돌봄터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3.87점으로 다른 기관이 4점을 넘긴 것과 비교된다.

기관이 안전하고 편안한지에 대해 4.31점의 만족도로 높게 나타났다. 전 학년 중 4학년의 만족도가 4.48점으로 가장 높고, 1학년의 만족도가 4.19점으로 가장 낮았다.

③ 돌봄선생님 - 돌봄선생님의 돌봄과 친절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돌봄선생님이 충분히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4.4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세부 만족도 문항 중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였다. 3학년의 만족도가 4.62점으로 가장 높았다.

돌봄선생님이 친절한지에 대한 만족도는 4.54점으로 세부 만족도 문항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초등돌봄교실의 만족도는 4.72점인 반면 학교돌봄터의 만족도는 4.26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선생님이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0점으로 나타났다. 학년 중 3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3.96점), 기관 중 학교돌봄터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4점).

④ 서비스 - 급간식 4.16점, 병원 동행 3.63점(가장 낮음)

급간식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6점으로 높은 편이며 기관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4.48점으로 가장 높고, 학교돌봄터가 3.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아플 때 돌봄선생님의 병원 동행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63점으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④ 권리 - 의견 표현 만족도 4.12점, 의견 수용 만족도 4.18점

아동이 원하는 것을 돌봄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5점 만점에 4.12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이 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돌봄터가 3.82점으로 가장 낮았다.

돌봄선생님이 아동의 건의 사항을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8점으로 높게 나타난 편이다. 학년 중 1학년의 만족도가 4.0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⑤ 프로그램 -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높음(4.42점)

각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공부 지도 4.03점, 예체능 활동 4.27점, 체험활동 4.42점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공부 지도에 관해 학교돌봄터가 3.72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3.95점 순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체험활동 문항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⑥ 이용 전반 - 친구와의 사이좋음 만족도 4.20점

친구에게 기관을 추천할 정도의 만족감은 5점 만점에 4.03점이었다. 학년 중 1~2학년의 만족도가 각각 3.75점, 3.7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관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가 4.28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4.20점으로 높은 편이며 초등돌봄교실(4.28점), 지역아동센터(4.22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20점) 순으로 나타

났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더 건강해졌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3.84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낮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4.03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더 행복해졌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4.01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다함께돌봄센터가 3.8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6] 아동의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단위: 점)

		전체	학년						돌봄 기관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초등돌 봄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아 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례 수		(240)	(48)	(52)	(26)	(29)	(40)	(45)	(18)	(39)	(44)	(99)	(40)
접 근 성	집에서 가깝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음	3.88	4.23	3.98	3.96	4.21	3.53	3.47	4.22	3.97	4.39	3.78	3.35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	4.24	4.31	4.25	4.19	4.45	4.15	4.11	4.50	4.21	4.39	4.21	4.05
시 설	놀기에 공간이 충분함	4.15	4.15	4.25	4.19	4.10	3.98	4.22	4.39	4.05	4.25	4.12	4.13
	교재, 장난감 등이 충분함	4.23	4.02	4.42	4.50	4.34	4.18	4.04	4.72	3.87	4.39	4.29	4.03
	기관이 안전하고 편안함	4.31	4.19	4.21	4.35	4.48	4.38	4.36	4.50	4.05	4.25	4.35	4.43
돌 봄 선 생 님	돌봄선생님께서 충분히 돌봐주심	4.45	4.38	4.56	4.62	4.45	4.35	4.38	4.50	4.33	4.45	4.49	4.40
	돌봄선생님이 친절하심	4.54	4.44	4.63	4.50	4.69	4.50	4.49	4.72	4.26	4.61	4.56	4.60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줌	4.20	4.23	4.21	3.96	4.34	4.23	4.16	4.39	4.00	4.16	4.21	4.30
서 비 스	급 간식이 맛있게 잘 나옴	4.16	4.21	4.15	4.27	4.07	4.03	4.22	4.39	3.87	4.48	4.17	3.95
	아플 때 돌봄선생님이 병원에 같이 가심	3.63	3.44	3.90	3.73	3.41	3.55	3.69	4.50	3.00	4.41	3.54	3.25
권 리	원하는 것을 돌봄선생님 께 편하게 말할 수 있음	4.12	4.04	4.23	4.12	4.10	4.15	4.07	4.28	3.82	4.27	4.15	4.10
	돌봄선생님은 나의 건의 사항을 잘 받아들이심	4.18	4.08	4.19	4.27	4.17	4.23	4.16	4.28	3.87	4.25	4.20	4.28

		전체	학년						돌봄 기관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초등돌 봄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아 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 로 그 램	공부 지도에 만족함	4.03	4.00	3.98	4.19	4.28	3.80	4.04	4.28	3.72	4.16	4.07	3.95
	여체능 활동에 만족함	4.27	4.04	4.35	4.38	4.41	4.28	4.27	4.28	3.82	4.41	4.32	4.43
	체험활동에 만족함	4.42	4.15	4.50	4.50	4.69	4.40	4.40	4.17	3.82	4.61	4.54	4.60
이 용 전 반	기관을 친구들에게 추천 하고 싶음	4.03	3.75	3.79	4.23	4.45	3.98	4.24	3.83	3.41	4.07	4.18	4.28
	기관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냄	4.20	4.29	4.02	4.35	4.28	4.18	4.22	4.28	4.18	4.16	4.22	4.20
	기관에 다녀서 더 건강해짐	3.84	3.90	3.75	4.08	3.83	3.55	4.02	3.89	3.59	3.86	4.03	3.58
	기관에 다닌 이후로 더 행복해짐	4.01	4.00	4.00	4.00	4.14	3.70	4.22	4.06	4.03	3.80	4.17	3.80

㉞ 전반적 만족도 - 전체 4.26점,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이용하는 돌봄 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6점이었다. 학년별로 4학년의 만족도가 4.52점으로 가장 높고 5학년 만족도가 4.05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 만족도가 4.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돌봄교실 4.33점, 다함께돌봄센터 4.25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13점, 학교돌봄터 3.9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아동의 돌봄 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 전체 ■		(240)	1.3	19.6	79.2	4.26
학년	1학년	(48)	4.2	29.2	66.7	4.13
	2학년	(52)	0.0	19.2	80.8	4.37
	3학년	(26)	0.0	11.5	88.5	4.35
	4학년	(29)	0.0	6.9	93.1	4.52
	5학년	(40)	2.5	32.5	65.0	4.05
	6학년	(45)	0.0	11.1	88.9	4.27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0.0	22.2	77.8	4.33
	학교돌봄터	(39)	5.1	30.8	64.1	3.97
	다함께돌봄센터	(44)	0.0	25.0	75.0	4.25
	지역아동센터	(99)	0.0	11.1	88.9	4.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2.5	22.5	75.0	4.13

(4) 이용에 따른 느낌 - 대부분이 이용에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느낌

돌봄 기관을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지를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4.03점으로 나타났다. ‘자랑스러움(매우 자랑스러움+자랑스러움)’이 64.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 32.9%로 상당수가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한편 ‘자랑스럽지 않음(매우 자랑스럽지 않음+자랑스럽지 않음)’은 2.5%로 나타났다. 전 학년 중 4학년의 점수가 4.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과 5학년이 3.90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이 4.28점으로 가장 높고 학교돌봄터가 3.7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4-8]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에 관한 느낌

(단위: 점)

		사례 수	자랑스럽지 않음	보통	자랑스러움	5점 평균
■ 전체 ■		(240)	2.5	32.9	64.6	4.03
학년	1학년	(48)	4.2	43.8	52.1	3.90
	2학년	(52)	0.0	28.8	71.2	4.15
	3학년	(26)	7.7	30.8	61.5	4.00
	4학년	(29)	0.0	27.6	72.4	4.17
	5학년	(40)	5.0	30.0	65.0	3.90
	6학년	(45)	0.0	33.3	66.7	4.07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0.0	22.2	77.8	4.28
	학교돌봄터	(39)	2.6	53.8	43.6	3.72
	다함께돌봄센터	(44)	11.4	31.8	56.8	3.84
	지역아동센터	(99)	0.0	25.3	74.7	4.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0.0	37.5	62.5	3.95

(5) 계속 이용 여부와 이유 - 94.2%는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음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94.2%는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이용 의사가 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돌봄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가 64.3%로 가장 많았고, ‘재미가 없어서’가 14.3%였다. 그밖에 ‘중학교에 진학해서’, ‘돌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에서 너무 멀어서’ 등이 있다.

[표 4-9] 아동의 돌봄 기관 계속 이용 여부

		사례 수	예(%)	아니오(%)
■ 전체 ■		(240)	94.2	5.8
학년	1학년	(48)	91.7	8.3
	2학년	(52)	98.1	1.9
	3학년	(26)	92.3	7.7
	4학년	(29)	100.0	0.0
	5학년	(40)	92.5	7.5
	6학년	(45)	91.1	8.9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100.0	0.0
	학교돌봄터	(39)	92.3	7.7
	다함께돌봄센터	(44)	90.9	9.1
	지역아동센터	(99)	98.0	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87.5	12.5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64.3%) · 재미가 없어서(14.3%) · 중학교에 진학해서(7.1%) · 돌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7.1%) · 집에서 너무 멀어서(7.1%) 		

(6) 돌봄 기관의 유용성 - 모든 항목이 4점 이상

돌봄 기관이 주는 도움 중 ‘나의 생활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줌’이 5점 만점에 4.2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해줌’이 4.2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됨’은 4.09로 높은 편이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낮았다. 돌봄 기관의 유용성에 관한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용 아동은 돌봄 기관에서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아동이 생각하는 돌봄 기관의 유용성

(단위: 점)

	전체	학년						돌봄 기관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초등돌 봄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아 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례 수	(240)	(48)	(52)	(26)	(29)	(40)	(45)	(18)	(39)	(44)	(99)	(40)
집 밖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함	4.14	3.96	4.19	4.58	4.10	4.18	4.00	4.11	3.79	4.52	4.16	4.00
나의 생활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줌	4.22	4.31	4.52	4.35	4.28	3.83	4.02	4.72	4.28	4.25	4.17	4.03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줌	4.13	4.29	3.96	4.15	4.38	3.83	4.27	4.17	4.13	3.98	4.16	4.23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해줌	4.20	4.31	4.17	4.19	4.28	4.03	4.22	3.83	4.23	4.34	4.23	4.10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될	4.09	4.13	4.00	4.19	4.38	3.75	4.20	4.11	3.92	3.89	4.34	3.83

(7) 돌봄 기관의 장점과 돌봄 기관에 바라는 점 - 교우관계 중요, 쉬과 놀이에 대한 큰 욕구

돌봄 기관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많은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다’가 37.6%로 가장 높았고, ‘상급생이나 하급생을 만날 수 있다’ 등 교우관계와 관련된 응답이 43.4%로 나타나 아동에게 해당 부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간식이 맛있다’, ‘학습에 도움을 받는다’, ‘야외활동이 많다’, ‘스포츠, 신체 활동 등이 좋다’,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선생님이 친절하다’, ‘기관에 오면 재미있고 심심하지 않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돌봄 기관에 바라는 점으로 ‘여행, 체험활동, 야외활동이 많았으면 한다’가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부보다 쉬거나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가 10.7%, ‘놀거리가 많았으면 한다’가 4.2%, ‘실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가 5.3%였다. 아동은 대체로 쉬, 활동, 놀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가 2.5%, ‘밥이 맛있었으면 한다’가 1.3%로 급·간식 개선에 대한 바람도 나타났다. 한편, 줄넘기 공간, 컴퓨터실, 놀 수 있는 큰 방 등 공간에 대한 욕구도 있음을 확인했다.

‘기관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으면 한다’가 1.7%,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면 한다’가 1.3%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기관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

으면 한다'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2.5% 있었다.

[표 4-11] 아동이 생각하는 돌봄 기관의 장점과 바라는 점

돌봄 기관의 장점	
<p>없다 또는 모름(15.8%)</p> <p>많은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다(37.6%)</p> <p>친구와 대화하고 관계가 좋아진다(1.6%)</p> <p>상급생이나 하급생을 만날 수 있다(2.5%)</p> <p>친구들이 친절하다(1.7%)</p> <p>간식이 맛있다(5%)</p> <p>밥이 맛있다(2.9%)</p> <p>저녁을 해결할 수 있다(0.8%)</p> <p>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0.4%)</p> <p>예습, 복습이 가능해 학습에 도움을 받는다(6.7%)</p> <p>수업이 재미있다(2.1%)</p> <p>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다(1.7%)</p> <p>영어, 수학 과학 등 수업이 재미있다(2.1%)</p> <p>보드게임, 장난감 등 놀거리가 많다(3.7%)</p> <p>놀이공원, 여행 등 야외활동이 많다(8.4%)</p> <p>체험활동, 파티 등 평소 경험할 수 없던 활동을 한다(3.7%)</p> <p>주말 체험이 좋다(0.4%)</p>	<p>스포츠, 신체 활동 등이 좋다(4.6%)</p> <p>음악 활동이 재미있다(0.8%)</p> <p>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6.3%)</p> <p>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다(2.1%)</p> <p>실내 놀이터가 있다(0.8%)</p> <p>선생님이 친절하다(2.9%)</p> <p>선생님들과 놀 수 있다(0.8%)</p> <p>선생님이 많다(0.4%)</p> <p>선생님이 잘 돌봐주신다(0.8%)</p> <p>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0.4%)</p> <p>기관에 오면 재미있고 심심하지 않다(3.3%)</p> <p>집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된다(1.3%)</p> <p>소심한 성격이 개선된다(0.4%)</p> <p>건강해진다(0.4%)</p> <p>수업이 빨리 끝난다(0.4%)</p> <p>집에 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갈 수 있다(0.4%)</p> <p>공간이 넓다(0.4%)</p> <p>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0.4%)</p>
돌봄 기관에 바라는 점	
<p>없다 또는 모름(45.8%)</p> <p>보통이다(0.8%)</p> <p>공부보다 쉬거나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10.7%)</p> <p>여행, 체험활동, 야외활동이 많았으면 한다(15%)</p> <p>신체 활동을 길게 많이 하고 싶다(1.6%)</p> <p>단체활동을 자주 했으면 한다(0.4%)</p> <p>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었으면 한다(2.5%)</p> <p>밥이 맛있었으면 한다(1.3%)</p> <p>영양가 있는 급식이었으면 한다(0.4%)</p> <p>밥 남길 때 이해해주었으면 한다(0.4%)</p> <p>놀거리가 많았으면 한다(4.2%)</p> <p>만화책과 책이 많았으면 한다(2.5%)</p> <p>피아노가 있었으면 한다(0.4%)</p> <p>미끄럼틀이 있었으면 한다(0.4%)</p> <p>기관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으면 한다(1.7%)</p> <p>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면 한다(1.3%)</p> <p>등원하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싶다(0.4%)</p>	<p>동물을 키웠으면 한다(1.7%)</p> <p>또래가 적어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었으면 한다(1.2%)</p> <p>친구들의 무례한 행위에 대처가 필요하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다(1.2%)</p> <p>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었으면 한다(0.4%)</p> <p>재미있었으면 한다(0.8%)</p> <p>공부가 재미없다(0.8%)</p> <p>영어 등 배우는 게 많았으면 한다(0.8%)</p> <p>실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5.3%)</p> <p>게임을 하고 싶다(0.8%)</p> <p>플루트 1주일에 2번 했으면 한다(0.4%)</p> <p>앞으로도 계속 잘해주었으면 한다(0.8%)</p> <p>선생님이 안 무섭게 더 잘해주면 좋겠다(0.8%)</p> <p>줄넘기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0.4%)</p> <p>방이 있었으면 한다(0.4%)</p> <p>놀 수 있는 큰 방이 있었으면 한다(0.4%)</p> <p>컴퓨터실이 있었으면 한다(0.4%)</p>

(7) 사교육 이용 여부와 병행 시 도움 정도

현재 학원,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아동은 67.1%로 2학년이 82.7%로 가장 많았고, 6학년이 51.1%로 가장 적었다.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 아동의 94.4%,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 86.4%, 학교돌봄터 아동의 79.5%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는 각각 60%, 51.5%로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공부나 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전체 아동 중 5.6%만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전혀 도움 안 됨+도움 안 됨).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17.4%,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아동은 77%(매우 도움 됨+도움 됨)로 많다.

[표 4-12] 아동의 사교육 이용 여부와 병행 시 도움 정도

			사례 수	예(%)	아니오(%)	
■ 전체 ■			(240)	67.1	32.9	
현재 사교육 이용 여부	학년	1학년	(48)	72.9	27.1	
		2학년	(52)	82.7	17.3	
		3학년	(26)	61.5	38.5	
		4학년	(29)	72.4	27.6	
		5학년	(40)	57.5	42.5	
		6학년	(45)	51.1	48.9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94.4	5.6	
		학교돌봄터	(39)	79.5	20.5	
		다함께돌봄센터	(44)	86.4	13.6	
		지역아동센터	(99)	51.5	48.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0.0	40.0	
			사례 수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 전체 ■			(161)	5.6	17.4	77.0
사교육과 돌봄 기관을 병행하는 것이 공부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학년	1학년	(35)	8.6	5.7	85.7
		2학년	(43)	4.7	16.3	79.1
		3학년	(16)	6.3	18.8	75.0
		4학년	(21)	0.0	23.8	76.2
		5학년	(23)	4.3	39.1	56.5
		6학년	(23)	8.7	8.7	82.6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7)	0.0	23.5	76.5
		학교돌봄터	(31)	3.2	16.1	80.6
		다함께돌봄센터	(38)	10.5	7.9	81.6
		지역아동센터	(51)	2.0	21.6	76.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4)	12.5	20.8	66.7

3) 돌봄 관련 선호

(1) 하교 후 지내고 싶은 장소와 희망 이용 시간 - 집(45.8%), 1~2시간 미만(29.2%)

하교 이후 집에서 머무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45.8%), 이외에 돌봄 기관(30.8%), 상관없음(17.9%), 학교(2.9%), 학원 등(2.5%)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돌봄 기관에 대한 선호(61.1%)가 집(33.3%)보다 더 높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은 집(62.5%)을 돌봄 기관(10%)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집에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표 4-13] 아동이 하교 후 지내고 싶은 장소

(단위: %)

		사례 수	집	돌봄 기관	상관없음	학교	학원 등
■ 전체 ■		(240)	45.8	30.8	17.9	2.9	2.5
학년	1학년	(48)	45.8	27.1	16.7	4.2	6.3
	2학년	(52)	48.1	38.5	11.5	1.9	0.0
	3학년	(26)	42.3	34.6	19.2	3.8	0.0
	4학년	(29)	41.4	31.0	20.7	3.4	3.4
	5학년	(40)	50.0	25.0	22.5	0.0	2.5
	6학년	(45)	44.4	28.9	20.0	4.4	2.2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33.3	61.1	0.0	5.6	0.0
	학교돌봄터	(39)	53.8	15.4	20.5	5.1	5.1
	다함께돌봄센터	(44)	40.9	36.4	18.2	2.3	2.3
	지역아동센터	(99)	40.4	37.4	17.2	2.0	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2.5	10.0	25.0	2.5	0.0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하루에 돌봄 기관을 1~2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고(29.2%), 2~3시간 미만(23.3%), 3~4시간 미만(19.6%) 순으로 나타났다. 4~5시간 미만은 11.3%, 5시간 이상은 7.1%이었으며, 1시간 미만은 9.6%였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희망 이용 시간으로 하루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고(33.3%),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은 그보다 짧은, 하루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을 이용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25.2%).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모두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이용의 응답이 각각 29.5%, 28.3%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역시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을 가장 선호했는데(42.5%), 그 선호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높았다.

[표 4-14] 아동의 희망 이용 시간

(단위: %)

		사례 수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 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 3시간 미만	하루 3시간 ~ 4시간 미만	하루 4시간 ~ 5시간 미만	하루 5시간 이상
■ 전체 ■		(240)	9.6	29.2	23.3	19.6	11.3	7.1
학년	1학년	(48)	14.6	12.5	27.1	16.7	16.7	12.5
	2학년	(52)	9.6	28.8	19.2	21.2	13.5	7.7
	3학년	(26)	7.7	23.1	34.6	19.2	7.7	7.7
	4학년	(29)	0.0	37.9	27.6	20.7	6.9	6.9
	5학년	(40)	10.0	37.5	15.0	22.5	12.5	2.5
	6학년	(45)	11.1	37.8	22.2	17.8	6.7	4.4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6	22.2	16.7	33.3	16.7	5.6
	학교돌봄터	(39)	15.4	20.5	28.2	15.4	10.3	10.3
	다함께돌봄센터	(44)	11.4	29.5	18.2	18.2	13.6	9.1
	지역아동센터	(99)	6.1	28.3	27.3	20.2	13.1	5.1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0)	12.5	42.5	17.5	17.5	2.5	7.5

(2) 돌봄 기관의 다른 아동에 대한 만족도 - 동급생 > 상급생 > 하급생

같은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상급생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6점, 동급생 만족도는 4.16점, 하급생 만족도는 3.79점으로 나타났다. 즉, 동급생, 상급생, 하급생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이 결과는 학년, 기관유형별로 동일했다.

[표 4-15] 아동의 다른 이용 아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사례 수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
■ 전체 ■		(240)	3.86	4.16	3.79
학년	1학년	(48)	3.69	4.21	3.40
	2학년	(52)	4.15	4.29	3.98
	3학년	(26)	3.69	4.38	3.85
	4학년	(29)	3.90	4.38	4.10
	5학년	(40)	3.78	3.90	3.63
	6학년	(45)	3.84	3.93	3.89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4.39	4.56	4.39
	학교돌봄터	(39)	3.44	4.15	3.15
	다함께돌봄센터	(44)	4.00	4.34	3.80
	지역아동센터	(99)	3.92	4.08	3.8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3.73	4.00	3.88

(3) 선호하는 돌봄 방식과 식사 방식 - 현재 이용하는 돌봄 방식을 선호

아동은 돌봄 기관의 마을돌봄을 가장 선호했고(44.2%), 학교돌봄(25.8%), 집에 돌봄 교사가 오는 돌봄(16.7%), 가족 돌봄(6.7%), 보호자 포함 공동체 돌봄(5.8%), 동네 어른을 통한 공동체 돌봄(0.8%) 순으로 나타났다.

1~2학년은 학교돌봄을 가장 선호한 반면, 3~6학년은 돌봄 기관의 마을돌봄을 가장 선호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이용 아동의 경우, 학교돌봄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60% 이상), 집에 돌봄 교사가 오는 돌봄을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 아동은 돌봄 기관의 마을돌봄을 가장 선호했다. 즉, 마을돌봄 이용 아동은 마을돌봄을, 학교돌봄 이용 아동은 학교돌봄을 선호하는 것이다.

[표 4-16] 아동이 선호하는 돌봄 방식

(단위: %)

		사례 수	돌봄 기관의 마을돌봄	학교돌봄	가정 방문형	가족 돌봄	보호자 포함 공동체 돌봄	동네어른을 통한 공동체 돌봄
■ 전체 ■		(240)	44.2	25.8	16.7	6.7	5.8	0.8
학년	1학년	(48)	29.2	41.7	14.6	8.3	6.3	0.0
	2학년	(52)	34.6	38.5	21.2	1.9	3.8	0.0
	3학년	(26)	42.3	23.1	30.8	3.8	0.0	0.0
	4학년	(29)	62.1	6.9	24.1	3.4	0.0	3.4
	5학년	(40)	50.0	12.5	12.5	7.5	15.0	2.5
	6학년	(45)	55.6	20.0	4.4	13.3	6.7	0.0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6	66.7	27.8	0.0	0.0	0.0
	학교돌봄터	(39)	2.6	61.5	23.1	7.7	5.1	0.0
	다함께돌봄센터	(44)	52.3	15.9	15.9	9.1	6.8	0.0
	지역아동센터	(99)	69.7	10.1	13.1	3.0	3.0	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30.0	22.5	15.0	15.0	15.0	2.5

어른이 집에서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기 어렵다면, 끼니를 해결하고 싶은 장소는 편의점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도시락 28.3%, 아동전용식당 21.3%, 근처의 일반식당 7.9%, 돌봄 기관 2.5%, 마트 0.4%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은 초등돌봄교실이 55.6%로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가 24.2%로 가장 적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아동 전용 식당을 31.3%로 가장 선호했다.

[표 4-17] 아동이 끼나를 해결하고 싶은 장소

(단위: %)

		사례 수	편의점	도시락	아동 전용 식당	일반식당	집	돌봄 기관	마트
■ 전체 ■		(240)	35.0	28.3	21.3	7.9	4.6	2.5	0.4
학년	1학년	(48)	31.3	35.4	16.7	10.4	4.2	0.0	2.1
	2학년	(52)	38.5	26.9	19.2	9.6	1.9	3.8	0.0
	3학년	(26)	34.6	42.3	7.7	3.8	3.8	7.7	0.0
	4학년	(29)	44.8	13.8	31.0	3.4	3.4	3.4	0.0
	5학년	(40)	45.0	17.5	25.0	7.5	5.0	0.0	0.0
	6학년	(45)	20.0	33.3	26.7	8.9	8.9	2.2	0.0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5.6	16.7	16.7	5.6	5.6	0.0	0.0
	학교돌봄터	(39)	41.0	35.9	15.4	5.1	2.6	0.0	0.0
	다함께 돌봄센터	(44)	45.5	29.5	9.1	9.1	4.5	0.0	2.3
	지역아동센터	(99)	24.2	26.3	31.3	8.1	4.0	6.1	0.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0)	35.0	30.0	17.5	10.0	7.5	0.0	0.0

(4)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 돌봄 기관 이용 의사 - 80%, 돌봄 이상의 기능 수행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어도 돌봄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아동은 전체의 80%로, 아동에게 돌봄 기관이 돌봄 기능뿐 아니라 교육 및 여가의 기능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학년 중 2학년이 94.2%로 이용 의사가 가장 높았고 3학년이 65.4%로 이용 의사가 가장 낮았다. 기관 중 초등돌봄교실이 94.4%로 가장 많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74.4%로 가장 적었다.

[표 4-18] 집에 돌봐줄 사람이 있을 때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 의사

		사례 수	예(%)	아니오(%)
■ 전체 ■		(240)	80.0	20.0
학년	1학년	(48)	72.9	27.1
	2학년	(52)	94.2	5.8
	3학년	(26)	65.4	34.6
	4학년	(29)	93.1	6.9
	5학년	(40)	72.5	27.5
	6학년	(45)	77.8	22.2

		사례 수	예(%)	아니오(%)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94.4	5.6
	학교돌봄터	(39)	74.4	25.6
	다함께돌봄센터	(44)	79.5	20.5
	지역아동센터	(99)	83.8	16.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70.0	30.0

4) 돌봄 공백과 행복감

(1) 하루 중 돌봄 공백의 시간

(하루 평균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 집에서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은 하루 1시간 미만이 50.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0.4%,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10.4%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어른 없이 혼자 지낸다는 아동이 5%나 되었으며, 그중 2학년의 3.8%가 여기에 해당했다. 1학년의 경우 하루 4시간 이상 혼자 있는 아동은 없었다.

[표 4-19] 아동의 하루 돌봄 공백 시간

(단위: %)

		사례 수	하루 1시간 미만	하루 1시간 ~ 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 3시간 미만	하루 3시간 ~ 4시간 미만	하루 4시간 ~ 5시간 미만	하루 5시간 이상
■ 전체 ■		(240)	50.8	20.4	10.4	7.9	5.4	5.0
학년	1학년	(48)	66.7	16.7	10.4	6.3	0.0	0.0
	2학년	(52)	57.7	21.2	5.8	5.8	5.8	3.8
	3학년	(26)	50.0	19.2	11.5	7.7	3.8	7.7
	4학년	(29)	37.9	24.1	10.3	6.9	13.8	6.9
	5학년	(40)	42.5	20.0	5.0	17.5	5.0	10.0
	6학년	(45)	42.2	22.2	20.0	4.4	6.7	4.4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5.6	33.3	5.6	0.0	5.6	0.0
	학교돌봄터	(39)	66.7	12.8	12.8	5.1	0.0	2.6
	다함께돌봄센터	(44)	63.6	25.0	2.3	4.5	4.5	0.0
	지역아동센터	(99)	35.4	19.2	15.2	15.2	8.1	7.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57.5	20.0	7.5	0.0	5.0	10.0

(2) 행복감

행복감을 0~10점으로 측정했을 때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평균은 7.8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학년 중 2학년이 8.81점을 가장 높았고 5학년이 6.80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관 중 학교돌봄터가 8.77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6.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3점 이하인 아동 전체의 5.8%이며,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의 경우 3점 이하가 20%라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4-20] 아동의 행복감

		사례 수	평균(점)
■ 전체 ■		(240)	7.85
학년	1학년	(48)	8.63
	2학년	(52)	8.81
	3학년	(26)	8.04
	4학년	(29)	7.07
	5학년	(40)	6.80
	6학년	(45)	7.27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8.72
	학교돌봄터	(39)	8.77
	다함께돌봄센터	(44)	8.16
	지역아동센터	(99)	7.6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65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 만족도와 욕구 분석

1. 분석개요

1) 분석 목적

아동돌봄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만족도와 욕구를 분석하여 고양시 아동돌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분석 대상과 방법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와 동일하게 여기에서 돌봄 기관이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말한다.

분석 대상은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 총 2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3) 분석내용

고양시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의 만족도 및 욕구에 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1] 아동돌봄 이용 보호자의 분석내용

구분	분석내용
돌봄 기관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하는 돌봄 기관과 그 이유 · 이용 기간, 이용 횟수, 학기 및 방학 때 이용 시간 ·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 · 등·하원(교) 방식과 이동 시간 · 급간식 이용 여부 및 이용료
돌봄 기관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 · 앞으로 이용할 예정 기간 · 돌봄 기관의 유용성 · 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

구분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아동돌봄서비스 · 사교육 이용 여부와 그 이유, 사교육 개수와 비용 · 사교육과 아동돌봄서비스의 병행 어려움 및 그 이유 · 학기 및 방학 때 시간대별 아동의 돌봄 형태 · 아동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아동돌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돌봄 경험 및 어려움 정도 · 긴급돌봄 대처 방안 · 부담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 돌봄 공백으로 인한 병원 이용의 어려움 경험 여부
돌봄 관련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전용 식당 이용 의향과 그 이유 · 선호하는 돌봄 방식과 그 이유 · 선호하는 돌봄 장소
고양시 아동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고양시의 지원 ·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라는 점
행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행복감 ·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2. 분석 결과

1) 일반적인 사항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 총 240명 중 남성이 18.8%, 여성이 81.3%로 여성 비율이 높다. 이들 중 79.2%가 어머니, 17.9%가 아버지, 2.5%가 조부모, 0.4%가 친인척이었다. 보호자의 연령은 20대가 0.4%, 30대 31.7%, 40대 64.6%, 50대 2.9%, 60대 이상 0.4%, 40대가 가장 많았다. 인구가 많은 덕양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2.5%로 가장 많았고, 일산서구 30.8%, 일산동구 26.7%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학력은 대졸이 63.3%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26.3%, 대학원 이상이 10.4%였다. 동거가족 수가 4명인 경우는 46.3%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이 24.6%, 3명이 23.3%, 2명 이하가 5.8%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65%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 다문화가정은 10%, 장애 및 건강보호학생 가정은 1.7%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49.6%로 가장 많았고, 3명인 경우가 25%, 외동인 경우가 22.5%, 4명인 경우가 2.9%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0~40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400~600

만원 미만 31.7%, 600~800만원 미만 14.2%, 200만원 미만 9.2%, 800만원 이상은 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 보호자의 일반적인 사항

		사례 수	%			사례 수	%
■ 전체 ■		(240)	100.0				
성별	남성	(45)	18.8	동거 가족 수	2명 이하	(14)	5.8
	여성	(195)	81.3		3명	(56)	23.3
연령	20대	(1)	0.4		4명	(111)	46.3
	30대	(76)	31.7		5명 이상	(59)	24.6
	40대	(155)	64.6	가족 특징	맞벌이 가구	(156)	65.0
	50대	(7)	2.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2)	5.0
	60대 이상	(1)	0.4		다문화가정	(24)	10.0
아동과 관계	어머니	(190)	79.2		장애 및 건강보호학생 가정	(4)	1.7
	아버지	(43)	17.9	자녀 수	해당 없음	(51)	21.3
	조부모	(6)	2.5		1명	(54)	22.5
	친인척	(1)	0.4		2명	(119)	49.6
거주 지역	일산서구	(74)	30.8		3명	(60)	25.0
	일산동구	(64)	26.7	가구 소득	4명	(7)	2.9
	덕양구	(102)	42.5		200만원 미만	(22)	9.2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7.5		200~400만원 미만	(89)	37.1
	학교돌봄터	(39)	16.3		400~600만원 미만	(76)	31.7
	다함께돌봄센터	(44)	18.3		600~800만원 미만	(34)	14.2
	지역아동센터	(99)	41.3		800만원 이상	(19)	7.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16.7	주거 형태	아파트	(190)	79.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3)	26.3		다세대 주택	(36)	15.0
	대졸	(152)	63.3		단독주택	(7)	2.9
	대학원 이상	(25)	10.4		연립주택	(7)	2.9

아동의 아버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중 40대가 71.7%로 가장 많고, 30대가 22.1%, 50대가 6.3%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동은 87.5%,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비동거하는 아동은 12.5%였다.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20.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의 12.5%였다.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아동은 모두 아버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66.2%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가 18.1%, 프리랜서 6.7%, 임시

일용근로자 3.3%로 나타났다. 넷째, 하루 아버지 근무시간은 평균 10.04시간이었다. 9~11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57.8%,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29.1%로 상당히 많은 아버지가 긴 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어머니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중 40대가 62.9%로 가장 많고 30대가 34.6%, 20대와 50대가 각각 1.3%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와 동거 중인 아동은 92.1%였고,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비동거 중인 아동은 7.9%로 아버지보다 동거율이 높았다. 어머니와 비동거 하는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1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의 7.5%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의 이용 아동은 모두 어머니와 동거 중이었다. 셋째,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중 상용근로자가 54.3%로 가장 많았고, 주부나 학생 등의 무직인 경우가 15.4%로 그다음이었다. 프리랜서 10.4%, 임시일용근로자 9.5% 순으로 아버지와 종사상 지위에서의 차이가 컸다. 넷째, 어머니는 하루 평균 8.77시간을 근무하며,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11.8%로, 아버지의 근무시간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보호자의 특성

(단위: %)

		아버지의 특성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연령	30대	22.1	0.0	23.1	29.5	25.3	15.0
	40대	71.7	100.0	69.2	65.9	68.7	75.0
	50대	6.3	0.0	7.7	4.5	6.1	10.0
동거 여부	동거 중	87.5	100.0	97.4	90.9	79.8	87.5
	비동거 (별거, 이혼, 사망 등)	12.5	0.0	2.6	9.1	20.2	12.5
	사례 수	(210)	(18)	(38)	(40)	(79)	(3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6.2	66.7	73.7	72.5	60.8	62.9
	자영업자	18.1	27.8	15.8	17.5	16.5	20.0
	프리랜서	6.7	5.6	2.6	7.5	7.6	8.6
	임시일용근로자	3.3	0.0	0.0	0.0	7.6	2.9
	고용주	3.3	0.0	2.6	2.5	5.1	2.9
	무직(주부, 학생 등)	1.9	0.0	2.6	0.0	2.5	2.9

	무급가족종사자	0.5	0.0	2.6	0.0	0.0	0.0
	사례 수	(206)	(18)	(37)	(40)	(77)	(34)
이용시간	8시간 이하	13.1	22.2	2.7	12.5	16.9	11.8
	9~11시간	57.8	61.1	56.8	67.5	51.9	58.8
	12~16시간	29.1	16.7	40.5	20.0	31.2	29.4
	평균:시간	10.04	9.44	10.95	9.45	9.99	10.21
어머니의 특성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연령	30대	34.6	0.0	0.0	0.0	3.0	0.0
	40대	62.9	33.3	51.3	36.4	32.3	22.5
	50대	1.3	66.7	48.7	63.6	62.6	75.0
동거여부	동거 중	92.1	100.0	100.0	95.5	85.9	92.5
	비동거 (별거, 이혼, 사망 등)	7.9	0.0	0.0	4.5	14.1	7.5
사례 수		(221)	(18)	(39)	(42)	(85)	(37)
종사상자의 위	상용근로자	54.3	72.2	74.4	59.5	48.2	32.4
	무직(주부, 학생 등)	15.4	0.0	5.1	19.0	16.5	27.0
	프리랜서	10.4	16.7	10.3	11.9	5.9	16.2
	임시일용근로자	9.5	0.0	0.0	2.4	18.8	10.8
	자영업자	8.6	11.1	7.7	7.1	8.2	10.8
	무급가족종사자	1.4	0.0	2.6	0.0	1.2	2.7
	고용주	0.5	0.0	0.0	0.0	1.2	0.0
사례 수		(187)	(18)	(37)	(34)	(71)	(27)
이용시간	8시간 이하	34.8	50.0	29.7	38.2	31.0	37.0
	9~11시간	53.5	44.4	54.1	55.9	57.7	44.4
	12~16시간	11.8	5.6	16.2	5.9	11.3	18.5
	평균:시간	8.77	8.44	9.19	8.44	8.9	8.48

2) 돌봄 기관 이용현황

(1) 이용하는 이유 - '학교 및 집과 가까워서' 57.9%, 위치가 중요

현재 이용하는 돌봄 기관을 선택한 이유 중 '학교 및 집과 가까워서'가 57.9%로 가장 많아 돌봄 기관의 위치가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이 믿음직스러워서' 38.3%, '급·간식 제공' 22.1%,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21.3%,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16.7%, '돌봄 교사의 자질과 인품이 좋아서' 15%, '시설이 깨끗하고 넓어서' 9.2%, '자녀가 원해서'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돌봄 센터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학교 및 집과 가까워서	57.9	72.2	71.8	77.3	50.5	35.0
기관이 믿음직스러워서	38.3	61.1	43.6	40.9	35.4	27.5
급간식을 제공해서	22.1	11.1	30.8	25.0	23.2	12.5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21.3	11.1	10.3	6.8	27.3	37.5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16.7	5.6	12.8	15.9	15.2	30.0
돌봄 교사의 자질과 인품이 좋아서	15.0	5.6	10.3	13.6	18.2	17.5
시설이 깨끗하고 넓어서	9.2	16.7	5.1	6.8	11.1	7.5
자녀가 원해서	6.7	0.0	2.6	2.3	6.1	20.0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3.8	0.0	10.3	4.5	3.0	0.0
다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2.5	5.6	0.0	4.5	3.0	0.0
자녀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어서	0.8	0.0	0.0	2.3	0.0	2.5
지인이 추천해서	0.4	0.0	0.0	0.0	0.0	2.5

(2) 이용 기간, 학기 및 방학 때 이용 횟수와 시간 - 장기 이용, 이용 횟수는 차이가 없으나 이용 시간은 학기와 방학 차이 있음

돌봄 기관을 이용한 기간은 6개월 미만인 40%로 가장 많았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이 30.4%, 2년 이상 3년 미만 11.7%, 3년 이상이 10.8%로, 1년 이상의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돌봄 기관을 이용한 기간

(단위: %)

		사례 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전체 ■		(240)	40.0	7.1	30.4	11.7	10.8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16.7	16.7	50.0	0.0	16.7
	학교돌봄터	(39)	66.7	7.7	20.5	2.6	2.6
	다함께돌봄센터	(44)	45.5	6.8	34.1	13.6	0.0
	지역아동센터	(99)	25.3	7.1	27.3	18.2	2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55.0	2.5	35.0	7.5	0.0

학기 중 돌봄 기관의 이용 횟수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4일’이 19.6%, ‘일주일에 1~2일’이 9.6%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1.3%였다.

방학 중 돌봄 기관의 이용 횟수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이 66.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일주일에 3~4일’이 19.6%, ‘일주일에 1~2일’은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5.0%로, 학기 중일 때보다 비정기적 이용이 더 많았다.

[표 4-26] 돌봄 기관의 이용 횟수 - 학기와 방학

(단위: %)

		사례 수	비정기적 으로	일주일에 1~2일	일주일에 3~4일	일주일에 5일 이상	1개월에 1~2회	이용 안 함
학기 중								
■ 전체 ■		(240)	1.3	9.6	19.6	67.9	.	1.7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0.0	11.1	27.8	61.1	.	0.0
	학교돌봄터	(39)	2.6	5.1	28.2	64.1	.	0.0
	다함께돌봄센터	(44)	0.0	27.3	25.0	47.7	.	0.0
	지역아동센터	(99)	2.0	7.1	13.1	73.7	.	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0.0	0.0	17.5	82.5	.	0.0
방학 중								
■ 전체 ■		(240)	5.0	2.9	19.6	66.3	0.4	5.8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6	0.0	11.1	61.1	0.0	22.2
	학교돌봄터	(39)	7.7	2.6	17.9	66.7	0.0	5.1
	다함께돌봄센터	(44)	6.8	6.8	18.2	63.6	0.0	4.5
	지역아동센터	(99)	1.0	3.0	22.2	68.7	1.0	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10.0	0.0	20.0	65.0	0.0	5.0

학기 중 돌봄 기관을 하루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40.4%로 가장 많았다. 하루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용이 32.5%,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이용이 13.8%, 하루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7.9%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5시간 이상도 4.6%가 있었다.

방학 중 돌봄 기관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24.2%였으며, 하루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용 아동이 23.8%, 하루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이용 아동이 22.1%로 나타났다. 하루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이용하는 아동은 15.8%,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이용하는 아동은 7.9%였다. 즉, 학기보다 방학 때 이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돌봄 기관의 이용 시간 - 학기와 방학

(단위: %)

	사례 수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이용 안 함
학기 중								
■ 전체 ■	(240)	0.4	13.8	40.4	32.5	7.9	4.6	0.4
돌 봄 기 관	초등돌봄교실	(18)	0.0	11.1	61.1	22.2	0.0	0.0
	학교돌봄터	(39)	0.0	23.1	46.2	25.6	5.1	0.0
	다함께돌봄 센터	(44)	0.0	20.5	40.9	34.1	2.3	0.0
	지역아동센터	(99)	1.0	13.1	33.3	28.3	15.2	1.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0)	0.0	0.0	42.5	52.5	2.5	0.0
방학 중								
■ 전체 ■	(240)	.	7.9	22.1	23.8	15.8	24.2	6.3
돌 봄 기 관	초등돌봄교실	(18)	.	5.6	22.2	5.6	22.2	16.7
	학교돌봄터	(39)	.	5.1	17.9	20.5	15.4	33.3
	다함께돌봄 센터	(44)	.	6.8	13.6	18.2	13.6	43.2
	지역아동센터	(99)	.	13.1	23.2	20.2	20.2	3.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0)	.	0.0	32.5	50.0	5.0	10.0

(3)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 - 친구나 이웃 42.1%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는 ‘친구나 이웃이 알려줘서’가 42.1%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알려줘서’ 25.4%, ‘해당 기관의 홍보물을 보고’ 23.8%, ‘동네에 센터가 생긴 것을 직접 보고’ 23.8%,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매체를 보고’ 6.7%, ‘시청의 홍보물을 보고’ 6.3%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학교돌봄터의 경우, ‘학교에서 알려줘서’가 7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28] 보호자가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

(단위: %)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돌 봄센터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방 과후아가 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친구나 이웃이 알려줘서	42.1	38.9	20.5	40.9	55.6	32.5
학교에서 알려줘서	25.4	38.9	79.5	6.8	14.1	15.0
해당 기관의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23.8	27.8	17.9	25.0	12.1	55.0
동네에 센터가 생긴 것을 직접 보고	23.8	33.3	15.4	54.5	20.2	2.5
인터넷 매체(카페, 블로그 등)를 보고	6.7	0.0	5.1	13.6	6.1	5.0
시청의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6.3	0.0	0.0	15.9	4.0	10.0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등)이 알려줘서	2.9	0.0	0.0	0.0	7.1	0.0
지역 내 복지관에서 알려줘서	2.9	0.0	0.0	0.0	4.0	7.5
정부 홈페이지를 보고	2.5	0.0	2.6	4.5	3.0	0.0
언론매체(TV, 신문, 잡지 등)를 보고	0.4	0.0	0.0	0.0	1.0	0.0

(4) 등·하원(교) 방식과 이동 시간 - 대부분 자녀 혼자 걸어서 10분 이내로 등·하원

학기 중 등원 방식은 ‘자녀 혼자 걸어서’가 69.2%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15.8%, ‘버스 등 교통수단을 타고’ 12.5% ‘부모 차량으로’ 2.1% 순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하원 방식 역시 ‘자녀 혼자 걸어서’가 58.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21.7%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15.8%, ‘부모 차량으로’ 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 혼자든 어른과 동행하든 아동이 걸어서 등·하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돌봄 기관의 위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학 중 등원 방식 역시 ‘자녀 혼자 걸어서’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20.0%, ‘버스 등 교통수단을 타고’ 12.1% ‘부모 차량으로’ 2.5%, ‘친구/형제와 같이 걸어서’ 1.3% 순으로 나타났다. 학기 중 보다는 ‘부모, 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의 비율이 높았으며, 방학 중에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소수 있었다. 한편, 가장 주된 하원 방식은 ‘자녀 혼자 걸어서(57.5%)’였다. ‘버스 등 교통수단을 타고’ 21.3%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15.0%, ‘부모 차량으로’ 2.9%, ‘친구/형제와 같이 걸어서’ 0.4%로 나타나 학기 중과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29] 등하원 방식 - 학기와 방학

(단위: %)

		사례 수	자녀 혼자 걸어서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버스 등 교통수단을 타고	부모 차량으로	돌봄 교사 등 외부인과 함께 걸어서	친구/형제와 같이 걸어서	이용 안 함
학기 중 등원									
돌봄기관	■ 전체 ■	(240)	69.2	15.8	12.5	2.1	.	0.4	.
	초등돌봄교실	(18)	77.8	11.1	11.1	0.0	.	0.0	.
	학교돌봄터	(39)	48.7	46.2	5.1	0.0	.	0.0	.
	다함께돌봄센터	(44)	65.9	15.9	15.9	2.3	.	0.0	.
	지역아동센터	(99)	78.8	9.1	10.1	1.0	.	1.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5.0	5.0	22.5	7.5	.	0.0	.
학기 중 하원									
돌봄기관	■ 전체 ■	(240)	58.8	15.8	21.7	2.5	0.8	0.4	.
	초등돌봄교실	(18)	50.0	27.8	22.2	0.0	0.0	0.0	.
	학교돌봄터	(39)	33.3	28.2	35.9	0.0	2.6	0.0	.
	다함께돌봄센터	(44)	59.1	25.0	11.4	2.3	2.3	0.0	.
	지역아동센터	(99)	76.8	10.1	10.1	2.0	0.0	1.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42.5	2.5	47.5	7.5	0.0	0.0	.
방학 중 등원									
돌봄기관	■ 전체 ■	(240)	62.5	20.0	12.1	2.5	.	1.3	1.7
	초등돌봄교실	(18)	55.6	22.2	11.1	0.0	.	5.6	5.6
	학교돌봄터	(39)	38.5	43.6	15.4	0.0	.	0.0	2.6
	다함께돌봄센터	(44)	56.8	27.3	6.8	4.5	.	2.3	2.3
	지역아동센터	(99)	75.8	13.1	9.1	1.0	.	1.0	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2.5	5.0	22.5	7.5	.	0.0	2.5
방학 중 하원									
돌봄기관	■ 전체 ■	(240)	57.5	15.0	21.3	2.9	1.3	0.4	1.7
	초등돌봄교실	(18)	55.6	22.2	16.7	0.0	0.0	0.0	5.6
	학교돌봄터	(39)	30.8	25.6	35.9	0.0	5.1	0.0	2.6
	다함께돌봄센터	(44)	56.8	25.0	11.4	4.5	0.0	0.0	2.3
	지역아동센터	(99)	74.7	10.1	12.1	2.0	0.0	1.0	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42.5	2.5	42.5	7.5	2.5	0.0	2.5

집에서 돌봄 기관까지 자녀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한 결과, 10분 미만이 56.3%로 절반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다음 10분 이상 20분 미만이 25%, 20분 이상 30분 미만이 10.4%였으며,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경우가 8.3%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표 4-30] 자녀 기준 돌봄 기관부터 집까지의 거리

(단위: %)

		사례 수	10분 미만	10분 이상 ~ 20분 미만	20분 이상 ~ 30분 미만	걸어서 다닐 수 없음
돌봄 기관	■ 전체 ■	(240)	56.3	25.0	10.4	8.3
	초등돌봄교실	(18)	66.7	27.8	0.0	5.6
	학교돌봄터	(39)	76.9	15.4	7.7	0.0
	다함께돌봄센터	(44)	63.6	22.7	0.0	13.6
	지역아동센터	(99)	55.6	25.3	11.1	8.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25.0	35.0	27.5	12.5

(5) 급식 이용 여부와 이용료 - 방학 중 급식 이용률이 더 높음, 절반 이상이 비용부담 없음

학기 중 급식 이용 아동은 74.2%이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대부분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각각 97.5%, 90.9%). 학교돌봄터의 경우 66.7%,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50%가 급식을 이용하며, 다함께돌봄센터가 31.8%로 가장 낮은 급식 이용률을 보였다.

한편, 방학 중 돌봄 기관에서 급식을 이용하는 비율은 더 높았는데(90%),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가 94.9%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다함께돌봄센터가 88.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87.5%, 학교돌봄터가 87.2%, 초등돌봄교실이 77.8%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방학 중의 급식 이용이 학기 중 보다 줄었으며, 나머지 기관은 방학 중의 급식 이용률이 더 높았다.

[표 4-31] 학기와 방학 중 급식 이용 여부와 월평균 이용료

		사례 수	예(%)	아니오(%)
학기 중 급식 이용 여부				
■ 전체 ■		(240)	74.2	25.8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0.0	50.0
	학교돌봄터	(39)	66.7	33.3
	다함께돌봄센터	(44)	31.8	68.2
	지역아동센터	(99)	90.9	9.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97.5	2.5
방학 중 급식 이용 여부				
■ 전체 ■		(240)	90.0	10.0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77.8	22.2
	학교돌봄터	(39)	87.2	12.8
	다함께돌봄센터	(44)	88.6	11.4
	지역아동센터	(99)	94.9	5.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87.5	12.5

급식, 프로그램 이용료 등 개인 부담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돌봄 기관 이용료는 전체 평균 16,887원이었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55.8%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95%), 지역아동센터(79.8%), 초등돌봄교실(27.8%), 다함께돌봄센터(15.9%), 학교돌봄터(12.8%)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균 이용료를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비용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2] 개인 부담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이용료

		사례 수	0원	[평균:원]
■ 전체 ■		(240)	55.8	16,887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27.8	39,722
	학교돌봄터	(39)	12.8	29,230
	다함께돌봄센터	(44)	15.9	33,272
	지역아동센터	(99)	79.8	7,1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95.0	775

3) 돌봄 기관 이용 경험

(1)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및 전반적 만족도

① 접근성 - 이용료의 만족도가 높고 차량 지원 만족도가 낮음

접근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이용료(4.49점)였는데, 초등돌봄교실 이용의 경우 만족도가 3.6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 가능 시간이 충분함(4.48점) 역시 만족도가 높았고, 기관별로도 고르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이동 시 차량 지원의 만족도가 3.73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기관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시설 편의성 - 안전 및 안락함에서 마을돌봄의 만족도가 더 높음

돌봄 기관의 안전 및 안락함의 만족도가 4.49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보다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다. 아동 1인당 충분한 공간에 관한 만족도는 4.34점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그 만족도가 3.89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③ 인력 - 교사 1인당 아동 수에 있어서 학교돌봄의 만족도가 더 낮음

돌봄 교사의 전문적 역량에 대한 만족도는 4.38점이었는데, 지역아동센터(4.56점)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4.45점)의 만족도가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교사의 인성에 관해서는 4.45점으로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사 1인당 아동의 수에 대해서는 4.15점 정도로 만족했다. 특히 학교돌봄터(3.77점)와 초등돌봄교실(3.89점)의 만족도가 낮았다.

④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전반적으로 높지만, 등·하원 동행 서비스가 낮은 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중 예체능 활동이 4.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급·간식 제공이 4.40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등·하원 동행 서비스와 병원 동행 및 아픈 아이 돌봄 제공은 타 항목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지역아동센터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⑤ 인식 -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기관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다른 아동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4.27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기관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역시 4.22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4-33] 부모의 돌봄 기관에 대한 세부 만족도

(단위: 점)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접근성	이용 가능 시간이 충분함	4.48	4.39	4.49	4.41	4.55	4.45
	이동 거리(집-기관)	4.38	4.56	4.56	4.57	4.31	4.10
	이동 시 차량 지원	3.73	3.56	3.18	3.39	3.90	4.28
	유연한 이용	4.43	4.17	4.31	4.57	4.54	4.28
	이용료	4.49	3.67	4.41	4.34	4.66	4.70
시설 편의성	아동 1인당 충분한 공간	4.34	3.89	4.21	4.34	4.44	4.40
	교재 및 교구	4.33	4.00	3.90	4.36	4.53	4.38
인력	돌봄 기관의 안전 및 안락함	4.49	4.22	4.28	4.48	4.61	4.53
	돌봄 교사의 전문적 역량	4.38	4.06	4.15	4.27	4.56	4.45
	돌봄 교사의 인성	4.45	4.17	4.23	4.32	4.65	4.48
	돌봄 교사 1인당 아동의 수	4.15	3.89	3.77	4.02	4.40	4.18
서비스	등하교(원) 동행 서비스	3.93	3.50	3.51	3.55	4.17	4.33
	숙제 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4.00	3.83	3.49	3.73	4.35	4.03
	급간식 제공	4.40	3.89	4.00	4.41	4.63	4.48
	병원 동행 및 아픈 아이 돌봄 제공	3.98	3.67	3.74	3.73	4.29	3.88
프로 그램	교과목 보충학습	4.04	3.72	3.56	3.61	4.48	4.03
	예체능 활동	4.44	4.50	4.03	4.32	4.67	4.38
	체험활동	4.35	3.94	3.79	4.18	4.66	4.50
인식	기관의 다른 아동과 자녀의 관계	4.27	4.17	4.05	4.16	4.43	4.25
	기관에 대한 주변의 시선	4.22	4.06	3.97	4.25	4.37	4.13

⑥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으로 매우 높음

돌봄 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전반적 만족도는 4.5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95.4%, 보통 3.8%,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은 0.8%였다.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가 4.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4.58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표 4-34] 부모의 돌봄 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 전체 ■		(240)	0.8	3.8	95.4	4.51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0.0	5.6	94.4	4.28
	학교돌봄터	(39)	0.0	7.7	92.3	4.31
	다함께돌봄센터	(44)	2.3	0.0	97.7	4.43
	지역아동센터	(99)	1.0	4.0	94.9	4.6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0.0	2.5	97.5	4.58

(2) 앞으로 이용할 예정 기간 - 초등학교 졸업까지 이용 55%

향후 해당 돌봄 기관을 얼마나 이용할지를 물었을 때, 초등학교 졸업까지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2년 이상 3년 미만(17.9%), 1년 이상 2년 미만(14.2%), 6개월 이상 1년 미만(12.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중 초등학교 졸업까지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역아동센터가 72.7%로 가장 많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54.5%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35.0%로 가장 적었다.

[표 4-35] 향후 돌봄 기관 이용 기간

(단위: %)

		사례 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초등학교 졸업까지
■ 전체 ■		(240)	0.4	12.5	14.2	17.9	55.0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0.0	11.1	27.8	22.2	38.9
	학교돌봄터	(39)	0.0	15.4	25.6	20.5	38.5
	다함께돌봄센터	(44)	2.3	2.3	22.7	18.2	54.5
	지역아동센터	(99)	0.0	5.1	2.0	20.2	72.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0.0	40.0	17.5	7.5	35.0

(3) 돌봄 기관의 유용성 - 모든 영역이 4점대로 유용성이 높음

영역별 돌봄 기관의 유용성은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안전한 보호(4.58점), 사회성 발달(4.49점), 정서 안정(4.46점), 학습 태도 및 능력향상(4.3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중 안전한 보호영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4.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돌봄교실이 4.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성 발달영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4.62점으로 가장 높고, 학교돌봄터가 4.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 안정 영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4.61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돌봄터가 4.26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습 태도 및 능력향상 영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4.57점으로 가장 높고 학교돌봄터가 4.05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보호자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학교돌봄터 이용 보호자의 만족도는 절대 점수상으로는 높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4-36] 부모가 생각하는 돌봄 기관의 유용성

(단위: 점)

		사례 수	안전한 보호	사회성 발달	정서 안정	학습 태도 및 능력향상
■ 전체 ■		(240)	4.58	4.49	4.46	4.31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4.33	4.28	4.28	4.06
	학교돌봄터	(39)	4.49	4.21	4.26	4.05
	다함께돌봄센터	(44)	4.73	4.57	4.45	4.14
	지역아동센터	(99)	4.63	4.62	4.61	4.5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4.53	4.45	4.38	4.23

(4) 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 - 4.38점, 도움 됨 85.8%

돌봄 기관 이용이 가정의 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5점 만점 중 4.38점으로 나타났다. 도움 됨(매우 도움 됨+도움 됨)의 응답이 85.8%로 도움 안 되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기관 중 지역아동센터가 4.66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초등돌봄교실은 3.44점으로 유일하게 4점에 못 미쳤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은 4.55점, 800만원 이상은 4.11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7] 돌봄 기관의 이용이 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된 정도

(단위: 점)

		사례 수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5점 평균
■ 전체 ■		(240)	2.9	11.3	85.8	4.38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22.2	27.8	50.0	3.44
	학교돌봄터	(39)	2.6	17.9	79.5	4.21
	다함께돌봄센터	(44)	4.5	15.9	79.5	4.16
	지역아동센터	(99)	0.0	4.0	96.0	4.6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0.0	10.0	90.0	4.5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0.0	9.1	90.9	4.55
	200~400만원 미만	(89)	4.5	5.6	89.9	4.51
	400~600만원 미만	(76)	2.6	11.8	85.5	4.30
	600~800만원 미만	(34)	2.9	17.6	79.4	4.24
	800만원 이상	(19)	0.0	26.3	73.7	4.11

(5) 필요한 아동돌봄서비스 - 급·간식 제공의 필요성이 가장 높음(4.41점)

아동돌봄서비스로서 항목별 필요성에 있어서 급·간식 제공이 4.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활동(4.36점), 체험활동(4.33점), 교과목 보충학습(4.18점)도 4점 이상의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숙제 지도, 준비물 챙겨주는 3.93점, 병원 동행 및 아픈 아이 돌봄 제공은 3.90점이었다. 상대적으로 종료 후 이동 편의 제공(3.48점)과 등하교(원) 동행 서비스(3.39점)의 필요도는 낮았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급·간식 제공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예체능 활동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돌봄터는 예체능 활동, 체험활동 2항목이 모두 4.49점으로 필요성이 높았다.

[표 4-38] 아동돌봄서비스의 항목별 필요도

(단위: 점)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등하교(원) 동행 서비스	3.39	3.94	3.28	3.45	3.35	3.25
종료 후 이동 편의 제공	3.48	3.61	3.26	3.36	3.49	3.70
숙제 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3.93	3.89	3.92	3.82	3.97	3.98
급·간식 제공	4.41	4.39	4.49	4.48	4.38	4.33
병원 동행 및 아픈 아이 돌봄 제공	3.90	4.28	4.05	3.98	3.84	3.68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과목 보충학습	4.18	4.11	4.10	4.00	4.25	4.28
여체능 활동	4.36	4.22	4.49	4.32	4.33	4.43
체험활동	4.33	4.11	4.49	4.27	4.29	4.40

(6) 사교육 이용 여부와 그 이유, 사교육 개수와 비용 - 학교돌봄터·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의 사교육 이용이 많음

현재 학원, 방문학습 등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는 71.3%이며, 학교돌봄터(87.2%), 초등돌봄교실(83.3%), 다함께돌봄센터(81.8%)의 경우 80% 이상의 아동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59.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67.5%로 상대적으로 사교육 이용률이 낮았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개수는 평균 2.19개로 나타났다. 기관 중 학교돌봄터가 2.68개, 다함께돌봄센터는 2.61개, 초등돌봄교실은 2.27개를 이용하는 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89개, 지역아동센터는 1.78개로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이용 이유로 ‘아동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길 위해서(63.2%)’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학업 보충 목적(15.8%)이나 아동이 위해서 다니는 경우(14%)가 많았다.

사교육을 받는 자녀 1인당 월 사교육비는 평균 350,649원이다. 학교돌봄터는 420,294원, 다함께돌봄센터는 401,805원으로 4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은 384,666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는 321,644원이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39,222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4-39]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 이유,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이용 여부					
■ 전체 ■		사례 수	예(%)	아니오(%)	[평균:개]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83.3	16.7	2.27
	학교돌봄터	(39)	87.2	12.8	2.68
	다함께돌봄센터	(44)	81.8	18.2	2.61
	지역아동센터	(99)	59.6	40.4	1.7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7.5	32.5	1.89
사교육을	· 아동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길 위해서(63.2%)				

이용하는 이유	· 돌봄 기관의 학업 지도가 부족해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 보충하려고(15.8%)		
	· 아동이 원해서(14.0%)		
	· 돌봄 기관에서 자녀가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2.3%)		
	· 돌봄 기관 이용 전부터 다녀서(1.2%)		
	· 단체활동 경험을 위해서(0.6%)		
	·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0.6%)		
	·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0.6%)		
	· 학원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0.6%)		
	· 부모가 픽업하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0.6%)		
· 부모가 원해서(0.6%)			
월평균 사교육 비용			
	사례 수	[평균·원]	
■ 전체 ■		(171)	350,649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5)	384,666
	학교돌봄터	(34)	420,294
	다함께돌봄센터	(36)	401,805
	지역아동센터	(59)	321,64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7)	239,222

(7) 사교육과 아동돌봄서비스의 병행 어려움 및 그 이유 - 병행 어려움 29.2%

사교육과 아동돌봄서비스를 병행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9.2%로 낮았다. 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47.5%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가 14.1%로 가장 적었다.

병행이 어려웠던 이유 중 ‘시간을 조율하기 어려워서’가 7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4-40] 사교육과 아동돌봄서비스의 병행 어려움과 그 이유

(단위: %)

		사례 수	예	아니오
■ 전체 ■		(240)	29.2	70.8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38.9	61.1
	학교돌봄터	(39)	38.5	61.5
	다함께돌봄센터	(44)	34.1	65.9
	지역아동센터	(99)	14.1	85.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47.5	52.5
병행이 어려웠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시간을 조율하기 어려워서(70.0%) · 이동 거리가 멀어서(11.4%) ·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1.4%) · 자녀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서(5.7%) · 차량을 지원하지 않아서(1.4%) 		

(8) 학기 및 방학 때 시간대별 아동의 돌봄 형태 - 17~19시부터 아동 혼자 있는 경우 증가

학기 중 오전 7시부터 9시에 주로 가족이 아동을 돌보고(85.8%), 아동 혼자 있는 경우는 11.7%로 나타났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13시부터 15시까지 주로 아동은 돌봄 기관 및 서비스(51.7%)나 사교육(22.9%)을 이용했고,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도 15%로 적지 않았다. 15시에서 17시 사이에 마찬가지로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65%, 사교육 25%로 외부 돌봄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17시에서 19시 사이에는 여러 돌봄 형태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35%)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28.8%,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가 20.5%, 사교육 이용이 15.4%로 나타났다. 19시에서 21시 사이에는 주로 가족이 돌보았으나(66.7%)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가 25.4%로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학 중에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가족 돌봄이 84.6%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가 10.8%로 나타났다. 돌봄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4.2%로 학기 중보다는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이 조금 증가했다. 오전 9시부터 11시에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이 47.1%로 가장 많았고 여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40%로 나타났다.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도 10%를 차지했다. 11시부터 13시까지 역시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이 53.3%, 가족 돌봄 33.3%로 나타났으며, 혼자 있는 경우가 10.4%로 나타났다. 13시에서 15시 사이에는 여전히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53.3%)이 가장 많았으나 사교육 이용이 23.8%로 오전보다 높아졌으며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12.9%로 오전보다 감소하였다. 15시에서 17시에는 돌봄 기관 및 서비스(50.4%)와 사교육(30.8%)을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이었고, 가족이 돌보거나(8.3%),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도 (10.5%)로 적지 않았다. 학기 중과 동일하게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여러 돌봄 형태가 혼재했는데, 가족 돌봄(31.3%),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30.8%), 아동 혼자 있음(22.9%), 사교육 이용(14.6%) 순으로 나타났다. 19시부터 21시 사이에는 주로 가족이 돌보는 것(69.2%)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24.2%)도 꽤 많았다.

학과와 방학 모두 도우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0.4~0.8%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대가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7~9시 사이, 17~19시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 틈새돌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1] 시간대별 돌봄 형태 - 학기와 방학

(단위: %)

구분	아동 혼자 있음	가족이 돌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사교육 이용	기타(도우미)
학기 중					
07:00~09:00	11.7	85.8	1.2	0.4	0.8
09:00~13:00	학교 정규수업				
13:00~15:00	15	10.4	51.7	22.9	.
15:00~17:00	4.2	5.8	65.0	25.0	.
17:00~19:00	20.5	28.8	35.0	15.4	0.4
19:00~21:00	25.4	66.7	3.8	4.2	.
방학 중					
07:00~09:00	10.8	84.6	4.2	.	0.4
09:00~11:00	10.0	40.0	47.1	2.9	.
11:00~13:00	10.4	33.3	53.3	2.9	.
13:00~15:00	10.0	12.9	53.3	23.8	.
15:00~17:00	10.5	8.3	50.4	30.8	.
17:00~19:00	22.9	31.3	30.8	14.6	0.4
19:00~21:00	24.2	69.2	4.6	2.1	.

(9) 아동돌봄서비스 인지 -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만 인지율 50% 이상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여러 아동돌봄서비스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초등돌봄교실(89.2%), 지역아동센터(68.8%), 학교돌봄터(53.3%), 다함께돌봄센터(36.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인지율은 35.8%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았고,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이 17.9%, 공동육아나눔터가 14.2%였다. 즉,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의 인지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표 4-42] 아동돌봄서비스 인지율

(단위: %)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초등돌봄교실	89.2	83.3	97.4	90.9	85.9	90.0
학교돌봄터	53.3	66.7	76.9	54.5	48.5	35.0
다함께돌봄센터	36.3	27.8	33.3	81.8	28.3	12.5
지역아동센터	68.8	38.9	41.0	52.3	90.9	72.5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5.0	33.3	15.4	29.5	24.2	87.5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17.9	22.2	10.3	15.9	21.2	17.5
아이돌봄지원사업	35.8	27.8	41.0	40.9	35.4	30.0
공동육아나눔터	14.2	16.7	20.5	15.9	12.1	10.0
사설 기관(학원, 문화센터 등)	63.8	66.7	69.2	56.8	58.6	77.5

4) 아동돌봄의 어려움

(1) 긴급돌봄 경험 및 어려움 정도 - 자녀가 아플 때 어려움이 가장 큼, 대체로 사적 자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해결함

63.8%의 보호자가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79.5%가 가장 많고, 지역아동센터가 53.5%로 가장 적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여러 상황의 어려움 정도를 물어본 결과, 자녀가 아플 때(4.28점)의 어려움이 가장 컸다. 평소 가던 돌봄 기관 휴원하는 때(4.16점), 코로나19, 개교기념일 등으로 휴교하는 때(4.16점), 조부모 등 평소 돌봐주던 사람이 부재할 때(4.15점), 집안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4.15점) 역시 높은 어려움을 보였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의 돌봄 대안은 부모 중 한 명이 맡아서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4.6%).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28.1%, 아동이 혼자 있는 경우가 23.5%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주변 이웃이나 친구(5.9%), 돌봄 기관(5.2%)에 맡기는 경우가 소수 있었다. 대체로 개인이 사적 자원을 활용해서 긴급돌봄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43] 긴급할 때 자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사례 수	예(%)	아니오(%)
돌 봄 기 관	■ 전체 ■	(240)	63.8	36.3
	초등돌봄교실	(18)	72.2	27.8
	학교돌봄터	(39)	69.2	30.8
	다함께돌봄센터	(44)	79.5	20.5
	지역아동센터	(99)	53.5	46.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2.5	37.5

[표 4-44]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어려움 정도와 그 대안

(단위: 점, %)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돌봄 터	다함께돌 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 과후아카 데미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어려움 정도						
사례 수	(151)	(13)	(27)	(35)	(53)	(23)
자녀가 아플 때	4.28	4.58	4.60	4.55	3.88	4.29
조부모 등 평소 돌봐주던 사람이 부재할 때	4.15	4.36	4.43	4.43	3.70	4.28
평소 가던 돌봄 기관이 휴원하는 때	4.16	4.50	4.48	4.38	3.98	3.70
코로나19, 개교기념일 등으로 인해 휴교하는 때	4.16	4.33	4.28	4.34	4.06	3.86
오전/야간 또는 휴일 업무가 생기는 경우	3.85	4.08	4.00	3.90	3.65	4.00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맡길 곳이 없을 때	3.64	4.08	3.67	4.13	3.25	3.63
야간에 비공식 모임이 있을 때	3.67	4.09	3.94	4.00	3.28	3.61
집안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4.15	4.42	4.32	4.20	3.91	4.27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 대안						
사례 수	(153)	(13)	(27)	(35)	(53)	(25)
부모 중 한 명이 맡아서 돌봄	34.6	46.2	40.7	45.7	24.5	28.0
조부모 등 가족이 돌봄	28.1	15.4	40.7	34.3	22.6	24.0
맡길 곳이 없어서 아동이 혼자 있음	23.5	23.1	14.8	14.3	28.3	36.0
주변 이웃이나 친구에게 맡김	5.9	7.7	3.7	0.0	9.4	8.0
돌봄 기관에 맡김	5.2	0.0	0.0	0.0	15.1	0.0
형제자매와 같이 있음	2.0	0.0	0.0	5.7	0.0	4.0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서비스를 이용함	0.7	7.7	0.0	0.0	0.0	0.0

(2) 부담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 24,843원 정도 부담 가능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1회 비용 가능한 금액은 평균 24,843원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57.9%), 1만원 미만이 20%,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8.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돌봄 기관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응답이 상당히 높았던 것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해당 응답이 50% 미만이었다.

[표 4-45] 부담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비용

(단위: %)

	사례 수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평균·원]
■ 전체 ■	(240)	20.0	57.9	18.8	3.3	24,843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5.6	77.8	11.1	28,888
	학교돌봄터	(39)	15.4	76.9	7.7	19,410
	다함께돌봄센터	(44)	11.4	72.7	15.9	22,045
	지역아동센터	(99)	30.3	47.5	18.2	22,616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40)	15.0	40.0	37.5	7.5

(3) 돌봄 공백으로 인한 병원 이용의 어려움 경험 여부 - 30.8% 경험 있음

보호자가 없어서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거나 늦게 간 경험은 전체의 3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돌봄 공백으로 인한 병원 이용의 어려움

	사례 수	예(%)	아니오(%)
■ 전체 ■	(240)	30.8	69.2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22.2
	학교돌봄터	(39)	46.2
	다함께돌봄센터	(44)	34.1
	지역아동센터	(99)	25.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30.0

5) 돌봄 관련 선호

(1) 아동 전용 식당 이용 의향과 그 이유 - 86.7%가 이용 의향 있음

아동이 자유롭게 오가며 저녁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아동 전용 식당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86.7%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기관 중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의사가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 전용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보호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집에서 챙겨줄 수가 있다’란 응답이 34.4%로 가장 높았고, ‘아이가 혼자 가지 않을 것 같다’도 21.9%로 나타났다. 그 외에 ‘코로나로 아직 불안하다.’ ‘아이가 외부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급식의 양이나 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 ‘지역아동센터에 맡기

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센터와 거리가 멀 것 같다.’ ‘비용이 부담된다.’ ‘자녀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다’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표 4-47] 아동 전용 식당의 이용 의향과 미이용 이유

		사례 수	예(%)	아니오(%)
■ 전체 ■		(240)	86.7	13.3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83.3	16.7
	학교돌봄터	(39)	87.2	12.8
	다함께돌봄센터	(44)	90.9	9.1
	지역아동센터	(99)	85.9	1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85.0	15.0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다(18.8%) · 집에서 챙겨줄 수가 있다(34.4%) · 아이가 혼자 가지 않을 것 같다(21.9%) · 집이 편하다(6.3%) · 코로나로 아직은 불안하다(6.3%) · 아이가 외부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3.1%) · 급식의 양이나 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3.1%) ·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3.1%) · 센터와의 거리가 멀 것 같다(3.1%) · 비용이 부담된다(3.1%) · 자녀가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다(3.1%) 		

(2) 선호하는 돌봄 방식과 그 이유 - 1순위 마을돌봄(56.3%), 2순위 학교돌봄(45%)

선호 돌봄 방식 1순위는 마을돌봄이 56.3%로 가장 높았고, 학교돌봄이 37.1%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 가정 방문형 2.9%, 동네어른을 통한 공동체 돌봄 2.9%, 보호자 포함 공동체 돌봄 0.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돌봄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학교돌봄 더 선호했고(초등돌봄교실의 경우 55.6%, 학교돌봄터의 경우 74.4%), 마을돌봄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마을돌봄을 더 선호했다(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63.6%,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77.8%). 그러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학교돌봄 50%, 마을돌봄 선호가 37.5%로 학교돌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돌봄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음’이 32.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이유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이 28.3%,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가 19.6%, ‘서비스 이용이 유연함’ 1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8] 보호자가 선호하는 돌봄 방식 - 1순위

		(단위: %)					
		사례 수	마을돌봄	학교돌봄	가정 방문형	보호자 포함 공동체 돌봄	동네어른을 통한 공동체 돌봄
■ 전체 ■		(240)	56.3	37.1	2.9	0.8	2.9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33.3	55.6	5.6	0.0	5.6
	학교돌봄터	(39)	23.1	74.4	0.0	0.0	2.6
	다함께돌봄센터	(44)	63.6	36.4	0.0	0.0	0.0
	지역아동센터	(99)	77.8	14.1	4.0	0.0	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37.5	50.0	5.0	5.0	2.5
선호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음(32.5%) ·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28.3%) ·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19.6%) · 서비스 이용이 유연함(10.4%) · 급간식을 영양 있게 제공해서(5.0%) ·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이 쉬움(3.3%) ·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0.8%) 					

선호 돌봄 방식 2순위는 학교돌봄이 45%, 마을돌봄이 3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방문형이 10.4%, 동네어른을 통한 공동체 돌봄 8.3%, 보호자 포함 공동체 돌봄이 4.6%로 확인되었다. 2순위 선호도에서는 1순위보다 응답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 보호자 중 33.3%는 선호 2순위에서도 학교 돌봄을 선호한 반면 학교돌봄터 이용 보호자는 2순위로 마을돌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53.8%).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보호자는 2순위로 학교돌봄을 선택했으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부모는 마을돌봄을 선호했다.

2순위 돌봄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음’이 25%로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이유로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17.9%)’, ‘급·간식을 영양 있게 제공해서(16.7%)’, ‘서비스 이용이 유연함(15.4%)’,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10.8%)’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9] 보호자가 선호하는 돌봄 방식 - 2순위

(단위: %)

		사례 수	돌봄 기관의 마을돌봄	학교돌봄	가정 방문형	보호자 포함 공동체 돌봄	동네아르을 통한 공동체 돌봄
■ 전체 ■		(240)	31.7	45.0	10.4	4.6	8.3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27.8	33.3	5.6	22.2	11.1
	학교돌봄터	(39)	53.8	20.5	17.9	5.1	2.6
	다함께돌봄센터	(44)	31.8	47.7	13.6	0.0	6.8
	지역아동센터	(99)	17.2	64.6	7.1	4.0	7.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47.5	22.5	10.0	2.5	17.5
선호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음(25.0%) ·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17.9%) · 급간식을 영양 있게 제공해서(16.7%) · 서비스 이용이 유연함(15.4%) ·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10.8%) ·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7.5%) ·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이 쉬움(6.7%) 					

(3) 선호하는 돌봄 장소 - 초등학교의 유희공간 활용을 가장 선호(38.3%)

지역 내 아동돌봄을 위해 추가로 공간을 마련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공간은 초등학교 유희 공간이었다(38.3%). 공공건물의 유희공간 활용이 26.3%,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활용이 25.8%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상가 내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6.7%), 아파트를 임대하는 형태(2.1%), 도서관(0.4%), 단독 공간(0.4%)은 다소 선호도가 낮았다.

[표 4-50] 부모의 지역 내 추가 돌봄 장소 선호도

(단위: %)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센터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 후아카데미
사례 수	(240)	(18)	(39)	(44)	(99)	(40)
초등학교의 유희공간 활용	38.3	44.4	53.8	31.8	31.3	45.0
공공건물의 유희공간 활용	26.3	16.7	15.4	20.5	36.4	22.5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활용	25.8	33.3	28.2	47.7	14.1	25.0
상가 내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	6.7	5.6	0.0	0.0	15.2	0.0
아파트를 임대하는 형태	2.1	0.0	2.6	0.0	2.0	5.0
도서관	0.4	0.0	0.0	0.0	0.0	2.5
단독 공간	0.4	0.0	0.0	0.0	1.0	0.0

6) 고양시 아동돌봄

(1)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 전반적으로 3점대로 낮으며, 마을돌봄보다 학교돌봄이 더 낮음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 영역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보호자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학교돌봄터 보호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중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의 양이 충분하다는 문항이 3.17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를 보였는데 특히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는 3점 이하의 응답을 보였다.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에 관해서 만족하냐는 문항은 3.8점 정도로 동의했는데, 이는 네 개의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였다. 이 역시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의 응답이 3.5점 정도로 낮았고, 지역아동센터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돌봄서비스의 정보를 찾기 쉽다는 문항은 3.26점 정도로 동의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보호자의 응답이 3.11점으로 가장 낮았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돌봄서비스를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3.28점 정도로 동의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3.63점으로 가장 높고 학교돌봄터의 보호자가 2.54점으로 가장 낮았다. 초등돌봄교실 역시 2.83점으로 2점대였다.

[표 4-51]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

(단위: 점)

		사례 수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의 양이 충분함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러움	아동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찾기 쉬움	아동돌봄서비스를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음
■ 전체 ■		(240)	3.17	3.80	3.26	3.28
돌 봄 기 관	초등돌봄교실	(18)	2.94	3.50	3.11	2.83
	학교돌봄터	(39)	2.82	3.51	3.13	2.54
	다함께돌봄센터	(44)	3.02	3.84	3.25	3.30
	지역아동센터	(99)	3.43	3.97	3.38	3.6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3.10	3.78	3.15	3.30

(2)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고양시의 지원 - 돌봄 기관 확충(27.9%)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고양시가 지원하길 바라는 정책으로는 돌봄 기관의 개수를 늘리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27.9%). 그다음은 돌봄 교사 인력 보충(15.8%)이었으며, 돌봄 기관 및 서비스 품질관리(14.2%), 일시/긴급 상황의 돌봄공백을 메꾸는 틈새 돌봄서비스 추가(14.2%) 순이었다. 이외 기존 돌봄 기관의 시설 환경 개선은 9.2%, 아동 전용 식당 추가 운영은 6.7%, 동행 및 차량지원과 같은 이동 서비스 추가는 6.3%, 돌봄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는 3.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돌봄시간 연장,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 중학생 돌봄 필요가 있었다.

[표 4-52]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위한 고양시의 지원

(단위: %)

	■ 전체 ■	돌봄 기관				
		초등돌봄 교실	학교돌봄 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례수	(240)	(18)	(39)	(44)	(99)	(40)
돌봄 기관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것	27.9	27.8	48.7	34.1	25.3	7.5
돌봄 교사 인력 보충	15.8	38.9	10.3	6.8	18.2	15.0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	14.2	0.0	12.8	13.6	11.1	30.0
돌봄 공백을 메꾸는 틈새돌봄서비스 추가	14.2	27.8	15.4	25.0	8.1	10.0
기존 돌봄 기관의 시설환경 개선	9.2	5.6	5.1	2.3	15.2	7.5
아동 전용 식당 추가운영	6.7	0.0	2.6	9.1	5.1	15.0
동행 및 차량 지원 같은 이동 서비스 추가	6.3	0.0	5.1	0.0	8.1	12.5
돌봄 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 홍보	3.8	0.0	0.0	2.3	8.1	0.0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시간 연장(0.8%) ·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0.4%) · 중학생 돌봄 필요(0.4%) · 보기문항 모두 해당(0.4%) 					

(3)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라는 점

[표 4-53] 부모가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라는 점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라는 점	
긴급돌봄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5.8%) 돌봄 교사 인원이 보충되면 좋겠다(3.3%)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한다(2.9%) 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한다(2.9%)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면 좋겠다(2.9%)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2.5%) 중학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1.7%) 차량자원을 해주면 좋겠다(1.7%) 운영을 잘하는 센터는 정부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1.7%) 돌봄 이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1.7%)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1.7%)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되면 좋겠다 센터가 학교와 가까운 곳에 설치됐으면 한다 식사제공이 되었으면 한다 방학 때 식사만이라도 제공되었으면 한다 프로그램이 창의적이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으면 한다 돌봄 시 미디어 시청은 제외시켰으면 한다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했으면 한다 24시간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인원 제한이 없었으면 한다 돌봄 시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다 신청 절차가 간편했으면 한다 급식/간식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한다 방학 중 급식 신청 시 비용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간식시간을 앞당겨줬으면 한다

7) 행복감

(1) 보호자의 행복감 - 6.36점

행복감을 0에서 10점의 사다리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6.36점으로 중간 정도의 행복감을 보였다. 기관별로도 모두 6점대의 행복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봤을 때, 200만원 미만이 5.91점으로 가장 낮았고, 800만원 이상이 7.16점으로 가장 높았다.

(2)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 7.22점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역시 같은 사다리모형으로 측정했을 때, 평균 7.22점으로 보호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관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7.64점으로 가장 높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6.85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400~800만원 미만이 7.09점으로 가장 낮았고, 800만원 이상의 경우가 7.79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4-54] 보호자의 행복감과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사례 수	[평균·점]
보호자의 행복감			
■ 전체 ■		(240)	6.36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6.56
	학교돌봄터	(39)	6.15
	다함께돌봄센터	(44)	6.75
	지역아동센터	(99)	6.3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10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5.91
	200~400만원 미만	(89)	6.43
	400~600만원 미만	(76)	6.24
	600~800만원 미만	(34)	6.29
	800만원 이상	(19)	7.16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			
■ 전체 ■		(240)	7.22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18)	7.33
	학교돌봄터	(39)	7.03
	다함께돌봄센터	(44)	7.64
	지역아동센터	(99)	7.2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	6.85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2)	7.18
	200~400만원 미만	(89)	7.26
	400~600만원 미만	(76)	7.09
	600~800만원 미만	(34)	7.09
	800만원 이상	(19)	7.79

제3절 고양시 아동돌봄 관련자 FGI와 자문회의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고양시 아동돌봄의 수요·공급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고양시의 아동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FGI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2) 분석 대상과 내용 및 방법

분석 대상 중 아동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와 돌봄 기관 종사자는 고양시청 아동정책과, 고양시의회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 7명과 돌봄 기관 종사자 1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고양시 아동돌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1개 집단과 돌봄 기관 종사자 2개 집단으로 나누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2022년 4월 중에 실시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동돌봄공동체의 경우 사업 운영상 어려움과 발전방안에 대해 2022년 5~6월 중 전문가 4명이 대면과 서면으로 자문회의에 참여했다.

2.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돌봄 미이용 학부모

[표 4-55] 아동돌봄 미이용 학부모 FGI 결과

구분	문제 및 욕구
아동돌봄 미이용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이나 활동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마다 초등돌봄교실의 질에 차이가 있음 · 다자녀는 서로 돌볼 수 있지만, 외동은 돌봄에 더욱 취약함 · 안전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지만, 그 외의 공적 돌봄 기관을 모름. 다양한 돌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병원동행서비스 긴급 돌봄이 가능하므로 희망하거나 낯선 사람을 아이가 따라가는 것을 걱정

2) 아동돌봄 종사자

[표 4-56] 아동돌봄 종사자 FGI와 자문회의 결과

구분	문제 및 욕구
초등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가 1, 2학년이라 3학년 이상은 이용하기 어렵고 기대 안 하는 분위기. 저학년 중에서도 대기자 있음 · 돌봄 교사별로 근무시간 차이 있음(8시간, 6시간). 아동의 이용이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짐. 같은 학교 내의 같은 돌봄 기관인데 이용에 차이 발생 · 자유롭게 이용 불가능(학교 자유인 학교도 있음) · 인력의 한계로 아이들과 교류가 힘들(청소도 해야 하는데 놀아줄 수 없음) · 중증장애아동 입소 시 적절한 돌봄이 어려움
학교돌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으로 학교돌봄터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음. 학교와 협의가 어렵고, 같은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과 교류가 거의 없음 · 다른 학교에 비해 돌봄 제공이 많은 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함. 다른 학교 학생이 오는 경우 거의 없음. 현재 2~3학년 1개 반에 대기자 15명 · 아동의 불만은 놀잇감이 부족한 것과 인력 부족으로 외부활동 제약이 있는 것 · 초등돌봄교실과 처우를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교사가 무기계약직인 반면 학교돌봄터의 돌봄 교사는 계약직이라 인력 전환이 어려움. 종사상 지위뿐 아니라 기존 돌봄 교사 중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시에서도 이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임 · 아무리 학교돌봄터로 바꾸려고 리모델링, 인력 등을 지원한다 해도 학교는 부담을 느낌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부족으로 후원금이나 프로포절 사업으로 보충함(추가 업무) · 아동의 불만은 낙인감과 센터에서 쉬지 못하는 것임 · 학부모의 불만은 초등생의 이른 귀가 · 센터를 둘러싼 마을, 학부모 등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음 · 월세 부담 때문에 공간 자원 필요(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함) · 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필요. 상근 돌봄 교사의 추가 배치 또는 인건비 증가로

구분	문제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성 높이길 원함 · 실효성 낮고 불필요한 교육 제외 필요(5개 안전 의무교육은 학교와 중복, 보수교육이 부담됨, 내실화 필요) · 아동의 욕구가 반영된 자원이 필요함(아외활동) · 센터-학교-마을 간 연계가 필요함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교사의 4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으로 열악한 근무 조건. 반면에 희망일자리로 배치되는 매니저는 6시간 근무에 생활임금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낌. 또한 서울시 비해 돌봄 교사 처우가 낮아 책임감과 의욕이 저하됨 · 대기자가 많음 · 교사 수가 한정되어 아이들과 외부활동을 거의 못함 · 행정업무 지원자와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함 · 아이들 수에 따라 공간 평수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이 도심에 얼마 없어 추가 설치가 어려움 · 다함께돌봄센터는 학업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학부모가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음 · 아파트 공간을 바꾸려면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받기가 어려움. 고양시는 신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아 의무설치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힘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다자녀가 대부분. 차상위가정은 드물. 자원협의체의 심의를 통해서 기준 외 인원 수용 가능. 취약계층이 적은 이유는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학원을 선택함 · 아동의 불만은 의무시수(주 15~20시간) 부담(이용이 유연하지 않음) · 다양한 돌봄 기관의 통합이 필요함 ·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
아이돌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의 노무 문제 발생 시 노조 대응 어려움. 특히 출퇴근 산재가 증가함 · 활동 기피 지역의 가정은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특성상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워 특별제외 적용 필요함 · 돌보미가 부족하지만 교육 조건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충원이 어려움 · 정년이 없는데 고령돌보미의 경우 이용자의 기피로 돌봄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음 · 전국 동시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이 느려서 실무자의 수기작업 증가 · 돌보미의 활동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주휴, 연차, 4대보험, 교통비 등이 수시로 변동 · 이용자와 돌보미의 악성민원 응대로 종사자 소진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기관 증대 필요(지침상 복수기관 지정 가능) · 추가수당, 장기근속수당 또는 급량비, 소진 예방 지원 등 필요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아이돌보미 채용 관리 역할)
아동돌봄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후 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함 · 안정적인 공간 마련이 중요함. 임대료 등은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아파트 유희공간도 임대료가 바뀌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인력을 충원함 · 프로그램의 질을 학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을 프로그램에 투자함 · 기존에 자생하던 공동체가 사업에 신청한 경우로, 공동체가 사업을 위해 갑자기 생생·유지되긴 어려울 수 있음. 공동체 검증이 필요하고 신생 공동체의 경우 성장할 수 있는 점진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임 · 상주인력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공동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을 잘 지켜야 함 ·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선 구성원 간 합의와 규칙이 중요함

제4절 고양시 아동돌봄 욕구와 문제점 도출

앞서 분석에서 도출한 고양시의 아동돌봄 관련 욕구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동향과 현황

첫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부처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고양시에서도 이어지는데, 개별 초등학교, 아동정책팀, 청소년팀, 다문화지원팀, 도서관센터, 주민자치과 등 총 여섯 개로 분리되어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즉, 사업만큼 다양한 부서의 네트워킹을 주도할 중심 기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돌봄을 전담하는 단일팀이 없고 전담 공무원 수도 부족하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으며(고양시 32개 < 성남시 53개) 이마저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고양시는 3개소인 반면에 수원시는 11개소, 성남시 23개소, 용인시 11개소로 고양시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적은 수의 돌봄 기관은 고양시의 아동돌봄 수요·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승연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고양시의 아동돌봄 공급률은 초등인구 대비 9.1%로 상당히 낮았으며, 최소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15.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022년 초등인구 대비(만 6~11세) 돌봄 공급을 계산한 결과 11.65%였고 평균 미만의 행동동이 총 14곳으로 나타났다. 아동 인구가 공급을 훨씬 웃돌거나 마을돌봄이 없어 공급 확충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 특히 공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매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나 낮은 응답률로 신뢰도가 낮고 전수조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돌봄 기관 이용 아동과 학부모 설문조사

돌봄 기관 이용 아동 240명, 학부모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동 대상 설문 주요 결과, 첫째, 돌봄 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보호자가 기관에 관해 설명하지 않거나 아동의 이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돌봄 기관과 집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거리인 만큼 돌봄 기관이 아동의 생활 반경 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은 집에 보호자가 있어도 돌봄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어 했는데(80%) 이는 돌봄 이상의 역할, 즉 교육, 여가의 기능을 돌봄 기관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하루에 5시간 이상 어른 없이 아동 혼자 있는 경우가 5%로 돌봄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중 행복감이 3점 이하(10점 만점)로 낮은 아동이 20%이므로 이들에게 관심이 필요하다.

보호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 시 차량 지원, 등하교 동행 서비스, 병원 동행과 아픈 아이 돌봄 제공에 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아동돌봄서비스 중 급·간식 제공 등 식사 해결과 예체능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63.8%), 자녀가 아플 때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4.28점), 돌봄 기관에 맡겨 이를 해결하는 경우는 소수(5.2%)였고 대부분이 사적 자원으로 이를 해결했다. 따라서 긴급서비스 확대와 아동 병간호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자의 86.7%가 아동 전용 식당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식당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호자는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으로 돌봄 기관 확충을 가장 많이 선택해(27.8%) 공급 확대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률이 낮고 학부모의 욕구도 높은 만큼 아동돌봄 기관의 확대는 급선무이다.

3) FGI와 자문회의

아동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와 돌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와 자문회의 결과 욕구와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이용 학부모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동 가정이나 4대 보험이 증명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해도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필요할 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 기관마다 돌봄의 질이 다르고 학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돌봄 기관은 드물었다. 돌봄의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와 아동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는 안전 때문에 학교돌봄을 가장 선호했으나 실제로 다양한 돌봄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부분도 이용에 제한으로 작용함에 따라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돌봄 종사자는 열악한 급여와 처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4~6시간의 짧은 근무시간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돌봄 제공이 어렵다는 점 역시 주된 문제였다. 돌봄 교사가 보통 1명씩 배치되는 인력 부족과 활동 공간의 부족으로 아동이 가장 원하는 야외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문제를 지닌 아동이 늘어났으나 돌봄 교사의 능력으로 돌보기엔 한계가 있고, 아동뿐 아니라 이용 학부모의 비협조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돌봄 기관마다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돌봄 교사마다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어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중증장애아동을 제한된 인력으로 돌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비 부족이 가장 컸고 지역주민의 낮은 인식과 이용 아동의 낙인감 역시 주된 문제였다. 학교돌봄터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돌봄 교사의 재배치 문제로 설치가 어렵고 같은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이나 교직원과 교류도 거의 없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의무시수가 아동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주된 문제였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 연계와 충원의 어려움, 담당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된 문제였다. 아동돌봄공동체의 경우 3년 이후 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었다.

4) 2차 자료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조사(2022)에 따르면 전체 영역 중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며, 아동돌봄 관련 어려움 역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이 어려웠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33.8%), 이에 따른 외부 지원과 서비스의 필요성 역시 높았다(45.1%). 그러나 관련 서비스의 인지율(21.5%)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돌봄과 양육 관련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과 아동돌봄과 관련한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고양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교육·보육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3점, 사회적 돌봄 만족도는 5.66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고, 특히 덕양구의 교육·보육 만족도가 낮았다. 고양시는 이러한 낮은 만족도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간 만족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2021년 통계로 보는 경기도 사회보장지표(2021)에 따르면, 고양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32개소로, 18세 미만 인구 1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가 1.71개소에 해당한다. 유사 인구 규모의 수원시는 63개소, 성남시는 54개소, 용인시는 35개소로 다른 시에 비해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 수가 훨씬 적은 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학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가정 아동층의 학습지원과 사례관리라는 측면에서 존재 필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잘 유지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양시 아동돌봄연구회 설문조사(2021)에 따르면 가장 힘들었던 자녀 돌봄의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선택기준은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그다음 시간과 서비스 신뢰였다. 선호하는 돌봄 장소는 학교 내 공간이 86.7%로 가장 높았으므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한 돌봄도 확대해야 한다. 긴급돌봄을 이용할 의사(6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돌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 5 장

아동돌봄 국내외 사례 연구

제1절 국외 돌봄 사례 분석

제2절 국내 돌봄 사례 분석

제3절 요약과 시사점

제절 국외 돌봄 사례 분석

국외 사례로는 일본과 스웨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 별로 분리되어 아동돌봄 정책을 운영하다가 2000년대 들어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이보다 훨씬 앞선 1990년대에 아동돌봄의 통합을 추진했으며 현재 매우 안정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어 통합의 가능성과 방법을 참고하고자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1. 일본

일본의 아동돌봄은 2000년대 중반까지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과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로 별도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방과 후 아동플랜’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상이한 역사를 거쳐 온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두 제도의 통합 운영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

(1) 방과 후 아동클럽의 발전과정

20세기 중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증가, 근무형태의 다양성 확대 같은 변화 속에서 방과 후 보호 등 아동돌봄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또한 1990년 합계출산율 최저치인 ‘1.57 쇼크’를 계기로 일본은 출산율 저하와 아동인구 감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자녀양육 환경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91년 ‘방과 후 아동클럽’을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대책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아동돌봄이 도시 아동 건전육성사업 내 여러 사업 중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고유사업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국가가 최초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三根佳祐, 2011).

이후 1994년에는 그 당시 중앙부처인 후생성이 주체가 되고 문부성, 노동성, 건설성 등 4개 부처가 합의한 일명 ‘에인절플랜(angel plan)’을 수립했다. 에인절플랜의 일환으로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을 개시하고 1999년까지 방과 후 아동클럽을 4,520개소에 9,000개소로 증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로써 방과 후 아동대책사업은 에인절플랜에 따라 공인받는 사업으로 성격이 크게 바뀌었고,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에인절플랜(1994~1999)은 기존의 4개 부처에 대장성, 자치성까지 더해 6개 부처 합의를 거쳐 ‘신에인절플랜(2000~2004)’으로 계승되었고, 2004년까지 방과 후 아동클럽을 1만 1,500개소로 확충할 목표를 수립했다. 이후 신에인절플랜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少子化社会対策基本法, 2003)’에 의거한 ‘저출산사회대책대강(少子化社会対策大綱, 2004)’에 따라 ‘아동·자녀양육 지원플랜(子ども・子育て応援プラン, 2005~2009)’으로 이어졌다. 이때의 목표는 2009년 1만 7,500곳으로, 이는 전국 초등학교 단위구역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현재는 ‘신설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9~2023)’하에 방과 후 아동클럽은 방과 후 아동교실(문부과학성)과 일체화 또는 연계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2) 방과 후 아동클럽의 운영기준¹⁴⁾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 실시요강’에서 제시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4) 후생노동성(2022).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실시요강"과 후생노동성(2014). "방과후 아동건전육성사업 설비 및 운영기준(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을 참고하여 작성함

① 목적

여성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 진행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여유교실, 아동관 등에서 가정, 지역 등과 연계해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② 사업 시행 주체

사업 시행 주체는 시·정·촌이지만, 시·정·촌은 시행 주체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단,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외에 방과 후 아동클럽을 운영할 때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에 신고해야 한다.

③ 대상 아동

노동, 질병, 돌봄·간호 등으로 낮 동안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약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 ‘아동·자녀양육지원제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했다. 그 외 특별지원학교(장애학교)의 초등아동도 포함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지원단위¹⁵⁾당 이용 아동 규모는 40명 이하로 한다.

④ 인력: 방과후 아동지원원과 보조원

방과 후 아동클럽 사업자는 ‘방과 후 아동지원원’을 배치해야 하고, 이는 2020년부터 의무화되었다. 방과 후 아동클럽 사업자는 이용 중인 아동 40명(이하)당 2명 이상의 방과 후 아동지원원을 배치한다. 단, 2명 이상의 방과 후 아동지원원 중 1명을 제외한 인원은 보조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개소 일수와 시간

방과 후 아동클럽의 개소 일수는 그 지역 아동의 보호자 취업 일수, 초등학교 휴업 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250일 이상으로 한다. 학기 중에는 하루 3시간 이상을, 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단, 상황에 따라 사업소별로 시간을 조정할

15)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에서는 1명 또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규모를 아동 약 40명 이하로 정하고, 이를 ‘지원단위’라고 표현함. 1개 지원단위는 ‘1개 반(class)’으로 이해할 수 있음

수 있다.

⑥ 시설·설비 기준

방과 후 아동클럽을 운영할 때는 초등학교의 여유교실이나 초등학교 부지 내 전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그 외 아동관, 탁아소·유치원 등 지역사회 자원이나 민가·아파트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클럽은 놀이와 생활의 장, 휴식공간의 기능을 하는 ‘전용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그 면적은 아동 1명당 대략 1.65㎡ 이상이어야 한다.

⑦ 규정과 예산

방과 후 아동클럽 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운영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갖춘 방과 후 아동클럽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가 제시하는 운영비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6분의 1, 보호자가 2분의 1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방과 후 아동클럽의 운영현황¹⁶⁾

2021년 방과 후 아동클럽 수는 26,925개소이다. 그중 방과 후 아동교실과 일체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5,885개소로 전년 대비 328개소 증가했다.

방과 후 아동클럽 등록아동인구는 1,348,275명이며, 2020년보다 37,267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방과 후 아동클럽을 이용할 수 없었던 대기아동 수는 2020년에 비해 2,579명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3,416명의 대기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과 후 아동클럽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립공영이 전체의 28.5%, 관이 설치하고 민이 운영하는 공립민영이 49%, 민간이 설립해 운영하는 민립 민영이 22.6%를 점하고 있었다.

설치장소는 초등학교 여유교실이 28.4%, 초등학교 내 전용시설이 25.1%로서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6) 후생노동성 보도자료(2021.05.01.). "2021년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방과 후 아동클럽) 실시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함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저녁 6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장기방학에는 오전 8시 전후에 대부분 개소했으나 종료하는 시간은 학기 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국의 시·정·촌 중 80%, 전체 방과 후 아동클럽 중 40.2%가 ‘저학년 아동 등 발달 단계적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전국 시·정·촌의 79.7%였다.

한편 대부분이 간식비 등 실비를 포함해 이용료를 받고 있다(96.5%). 이용료는 월 4,000~6,000엔 미만(27.4%)과 월 6,000~8,000엔 미만(21.2%)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간식비 등만 받는 경우는 2.6%로 낮았다.

2)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

(1) 방과 후 아동교실의 발전과정

문부과학성은 후생노동성과 별개로 방과 후 아동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초창기에는 보호자 부재 가정의 아동활동을 보조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그 시작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1975)’으로 이는 지역의 사회체육 진흥을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부성은 부재가정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멀어졌다.

1990년대 학교 중심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문부성은 ‘아동들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성인과 다양한 연령층의 교류, 풍부한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체험이 중요하다(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답신)’는 태도를 보였다. 이때부터 각 지방에서는 지역 내 성인이 지도원이 되고, 모든 아동에게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책이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 양육 환경 정비, 부모와 자녀의 활동을 촉진하는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2002년 ‘신(新)아동플랜(2002)’을 수립하는데, 이는 주5일제 시작에 대응하여 방과 후에 아동이 머물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협력

을 통해 아동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의 장과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아동교실 추진사업(2004~2006)’을 전개했다. 아동에게 친숙한 학교시설을 방과 후와 토요일에 개방하고, 희망자 누구나 이용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로써 학교 공간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아동의 활동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2007년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운영되는 문부과학성의 사업이다. 현재는 신설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9~2023)하에서 방과 후 아동교실(후생노동성)과 일체화 또는 연합화하는 형태를 추구하며 운영되고 있다.

(2) 방과 후 아동교실의 운영기준¹⁷⁾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실시요강’에서 제시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방과 후나 주말에 여유교실 등을 활용해 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학습·체험·교류의 기회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달체계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이지만, 간접보조사업¹⁸⁾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시·정·촌이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교육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스쿨(학교운영협의회제도)’을 도입해야 한다. 커뮤니티스쿨은 학교운영에 관한 지역 의견을 학교나 교육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엔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대표, ‘지역학교협동활동추진원’(이하 ‘코디네이터’)이 포함된다.

17)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2013).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실시요강(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実施要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실시요강을 참고하여 작성함

18) 국가나 현의 보조금을 시 등 중간기관을 경유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간접적으로 교부하는 사업

③ 대상 아동

방과 후 아동교실의 대상은 지역 아동 전체로, 유아·아동·학생의 일부 또는 맞벌이가정 아동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보다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중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인력

시·정·촌은 방과 후 아동교실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배치된 코디네이터는 지역과 학교, 지역학교협동본부,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추가 인력은 각 지자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중심 담당자인 협동활동지원원, 프로그램 지원이나 아동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협동활동 서포터, 장애아동의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지원공생사회 서포터, 토요일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⑤ 개소 일수와 시간

방과 후 아동교실 개소 일수와 시간은 연간 250일 미만, 1일 4시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단, 휴업일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8시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⑥ 시설·설비 기준

방과 후 아동교실이 운영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내 학교시설(일반 교실이나 여유교실, 교정, 체육관 등)을 활용한다. 다만 지역별 실정에 따라 사회교육시설 등 아동이 안전하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다.

⑦ 예산과 이용료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실시요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과 후 아동교실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경비는 중앙정부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되 지정도시와 중핵시는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시·정·촌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또한 보호자 등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표 5-1] 일본 -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 비교

구분	방과 후 아동클럽	방과 후 아동교실
부처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대상 아동	방과 후 시간에 노동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가정에 없는 초등학생	모든 초등학생
실시 주체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보호사회, 운영위원회 등	도도부현,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실시 장소	학교의 여유교실, 학교부지 내 전용시설, 아동관, 민간시설 등	학교의 여유 교실, 체육관, 아동관 등
참여 인력	방과 후 아동지원원, 보조원	교육활동지원원, 교육활동 서포터, 코디네이터, 안전관리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 시간	(학기 중) 1일 3시간 (방학 중) 1일 8시간	1일 4시간 휴업 등 필요시 1일 8시간
보조금 비율	중앙정부 1/6, 도도부현 1/6, 시·정·촌 1/6 이용자 부담 3/6	중앙정부 1/3, 도도부현 1/3, 시·정·촌 1/3

3) 아동돌봄 정책의 통합

일본은 통합적 아동돌봄을 위해 ‘방과 후 아동플랜(2007~2014)’의 수립부터 ‘신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9~2023)’에 이르기까지 방과 후 아동클럽(후생노동성)과 방과 후 아동교실(문부과학성)을 일체화, 연계화하는 종합적인 방과 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기별 통합 정책 계획과 일체형, 연계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방과 후 아동플랜

일본은 통합적 아동돌봄을 위해 방과 후 아동클럽(후생노동성)과 방과 후 아동교실(문부과학성)을 연결하는 ‘방과 후 아동플랜(2007)’을 수립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구역에서 두 가지 방과 후 초등아동 돌봄 사업을 일체화하거나 연계하도록 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추가로 방과 후 아동교실에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 후 아동클럽의 아동에게도 그 기회가 제공되도록 조정했다.

(2)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

방과 후 아동플랜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대기아동(8,689명, 2013년)이 존재했고, 방과 후 아동클럽은 오후 6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62%(2013)에 불과해 돌봄 장소의 정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 즉 ‘초1의 벽(小1の壁: 쇼이치노가베)’과 맞물려 있었다. 즉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성장의 유지를 위해 여성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5~2018)’을 공동 수립했다. 이는 방과 후 아동클럽을 2019년까지 약 30만 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정비하고, 1만 개소 이상을 일체형으로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일체형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일체형으로 정비하는 데 충실히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신설 방과 후 아동클럽의 약 80%는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와 함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민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 신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

초등아동 돌봄이 한 차례 정비되었으나, 여성의 취업률 상승으로 맞벌이가정의 아동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또한 아동복지법이 개정(2016)되면서 방과 후 아동 대책 전반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교육법 개정(2017)으로 지역과 학교의 연계,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신설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8)’이 수립되었는데,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의 내용 대부분이 신설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으로 대동소이하게 계승되었다.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 중 모든 초등학교에 일체형 또는 연계형을 운영할 것, 그중 일체형이 1만 개일 것, 신설 방과 후 아동클럽의 약 80%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할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추가로 2021년 말까지 약 25만 명 규모로 확보해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취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023년까지 약 30만 명 규모로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시·정·촌이 방과 후 아동돌봄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는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을 점검해야 한다. 이어 도·도·부·현은 아동·자녀양육지원사업계획에 관계자 연수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시·정·촌은 이에 따라 정비 과정의 목표 사업량이나 수행 방법 등을 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추가로 도·도·부·현은 초등아동 돌봄 종사자가 되기 위한 연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 두 사업의 종사자와 참여자, 교직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합동연수를 개최할 수 있다.

사회교육법 개정(2017)에 따라 신설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에서는 ‘지역학교협동활동’을 더욱 강조하여 다양한 지역의 교육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지역과 협력하기 위해 지역학교협동활동 추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설치 시 지역학교협동활동 관계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과거와 달리 신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에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장애아동 등) 대응’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년 장애아동의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을 위해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뿐 아니라 장애아동 전문기관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등하교 방법플랜(2018)’에 따라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 관계자는 아동의 내방과 귀가 시 체크리스트 활용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도 지역학교협동활동의 일환인 ‘등·하교 지켜주기’ 등 지역주민 간 연계가 추가될 수 있다.

(4) 방과 후 아동클럽 및 아동교실의 일체형과 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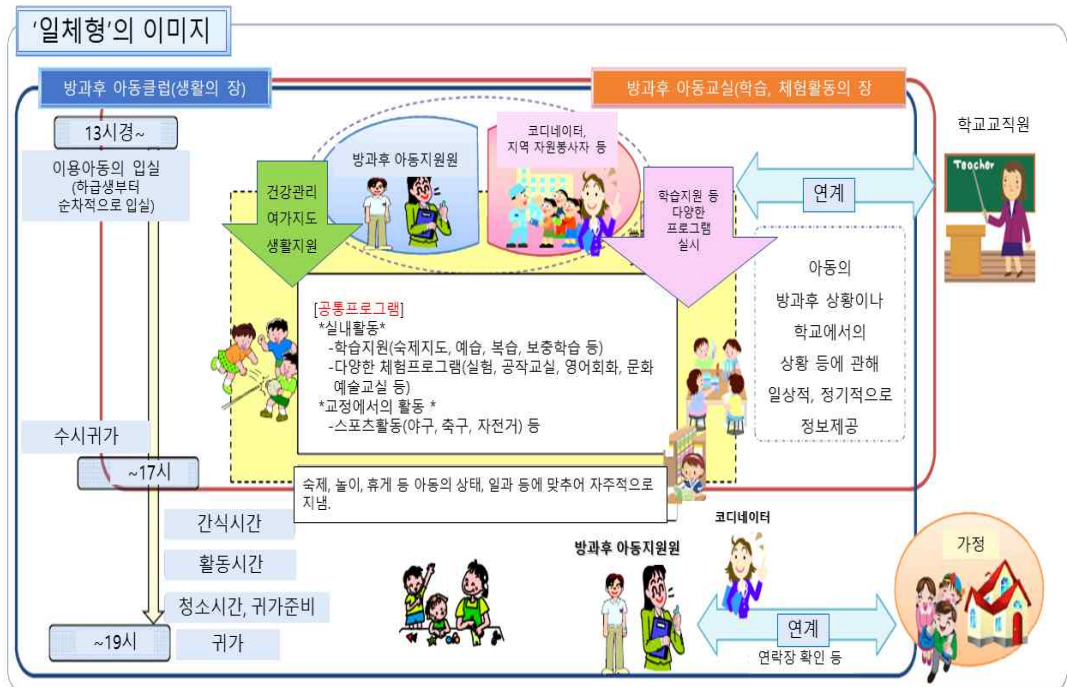
일체형은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의 활동 장소가 동일한 초등학교이고 방과 후 아동교실의 프로그램에 방과 후 아동클럽의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은 ‘방과 후 아동종합플랜(2015~2018)’부터 일체형 운영 시 일체형의 장점, 즉 같은 초등학교 내에 있어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살려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예체능활동,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다른 연령대 아동 간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연계형은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 중 하나가 초등학교 외 장소이

고, 방과 후 아동교실의 프로그램에 방과 후 아동클럽 아동이 참가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두 사업을 일체화하지 못할 때도 학교 밖에서 해당 사업을 정비할 수 있으며, 기획 단계부터 두 사업의 종사자와 참여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갈래로 나뉘었던 일본의 아동돌봄 정책이 이렇게 일체화 또는 연계화로 통합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추구한다. 먼저, 학교, 가정,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의 밀접한 연계를 매우 강조한다. 특히 두 사업을 초등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가까운 물리적 거리를 십분 활용하고, 특별한 경우 학교 관계자, 방과 후 아동클럽과 방과 후 아동교실 관계자가 상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구역마다 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학교지원 지역본부를 활용하는 등 정보와 과제를 지역, 가정과 공유해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민간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동돌봄과 지역을 연결할 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고 돌봄 공급에 기여하도록 했다.

[그림 5-1] 일본 - 일체형의 이미지



2. 스웨덴

1) 도입 배경

스웨덴의 아동돌봄 정책은 아동수당과 부모휴가 제도와 함께 가족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며 동시에 교육적 지향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목적은 단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부모가 노동과 학업, 양육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Skolverket, 2000). 즉, 스웨덴의 아동돌봄은 성평등에 기반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을 통해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서 출발한다. 아동돌봄 정책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부모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이희현 외, 2019). 이러한 스웨덴의 아동돌봄 정책은 탈가족화의 방편이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돌봄의 질적·양적 측면, 접근성 등에서 단순 돌봄 정책을 넘어 돌봄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인프라로 평가받는다(송다영, 2012). 실제로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2021년 64.4%(15~74세 기준)이며, 평균출산율은 1.7명이다(Sweden. <https://sweden.se/life/equality/gender-equality>. 접속일 2022.06.09.).

2) 추진 근거와 체계

1990년대 취학 전 교육기관(preschooling)과 초등아동 돌봄을 통합하고 그 책임이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로 이관된 이래 스웨덴의 아동돌봄 정책은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Skolverket, 2000). 따라서 스웨덴의 아동돌봄은 현재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책임 아래 통합된 체제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취학 전 영유아와 취학아동의 공적 돌봄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지만, 동일한 예산과 법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교직원이나 돌봄 교사 등 인력의 훈련, 이를 포함한 서비스 전달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OECD, 2012).

아동돌봄의 책임은 크게 교육연구부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연구부 산하의 국립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수립, 관리하는 반면 코뮌(지방정부)은 돌봄을 실제로 제공하는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이희현 외, 2019). 실제로 고등교육을 제외한 공교육은 코뮌이 관리하는데, 지역의 보육 수요·공급 관리, 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 관리·훈련, 보육료 결정, 평가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스웨덴의 아동돌봄은 코뮌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문무경, 2006).

스웨덴의 영유아와 취학아동 돌봄은 모두 교육법(Education Law, 2010:800)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거대한 교육시스템 자체에 모든 돌봄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법에 따라 규제되므로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각각의 서비스가 따라야 하는 커리큘럼 역시 교육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교육법 제 14장 제2절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는 초등·중등·특수학교, 그 밖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며, 의미 있는 여가와 놀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3절에서는 학생이 학부모의 취업·학업 또는 가정사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경우 코뮌이 방과 후 돌봄 제공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kolverket, www.skolverket.se. 접속일 2022.05.22.).

3) 돌봄 유형

(1) 프리티즈헴

프리티즈헴(Fritidshemmet)은 방과 후 학교 형식의 여가센터(Leisure center)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학령기의 만 7~12세 아동이 이용하는데, 고학년은 프리티즈클럽(Fritidsklubb, öppen fritidsverksamhet)을 이용할 수 있다. 프리티즈헴은 등록된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990년 이후부터 대부분 초등학교로 통합되어 학교 안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1년부터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와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일정 기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티즈헴을 제공할 책임은 코뮌에 있으며 학생은 다니는 학교 내 프리티즈헴 또는 가까운 곳의 프리티즈헴을 다닐 수 있는데, 이는 학교 교육을 보완할 목적이 있어 학생의 학교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Skolverket, www.skolverket.se. 접속일 2022.05.22.).

프리티즈헴의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와 다양성, 인권 존중을 바

탕으로(OECD, 2012) 놀이와 휴식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이는 스웨덴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정서나 민주시민 역량 발달을 위한 여가시간을 매우 중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프리티즈헴의 프로그램은 경험과 그룹 활동에 기초하되 그 내용은 탐구적, 실용적, 창의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 자연활동, 언어, 예체능활동 등을 포함한다(이희현 외, 2019).

현재 290개의 코뮌에 총 4,375개소의 프리티즈헴이 있으며, 총 이용인원은 480,251명이다. 평균 하나의 시설에 35.7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연령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6~8세가 약 10만 명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용 인원이 적어진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중 84%가 여기에 참여했다.(Statistics Sweden, 2015; 양애경 외, 2014 재인용)

[표 5-2] 프리티즈헴의 현황(2022년)

기준 연도	센터가 있는 코뮌	센터 수	총 이용 인원(5~12세)	센터당 이용 인원
2021~22	290개	4,375개	480,251명	35.7명

〈자료〉 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접속일 2022.05.22.)

[표 5-3] 프리티즈헴의 연령별 이용 인원(2022년)

연령별 이용 인원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431명	104,936명	107,684명	103,203명	91,882명	43,098명	20,396명	8,621명

〈자료〉 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접속일 2022.05.22.)

프리티즈헴은 학기와 방학 중에 계속 운영하지만 저녁이나 밤, 주말, 연휴에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프리티즈헴마다 이용 시간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표의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4] 프리티즈헴의 시간대별 활동 내용 예시

시간	활동 내용
6:30	아침 돌봄 시작
7:00	아침 식사 또는 간식 제공, 등교, 자유 활동 등
8:00~13:00	(정규수업 중) 교사 행정업무 수행 (아동이 하교한 경우) 휴식, 자유 활동 등
13:00~14:00	오후 돌봄 시작
14:00~15:00	오후 간식 제공
15:00~18:00	자유 활동, 자율 귀가

〈자료〉 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접속일 2022.05.22.), 이상희(2014)

앞서 언급했듯이 스웨덴은 돌봄의 책임과 함께 그 비용도 코핀에서 책임진다. 코핀의 보조금은 활동비와 인건비로 사용된다. 2019~20학년도에 프리티즈헴에 코핀이 지원한 총 비용은 19,886,111크로나(SEK)로 약 249억 5,478만 1,475원이다(2022.06.09. 기준). 그중 시립 프리티즈헴이 88.5%를, 사립 프리티즈헴이 10.8%를 차지한다. 시립 프리티즈헴의 지원금 중 활동비가 16%, 인건비가 70%를 차지한다. 결국 학부모가 프리티즈헴에 내는 이용료는 전체 예산의 17%인 것이다.

이러한 부모 부담금은 각 코핀이 가구 수입과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는데, 이때 부모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부모 부담금 상한제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상이하게 책정되는데, 첫째 자녀 일 경우, 월 소득의 2%인 1,007크로나(12만 8,604원, 2022.06.09. 기준)를, 둘째부터 셋째까지는 503크로나(6만 4,238원, 2022.06.09. 기준)를 최대로 지불한다. 넷째 자녀부터는 이용료가 무료이다.

[표 5-5] 프리티즈헴의 코핀 지원금(2022년)

구분	코핀의 지원금					부모 부담금 (%)
	총비용	사립	시립			
			총비용	활동비	인건비	
계(SEK)	19,886,111	2,150,017	17,592,258	2,892,102	12,348,780	17
비율(%)	100	10	100	16	70	-
이용 아동 당 평균 비용(SEK)	41,100	34,900	41,600	6,800	29,200	-

〈자료〉 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접속일 2022.05.22.)

[표 5-6] 프리티즈헴의 부모부담금 상한제 기준

자녀	상한 비율	상한액(SEK)
첫째	월 소득의 2%	1007
둘째	월 소득의 1%	503
셋째	월 소득의 1%	503
넷째부터 무료		

〈자료〉 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접속일 2022.05.22.)

(2) 프리티즈클럽

프리티즈클럽(Fritidsklubb, öppen fritidsverksamhet)은 10~12세 아동이 참여하는 방과 후 돌봄센터이다. 프리티즈헴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참여 아동에게 학습은 물론이고 다양한 여가와 놀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프리티즈헴과 달리 프리티즈클럽은 학교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서 교육법에 따른 일정한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명시된 경우에만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프리티즈클럽에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프리티즈클럽은 1990년대 초까지 활발히 운영되었으나, 한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코뮌이 예산 절감 방책으로 운영을 중단했다(황선준, 2013). 따라서 2020년 기준 290개의 코뮌 중 프리티즈클럽을 운영하는 코뮌은 50곳뿐이다. 그와 함께 이용을 위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공식 통계가 부족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코뮌에 따라 제공 장소나 프로그램이 다양한 편이다(황선준, 2013).

프리티즈클럽의 프로그램은 프리티즈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고학년에 적합해야 한다. 음악, 체육, 연극, 미술 등 예체능활동을 할 수 있다(이희현 외, 2019).

지자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든 프리티즈클럽은 ‘스웨덴 학교 감찰단(Tillsynens omfattning; Swedish School Inspectorate)’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지와 시설 환경, 특히 학대 여부를 감독한다.

[표 5-7] 스웨덴 - 프리티즈헴과 프리티즈클럽 비교

구분	프리티즈헴	프리티즈클럽
부처	교육연구부-국립교육청(교육법)	
대상 아동	만5~12세	만10~12세
실시 주체	코뮌(자치체), 초등학교	
실시 장소	대부분 초등학교 내	
참여 인력	유아교사, 보조교사, 여가지도교사	
운영 시간	시설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6:30~18:00을 운영	시설마다 상이
운영 현황	290개의 코뮌에서 총 4,375개 운영 센터당 평균 35.7명 이용 중	50개의 코뮌에서 운영 중 이용등록을 하지 않아 공식통계가 없음
비고	커리큘럼과 운영에 있어서 교육법을 따르며, 학교 시스템에 포함됨	교육법의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 운영 가능하며, 학교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음.

4) 인력¹⁹⁾

2011년 교사 양성 시스템을 개혁하여 학위 취득을 통한 전문과정을 도입해 인력의 기준을 높였다. 주요 인력으로 유아교육교사(Förskollärare), 자유시간교사(Fritidspedagog)가 있다. 둘 다 실습 12주를 포함한 3년 6개월(140주)의 대학교육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이다. 유아교육교사는 9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과 보호를 전반적으로 배우고, 아동발달, 가족사회학, 교수법 등을 학습한다. 자유시간교사는 학령기 아동의 육아지원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동일하게 발달심리학, 가족사회학, 교수법, 창의 활동 등을 학습한다. 이들은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지만 필요시 학교의 다른 교사와 협력하고, 정규수업을 지도할 수도 있다(최윤경 외, 2015). 그 외에 자유시간 리더교육 교사(Fritidsledarutbildning)가 근무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았거나 대학 교육을 받았으나 학위를 받지 못한 교사이며, 별도의 양성 과정을 이수한다(황선준, 2013).

1일 8시간씩, 1주에 40시간을 근무한다. 일반적인 돌봄 기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1시간 이상이지만 교대 또는 시간차 근무를 통해 교사당 8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정해진 근로시간 중 일부는 교사의 필요에 따라 행정

19) 명칭의 번역은 황선준(2013)을 참고함

과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일 경우 여기에 별도로 능력개발 시간이 추가된다(최윤경 외, 2015).

유아교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23,858크로나, 자유시간교사의 평균 급여는 23,131크로나로 유아교육교사의 급여가 조금 더 높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급여는 27,255크로나로, 유아교육교사보다 12.5%를, 자유시간교사의 15.1%를 더 받고 있다. 유아교육교사의 평균 연령은 33.8세, 평균 경력은 7.1년으로 3개 직업 중 가장 낮다. 자유시간교사의 경우, 평균 35세, 경력은 8.4년이다(Lonestatistik. <https://www.lonestatistik.se>. 접속일 2022.05.18.).

[표 5-8] 스웨덴의 교사별 급여 비교

구분	평균 급여	중간 급여	평균연령	평균 경력
자유시간교사(Fritidspedagog)	23,131kr	23,900kr	35세	8.4년
유아교육교사(Förskollärare)	23,858kr	24,690kr	33.8세	7.1년
초등학교 교사(Grundskolelärare)	27,255kr	26,880kr	38.7세	9.8년

2021~22학년도 프리티즈헴의 전체 직원 4만 117명 중 정규직 교사는 2만 3,510명으로 여성이 68.3%, 남성이 31.7%이다.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1인당 담당 학생은 12명이지만, 정규직 교사만으로 담당 학생 수를 계산하면 20.4명이다.

한편 정규직 교사 중 교육학대학 학위 보유자가 36.9%인데, 자유시간교육학(fritidspedagogexamen) 21.9%, 유아교육학(förskollärarexamen) 7.7%, 초중등교사학(lärarexamen) 학위 7.3%이다. 그 외의 교육학 전공자가 6.7%, 사회복지학 등 전공자가 10.2%, 자유시간 리더교육 양성 과정 수료자가 4.6% 정도이다. 나머지 41.5%는 기타 분야의 교육을 받았다(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 접속일 2022.05.22.). 기타 분야 교육을 받은 직원의 비율이 2012~13학년도 27%에서 2021~22학년도 42.2%로 많이 증가한 반면에 교육학대학 학위를 보유한 직원의 비율은 53.6%에서 36.4%로 크게 감소했다(Skolverket, 2022). 프리티즈클럽의 경우, 2021~22학년도에 1,120명 미만이 종사했으며, 그중 정규직 교사가 714명이다. 14% 미만이 자유시간교육학, 유아교육학, 초중등교사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12%가 자유시간 리더교육 양성 과정을 수료했다(Skolverket, <https://www.skolverket.se>. 접속일 2022.05.22.).

제2절 국내 돌봄 사례 분석

우리나라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아동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동돌봄에서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돌봄 특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함으로써 고양시의 아동돌봄 지원 모델 구축에 참고하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²⁰⁾

1) 정의와 주요 연혁

서울시는 모든 초등아동의 집 근처에서 정기·일시·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저녁·주말 돌봄서비스와 함께 마을돌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의 초등아동 돌봄 시설의 공간적, 인적, 물적 자원을 보완하는 서울만의 촘촘한 초등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목적을 갖고 2018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아동돌봄담당관이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그다음 해에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 단일임금 체계를 따르도록 했으며, 키움포털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 노력으로 2021년까지 모든 유형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약 250개소 설치되었고, 종사자의 채용자격 기준에 따른 호봉인정 기준을 개선하여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2022년까지 282개소의 센터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 운영 원칙과 방식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이 주도하고 창의성과 자신감 증진을 목표로 하며 아동끼리

20) 서울특별시(2022). “2022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을 참고함

리 협력하는 경험을 중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아동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 수요 기반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지역의 아동돌봄 수요를 지역이 함께 해결하고 이를 위해 공적 자원과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바탕으로 아동에게는 방과 후 놀이와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BL은 일방적인 돌봄이나 학습과 다른 성격으로, 아동이 스스로 제안한 프로젝트를 다른 친구들과 협력,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한 교육 방법이다.

3)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유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3개 유형으로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다. 아동의 집 또는 학교와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서 안전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소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말한다.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다. 일반형에 추가로 아침, 저녁(석식 제공), 주말(토) 돌봄을 제공한다. 그리고 융합형 센터장이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마을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즉, 마을돌봄 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이다. 조리실을 직접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다. 정기돌봄은 하지 않되 일시돌봄과 연계돌봄을 제공한다. 마을돌봄 기관(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인적·물적 자원의 틈새를 지원하고, 예체능 중심의 프로그램에 특화된 대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이다.

[표 5-9]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비교

항목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설치주체	지자체장(구립)	지자체장(구립)	지자체장(시립)
규모	80㎡ 이상(小규모)	210㎡ 이상(中규모)	1,000㎡ 이상(大규모)
현황 (2021까지)	218개	27개	5개
기능	돌봄기능	마을연계기능	연계돌봄(마을돌봄 기관 아동주도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지역통합돌봄 플랫폼 기능
특성	집·학교 인근 도보 10분 거리 설치	저녁(석식), 주말(토)돌봄 제공 마을단위 돌봄 네트워크 운영 돌봄 사각지대 발굴	지역대표 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공간 및 마을돌봄자원 지원 돌봄통합지원 (돌봄정보안내, 네트 워크 지원)
대상	만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권역 내 돌봄 기관 지역주민
돌봄형태	정기돌봄 일시돌봄(통새·긴급)	정기돌봄 일시돌봄(통새·긴급)* *아침, 저녁, 주말(토) 돌봄 포함	일시돌봄(통새·긴급) 연계돌봄*(권역 마을돌봄 기관) *돌봄공간, 콘텐츠, 자원 등 이용
내용	아동중심 ‘놀이’와 ‘심’ 지원 PBL(Project-Based Learning) 자율운영		문화·예술·체육 활동 콘텐츠 지원 놀이중심 메이커스 기반 활동 지원 PBL 기반 거점별 특화지원
운영시간	(학기 중, 월~금) 13~19시 (방학 중, 월~금) 09~18시	(학기 중, 월~금) 13~20시 (방학 중, 월~금) 08~20시 ※ 토요일 4시간 이상 필수 운영	(학기 중, 월~금) 13~21시 (방학 중, 월~금) 08~21시 ※ 토요일 8시간 필수 운영
인력	(19인 이하) 2명 (20인 이상) 2~3명	(29인 이하) 4명(조리사 포함) (30인 이상) 4~5명(상동) ※ 센터장: 마을돌봄조정관 역할	시설 규모에 따라 25명 내외
이용료(간 식비 포함)	정기돌봄: 월 5만원 이내 일시돌봄: 일 2,500원 이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		일시돌봄: 일 2,500원 이내 연계돌봄: 무료
급식	수익자부담(방학 중) ※ 석식제공 필요시 융합형 연계	무료 ※ 조리실 직접 운영	일시돌봄: 수익자 부담 연계돌봄: 급식 미제공

〈출처〉 2022년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p.37

4) 추진체계

첫째, 서울시장, 시·교육청·자치구 소관 국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협의회가 있다. 실무협의회의 안전이나 서울의 돌봄 수요를 분석하여 연간 재원의 배분계획을 심의한다.

둘째,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이다. 부단체장(국장), 시교육(지)청 소관 국장, 교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고, 안전이나 상정요청 건 등의 심의 외에 해당 구의 돌봄 기관 확충과 예산 집행 계획을 결정한다.

셋째, 마을돌봄협의회로, 마을돌봄 조정관, 마을돌봄 기관, 돌봄 종사자, 학교돌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돌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 간 이용 아동이나 자원을 연계할 방법을 논의한다. 서울에만 있는 마을돌봄 조정관을 자세히 설명하면, 이는 융합형의 센터장이 맡게 되는데, 마을돌봄 기관별 수급을 조정하고, 아동 중심으로 돌봄을 연계, 조정한다. 마을 연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세부 내용을 사업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업무분장도 함께 담당한다. 이렇게 마을 연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을돌봄 기관뿐 아니라 학교돌봄 기관, 유관기관 모두가 원활히 소통해야 하므로 최소 분기별 1회 모임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²¹⁾

노원은 중위소득 맞벌이가정이 많아 보편적인 아동돌봄 요구가 많았다. 이에 노원구는 서울의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더해 소규모형, 공간나눔형, 시간나눔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착형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휴(休)센터’ 브랜드를 구축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9명)을 꾸려 아동친화도시, 아이휴센터, 지역아동센터, 밥상돌봄 아동식당, 아픈아이돌봄 등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노원구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유희공간(관리동 등), 전세 아파트, 교회나 성당의 유희공간, 기존의 지역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마을커뮤니티, 경로당 등을 활용한 것이다. 그중 특이한 지점은 전세 아파트와 종교시설의 활용인데, 세부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세 아파트의 경우, 가정형 어린이집처럼 아파트 1층에 자리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실과 협의 후 해당 라인 50%의 동의, 특히 옆집, 윗집의 동의가 필수이다. 그다음으로 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회와 협의한 다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건물 무

21) “2021 국회 온종일돌봄 토론회 아이들을 위한 공적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상사용 계약서 등 협약을 체결한다. 아동돌봄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이 끝나면 센터를 개소한다.

노원구의 두 번째 특징은 아픈아이돌봄과 밥상돌봄이다. 아픈아이돌봄은 환자의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12세의 아픈 아동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병원비와 약제비는 본인 부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 동행의 경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인력이 2인 1조가 되어 전용 차량으로 병원에 동행한 다음 복약 지도와 귀가를 지원한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병상돌봄의 경우,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 별도의 공간에서 상주 간호사가 환아를 간호하고 복약과 가벼운 오락활동을 지도한다. 도시락과 간식이 있다면 해당 센터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아동 상태별 간호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픈아이돌봄은 노원구의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건물 중 1개 층에 자리해 있다.

노원구 아동돌봄은 밥상돌봄(아동식당) 사업을 운영한다.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 아동의 결식을 해결하는 대안이자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을 결합한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 저녁식사(17~18시)와 방학 중 점심식사(12~13시)를 제공한다. 1식에 3,500원이며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노원구의 아동식당은 3곳인데, 모두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속한 조리실을 활용한 것이다. 융합형은 기본으로 조리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노원구는 보다 확장하여 아동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 그 외 지자체

첫째, 서울시 중구는 9개의 국공립초등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 모두 직접 운영하고 있다. 중구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이를 직영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담당 인력의 처우도 일반적인 상황보다 좋은 편인데, 교실당 돌봄전담사가 2명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이들이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이라 호봉 승급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된다. 여기에 돌봄보안관, 하교도우미, 보조인력이 추가될 수 있다(아시아경제, 2021.06.07.). 구 직영이므로 방과 후 돌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침과 저녁에도 돌봄

을 제공하여 운영시간이 일반 초등돌봄교실보다 긴 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특징도 있다(정연주, 2022.02.16.).

둘째, 경기 성남시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설계했다. 센터에서 조리실을 운영하고, 센터 이름에 ‘어린이식당’을 붙여 해당 특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식에 5,000원이며 학기 중에는 석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틈새(아침)돌봄과 일시돌봄이 가능한데, 일시돌봄을 받을 때는 하루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운영시간이 20시까지여서 별도로 저녁돌봄이라고 구분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필요시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3개교에서 학교돌봄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급식만 이용이 가능하고 방학 중 급식 이용 시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학기 중 학교돌봄터는 19시까지 운영하지만, 방학 중에는 20시까지 운영하여 저녁시간에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이승미, 2022.03.15.; 김영철, 2022.03.28.).

셋째, 경기 오산시는 다함께돌봄 사업에 관해 ‘함께자람’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시돌봄을 제공하는 센터와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센터를 별도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상시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19시까지 제공하고, 틈새돌봄은 학기 중 아침과 방학 기간 오전에 마을 내 여러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의 경우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를 통해 프로그램과 마을강사를,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통해 급·간식을 제공받는 등 마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오산시 시정 브리핑, 2021.03.09.).

오산시 아동돌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픈아이119돌봄지원’이다. 아픈 초등학생에게 아이돌보미를 연 60시간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을 무상으로 받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돌보미사업 중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것이며, 노원구처럼 병원 갈 때 동행하고 환아만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지만, 별도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일대일 돌봄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신창균, 2021.04.29.).

넷째, 울산 울주군은 초등학교에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독특한 운영 방식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아동센터의 신뢰도를 높이되 편견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라는 공적 공간을 민간이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낮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교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운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교내의 인력이나 물적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돌봄을 제공할 필요를 줄여 학교나 교직원들은 교육의 질 향상에 더 집중하는 효과도 얻는다(박성준, 2021).

다섯째, 전남의 광양시는 다양한 돌봄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가족돌봄팀’을 신설하고 ‘광양아이키움센터’라는 통합 명칭으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온종일돌봄센터,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 과로 나뉘어 집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분산되었던 아동돌봄을 하나로 합쳐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움직임은 이용자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윤별, 2021.01.17.).

또한 광양시는 방학 중 광양아이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저학년에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는 ‘광양아이 키움 밥상’ 사업을 진행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비용을 지원했으며 광양시니어클럽이 조리과 배달을 맡아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연합뉴스, 2021.01.26.).

여섯째, 전라북도 완주군은 주민이 ‘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을 시행하고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은 지원, 협력하는 돌봄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을은 자치 역량을 지닌 교육공동체가 되어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이 마을강사로 활동하고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한다. 한편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은 마을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강사와 학교를 연계하는 노력을 한다. 이로써 학교는 본래의 목적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 현재 고산면, 소양면, 상관면 등 3곳에 풀뿌리지원센터가 있으며, 관내의 52개교를 대상으로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처럼 완주군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에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이다(자치분권위원회, 2021.11.05.;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교육협력지구 홈페이지, <https://office.jbedu.kr/wjco-edu/M010205/> 접속일 2022.05.12).

[표 5-10] 국내 사례 비교

지역	서울 중구	경기 성남시	경기 오산시
이름	중구형 초등돌봄	어린이식당	함께자람
내용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지자체가 초등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함	정기돌봄 외에도 일시돌봄이나 시설에서 급식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함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름이 '어린이식당' 일만큼 아동의 끼니 해결에 적극적	상시돌봄(함께자람센터), 틈새돌봄으로 구분하여 운영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프로그램 및 마을강사), 사회적경제협의회(급·간식) 등 마을자원과 연계
사업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부서	교육아동청소년과 돌봄지원팀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팀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
운영	직영	민간위탁	직영, 민간위탁
인력	교실당 돌봄전담사 2명: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호봉승급, 정년 보장) 그 외: 돌봄보안관, 하교도우미, 보조 인력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2명, 조리사 1명	상시돌봄: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3명(4시간 근무) 틈새돌봄: 마을강사, 마을활동가 등 활용
현황	9개 국공립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전부	다함께돌봄센터: 23개 *2022년까지 32개로 확충 계획 학교돌봄터: 3개교	상시돌봄: 20개 틈새돌봄: 7개
운영 시간	7시 30분~20시	다함께돌봄센터 (아침) 7시 반~9시 반 (학기 중) 11시~20시(석식) (방학 중) 9시~20시(중·석식) 학교돌봄터 (학기 중) 방과후~19시(학교별 상이) (방학 중) 9시~20시	상시돌봄 (학기 중) 13시~19시 (방학 중) 9시~19시 틈새돌봄 (학기 아침) 7~9시 (방학 오전) 8시~13시
이용	무료 급·간식 제공 자유로운 입퇴실 가능	다함께돌봄센터 월 10만원 이내(주5일 이용료 5만원+급간식비 5만원) (일시)돌봄/식당: 일 5천원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별도(간식 2천원, 방학 중 급식(중·석식) 6천원)	무료 급·간식 제공(비용 별도) 자유로운 입퇴실 가능
기타	기업(신세계, 두산관리본부, 티알엔 등)의 사회적 책임사업을 연계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음	-	아픈아이119돌봄지원: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가 법정 전염병 및 질병에 걸려 등원하지 못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제공-무상(연 60시간 이하)

지역	울산 울주군	전남 광양시	전북 완주군
이름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	광양아이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다들·온돌센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내용	언양초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신뢰도 상승, 편견 완화, 임대료와 운영비 절감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팀을 신설하고 광양아이키움센터라는 통합 명칭을 부여, 취학아동 방과 후 돌봄을 일원화	풀뿌리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마을이 교육공동체가 되어 방과후 돌봄 교육을 제공,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은 마을강사를 양성하고 학교와 매칭
사업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여성가족과 가족돌봄팀	교육아동복지과
운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 주도(위탁) - 관 지원
인력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급식도우미 1명	다함께돌봄: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2명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 1명, 돌봄인력	마을강사
현황	울주군 내 18개 지역아동센터 중 1개만	13개	관내 모든 학교(52개)를 지원 고산, 소양, 상관 3개 지역에 센터 운영
운영 시간	(학기 중) 10시~19시 (방학 중) 8시~17시	온종일 다함께돌봄센터 (학기 중) 13시~19시 (방학 중) 9시~18시 공동육아나눔터 (학기 중) 13시~20시 (방학 중) 9시~18시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함
이용	무료/급간식 제공	무료/급간식 제공	-
기타	학교-지역아동센터 간 협약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방학 중 광양아이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광양아이 키움 밥상’을 제공. 포스코%나눔재단이 후원, 광양시니어클럽이 담당. 센터 10개소의 이용 아동 260여 명	완주교육협력지구 구축-학교, 교육청, 학부모 및 마을, 완주군청의 협력 지역에서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지역의 자원을 적극활용하여 지역 교육환경의 한계를 극복

제3절 요약과 시사점

국내외의 방과 후 아동돌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통합된 체제를 구축했으며 초등학교를 돌봄서비스에 개방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아동돌봄은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과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로 구분되지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시·정·촌이 아동돌봄을 통합 관리 운영한다. 또한 신설 방과 후 아동클럽의 80%는 초등학교 내에 설치한다는 목표가 있으며 2023년 총리 직속 아동가정청이 설치되고 그 예산을 2배로 증액할 예정이다(매일경제, 2022.06.25.). 이처럼 꾸준히 두 개의 아동돌봄 정책을 통합하는 중이다. 스웨덴은 교육연구부와 교육법으로 중앙부처와 관련 법률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코뮌이 방과 후 돌봄을 지역의 상황에 따라 주도하여 추진한다. 이러한 체제는 아동돌봄 정책 운영에 안전성과 일관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돌봄 시스템 자체가 학교 시스템에 포함되므로 프리티즈헴은 교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와 매우 상반되는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 각각 아동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다 높여 일원화된 아동돌봄 체제를 구축하고, 초등학교를 돌봄 장소로 선호하는 보호자가 많으므로 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

둘째, 아동돌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학교에 다니는 부모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으며, 2001년부터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부모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휴직 중이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녁 6시 이후 돌봄은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동 문화가 충분히 조성된 것도 스웨덴 아동돌봄의 특징이다. 또한 아동의 관점과 건강한 발달을 최우선으로 삼아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야외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토론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며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가정에서 퇴근 후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한국의 노동 문화는 스웨덴과 상이할 뿐 아니라 변화하기까지 시간적 소요가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은 보호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돌봄 이용 기준을 보다 넓히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동돌봄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아동의 관점과 욕구가 정책 내용에 더욱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사례를 통해 지자체 주도하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센터 유형을 규모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급뿐 아니라 돌봄 기관 간 연계도 책임진다. 또한 영유아부터 취학아동까지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 지역 시설 등을 하나의 포털에서 소개하여 이용자가 정보를 찾기 쉽게 했다. 노원구는 아픈 아동의 돌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했으며, 아동식당을 운영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식사는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 중구는 지자체가 직접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틈새돌봄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교 내 돌봄에 관한 지자체의 적극성을 보여준 예로 돌봄을 위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n호점 ○○어린이식당) 아동 편의상 식사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급식비(1식 5,000원)를 받는다. 그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를 23개나 운영하여 틈새 없는 돌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오산시는 상시돌봄과 틈새돌봄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마을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아픈 아동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 내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단점을 많이 해결한 사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양시의 경우, 아동돌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담당 부처를 단일화하고 광양아이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전북 완주군은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지역 구성원을 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한다.

이상 사례의 강점을 고양시에 적용하여 학교와 협업하에 지자체 중심의 아동돌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기관을 연계·지원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일시·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아동식당이나 아픈 아이 돌봄 등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며 마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연계해야 한다.

제 6 장 정책제언

제1절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제절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

본 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아동돌봄에 대한 욕구와 문제점의 대응책으로 고양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1. 아동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

1)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 파악 및 돌봄 공급계획 수립

현재는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를 통해 아동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나 조사의 응답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아동돌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와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고양시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출산율 감소로 학령기 아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므로 아동돌봄 수급 정책을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공급을 지체 없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추후 아동 수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으나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돌봄서비스가 고학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돌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 집과 학교, 돌봄 기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족한 공급기관을 늘리는 것이 옳다. 추후 아동인구가 감소하겠지만,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용 아동이 줄어들면, 아동돌봄 기관을 노인돌봄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다양한 형태의 돌봄 기관 마련

공적 돌봄으로서 아동돌봄은 아동권 보장과 부모의 양육권, 노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이 행복하게 돌봄을 받을 권리에 관심이 소홀한 채 부모가 돌볼 수 없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의 확대에만 관심을 가졌다(이희연, 권택환, 2021).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기관을 마련하여 욕구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혼자 이동이 어렵고 안전에 관한 욕구가 높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학교 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례 관리, 학업 지원 등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아동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 동네의 또래와 소통하고 충분한 놀이를 즐기며 지역주민에게서 안정적인 돌봄을 원하는 아동을 위해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돌봄을 실행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3) 돌봄 기관 확대

(1)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현재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중산 다함께돌봄센터, 대화 다함께돌봄센터, 원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경기도 인구 유사 지역인 수원시는 11개소, 성남시는 23개소, 용인시는 11개소를 운영 중이다. 즉, 고양시의 돌봄 수요와 다른 지자체 현황을 고려할 때 그 수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규공동주택 설치 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생활SOC 사업, 사회복지센터, 복합체육시설 내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고양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6㎡ 이상의 전용면적 확보라는 설치기준을 충족할 적합한 공간을 찾기가 힘들고, 주택지역과 기존 아파트지역의 경우 설치가 더딜 개연성이 높아 보다 적극적인 확충 계획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2) 학교 내 돌봄 체계 확대

고양시 아동돌봄연구회가 2021년 진행한 아동돌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선택기준은 1순위가 ‘안전’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돌봄장소는 학교 내 공간이었다. 국외 사례 중 일본은 후생노동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클럽과 문부과학성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교실의 일체형을 추진하며 신설 방과 후 아동클럽의 80%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스웨덴도 대부분 아동돌봄 기관을 초등학교 내에 두고 있을 만큼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돌봄의 경우 등교부터 돌봄 후 하교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학교라는 한곳에서 머문다면 아동이 지루해하고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이 확보되며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학부모의 선호도와 시설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동들의 지루함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교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에서, 스웨덴은 코뮌에서 아동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어 연계와 조정이 수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마을돌봄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사업 간 연계가 쉽지 않다.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신규 설치보다 기존 돌봄교실의 전환을 원하는 한편 공무원인 초등돌봄전담사 재배치 등의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학교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학교 내 여유 공간에 초등돌봄교실 또는 학교돌봄터 등 돌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고양시 공동체 돌봄 정책 마련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관산동, 주엽1동, 중산동, 일산1동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3년만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 이후의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이라 지자체 의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마을돌봄의 대표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용면적이 각각 82.5㎡, 66㎡ 이상, 아동 1인당 3.3㎡ 이상이어야 한다는 시설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할 만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정부 사업은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 비용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설립을 통해 돌봄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와 달리 아동돌봄공동체의 경우 최소 설치면적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마을 내 소규모 유휴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 아동이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감 있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관의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주민이 함께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 마을에 대한 애착과 연대 의식을 높인다는 점,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특성상 지역에 맞게 돌봄 대상의 연령, 인원, 운영시간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사업과 별도로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공동체 돌봄 체계를 제도화하고 정책적 지원으로 아동, 부모,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아동돌봄의 양적, 질적 확장을 위하여 돌봄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돌봄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기관 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마을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 급·간식 서비스의 재료 공급이나 도시락 제작, 아동 픽업 차량 지원 등에서도 지역 내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에 관심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노인 등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교육해 연계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2. 돌봄서비스 확대

1) 일시·긴급·틈새 돌봄 확대

현재 돌봄 기관은 대부분 상시서비스 체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일시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약을 통해 하루 단위로 돌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소수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야간, 주말 돌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병간호서비스(예시: 고양시 아픈 아동 돌봄)

아동이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법정 전염병 등 질병에 걸려 등원하지 못할 때 아이돌보미를 일정 시간 무상으로 파견하여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산시의 ‘아픈아이 119 돌봄지원’은 연 60시간 이하로 병원 동행과 재가돌봄을 제공한다. 고양시도 일정 시간을 아픈 아동에게 병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식당 운영

맞벌이 부부에게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 챙기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지역 내 아동이 일정 식재료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영양가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동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식당은 지역 아동의 결식을 막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아동과 부모가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문제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돌봄 교사는 상담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동이 전문가에게 정서적, 심리적 상담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5) 돌봄 기관 야외활동 지원

대부분의 돌봄 기관에서 인력과 야외공간 부족으로 야외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아동의 야외활동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 기관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야외활동을 지도하는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돌봄 종사자 양성과 지원

1) 돌봄 종사자의 체계적 교육과 양성

돌봄 종사자는 돌봄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돌봄 기관과 종사자 역할에 대한 가치 정립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으로 발생하기 쉬운 소진(Burn-out)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서 지원과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돌봄 확대를 위하여 공동체돌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돌봄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대부분의 아동돌봄 종사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별 고용보장과 급여 등에서 차이가 있어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 종사자의 임금을 고양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임금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3) 돌봄 교사 근무시간 연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시간제 돌봄 교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초등돌봄교실의 시간제 돌봄 교사는 6시간 등 근무시간이 매우 짧아 업무 종료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돌봄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질 높은 아동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행정업무 간소화

현재 아동돌봄 관련 서류 작성, 보고 등 행정업무가 많아 돌봄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체 돌봄 기관의 행정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4. 아동돌봄 모델 구축과 이용자 접근성 강화

1) 고양시 아동돌봄 모델 구축

다양한 부처(부서) 소관, 공급기관의 연계성 부족, 지역 편차, 돌봄 공백, 돌봄 공간의 부족 등 고양시 아동돌봄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고양시 특성에 맞는 아동돌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학교돌봄, 마을돌봄, 가정방문 돌봄 등 정부 주도의 돌봄사업과 공동체 중심의 돌봄사업을 아동 욕구 중심으로 조성하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아동돌봄 사업을 통합지원할 수 있는 아동돌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고양시 아동돌봄 인식 제고를 위한 돌봄 브랜드화

고양시 아동돌봄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아동돌봄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돌봄 모델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학부모 대부분이 아동돌봄서비스 중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정도만 인지하고 있을 뿐, 그 외 돌봄 기관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양시 아동돌봄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의 ‘우리동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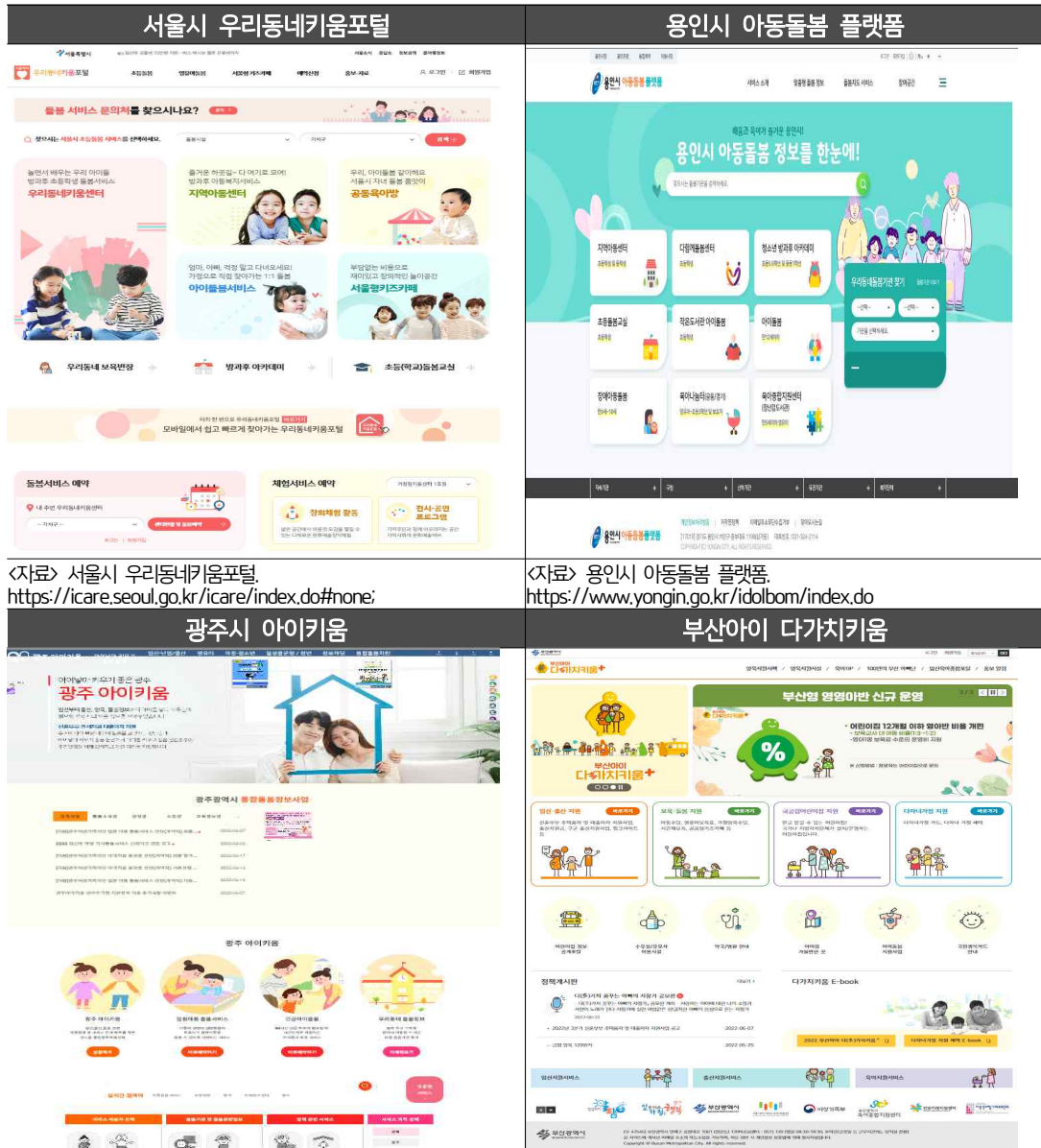
움센터’, 시흥시의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오산시의 ‘함께자람’, 서울 노원구의 ‘우리동네 아이 휴 센터’와 같이 고양시 아동돌봄을 브랜드화(예시: 고양아이 행복센터)할 필요가 있다.

3) 고양시 아동돌봄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과 운영

고양시 아동돌봄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아동돌봄공동체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한곳에서 볼 수 있는 PC와 모바일 접속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 포털’, 용인시의 ‘용인시 아동돌봄 플랫폼’, 광주시의 ‘광주아이키움’, 부산시의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등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을 추진하면서 정부24 또는 복지로 등에서 아동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너무 많은 정보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돌봄 기관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양시 역시 개별적인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에는 영유아부터 초등아동까지 포괄하는 돌봄서비스 소개, 상세한 시설 정보, 돌봄서비스 온라인 예약, 아동 출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과 관련한 교육, 생활정보, 지도정보, 정책자료, 아동돌봄 기관 홍보자료, 아동돌봄 게시판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임신, 출산, 육아, 돌봄 관련 다양한 정보도 담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아동돌봄 정보 전달과 접근성을 비롯해 돌봄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돌봄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 지자체 아동돌봄 통합 정보 플랫폼 운영 사례



〈자료〉 광주시 아이키움 <https://www.gwangju아이키움.kr/main#>

〈자료〉 부산아이 다가지키움 플랫폼
<https://www.busan.go.kr/childcare/index>

5. 아동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1) 아동돌봄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역 편차가 큰 고양시의 아동돌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양시 아동돌봄지원센터 설립(1안) 또는 시청 조직 내 아동돌봄 전담부서 마련(2안)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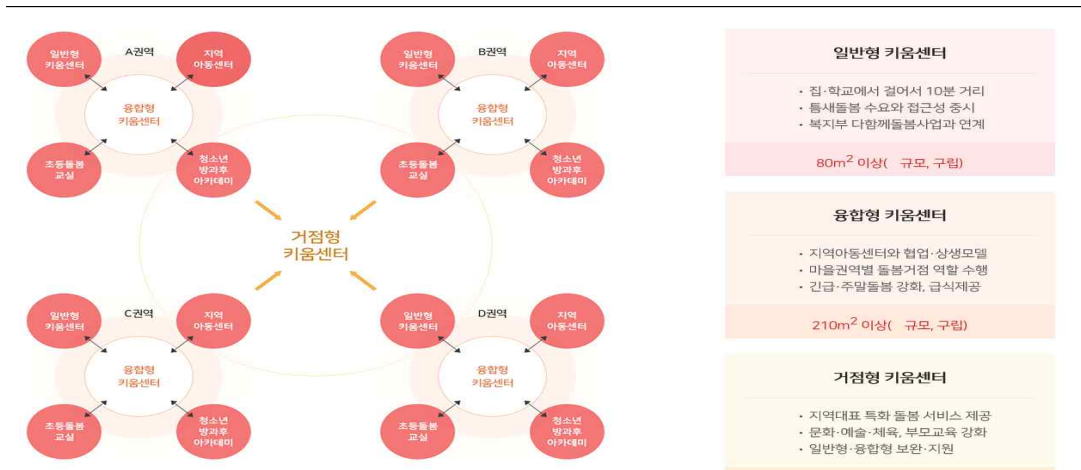
(1안) 고양시 아동돌봄지원센터 설립

고양시 전역의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로 아동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 형태는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하게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가 있다.

①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

서울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 거점형에서 지역 돌봄 기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거점형은 3곳이 있는데, 거점형 키움센터 1호점(노원·도봉권), 2호점(동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0년부터 위탁 운영한다. 3호점(종로·서대문권)은 2021년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표 6-1]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역할



거점형 키움센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돌봄 기관의 허브 역할 • 아동 주도 창의적 문화·예술·창작 체험활동의 장 • 심리·정서 지원 및 아동·부모 상담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일시·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 권역의 마을돌봄 기관 틈새 보완(교구재, 차량, 놀이공간, 급간식 등 지원 + 운영 콘텐츠 지원) • 종사자 프로그램(교육 및 워크숍, 소진 대비 마음건강 프로그램, 전문역량 향상 교육 등)
-------------------	--

〈자료〉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

② 대전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손오공)

‘손오공’은 2020년 4월부터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정보 종합 플랫폼 운영(대전아이), 돌봄활동가 양성과 배달강좌 파견, 돌봄공동체 지원과 거점온돌방 운영, 부모 역할을 위한 교육과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6-2]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역할



〈자료〉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daejeoni.or.kr>

③ 광주시 키움지원단

광주시 키움지원단은 광주광역시 돌봄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수행과 모니터링, 서비스 매뉴얼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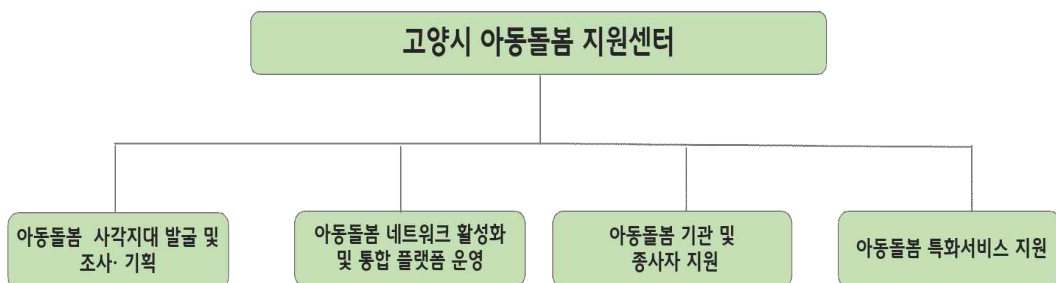
[그림 6-3] 광주시 키움지원단 역할



〈자료〉 광주시 키움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gjwf.or.kr>

이들 사례처럼 고양시도 아래의 기능과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 아동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해 컨트롤타워로서 고양시의 아동돌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양시민사회복지재단이 향후 설립된다면 재단에서 아동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센터의 기능



[표 6-2] 고양시 아동돌봄 자원센터의 기능별 세부 사업

기능	세부 사업
아동돌봄 시각지대 발굴 및 조사·기획	① 아동돌봄 시각지대 발굴 ② 수요·공급조사 및 공급 우선 지역 및 입지 지정 ③ 아동돌봄 기관 확충을 위한 조사 및 개발 ④ 고양시 아동돌봄 중장기 및 시행계획 수립 ⑤ 고양시 아동돌봄 질 제고를 위한 연구 ⑥ 아동돌봄관련 서비스 및 매뉴얼 개발
아동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아동돌봄 통합플랫폼 운영	① 지역돌봄협의체, 지역돌봄실무협의체 활성화 지원 ② 아동돌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③ 아동돌봄서비스 기관 연계 ④ 고양시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⑤ 민간자원 개발
아동돌봄 기관 및 종사자 지원	① 아동돌봄 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② 아동돌봄 종사자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지원 ③ 아동돌봄 대체인력 교육 및 지원 ④ 공동체돌봄활동가 양성 ⑤ 아동돌봄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아동돌봄 특화서비스 지원	① 긴급돌봄 및 틈새돌봄 운영 ② 아동식당 운영 ③ 아동 카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④ 아동 심리 정서 프로그램 운영(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⑤ 아동 병간호서비스 운영(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2안) 아동돌봄 전담부서 설치

현재 고양시는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센터,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에서 아동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용인시, 성남시, 오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아동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돌봄 전담팀을 두고 있는 것처럼 고양시도 파편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사업을 통합해서 수행할 아동돌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아동돌봄 전담부서에서는 아동돌봄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아동돌봄 전반에 걸친 조사·기획, 네트워크 활성화와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돌봄협의체 활성화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청, 돌봄사업 관련 단체,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돌봄협의체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 지역돌봄협의체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구성되며 지역 돌봄 운영계획 수립, 돌봄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와 조정,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과 정보공유 협의, 컨설팅을 수행한다. 아직 운영이 본격화되지 못한 고양시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역돌봄실무협의체 설치 및 활성화

지역돌봄협의체의 하위 조직으로, 돌봄 기관 간 적극적인 연계를 위하여 구 단위로 돌봄 기관의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 전문가 등 현장 실무자 협업체계로서 마을 중심의 돌봄실무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4) 행정구별 아동돌봄 협업 거점센터 지정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등 행정구별로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중 하나를 아동돌봄 협업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아동돌봄공동체 등 돌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점센터장은 마을돌봄네트워크 담당관이 되며 거점 중심의 지역돌봄실무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한다.

다음은 지금까지 제시한 아동돌봄 활성화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정리한 고양시 아동돌봄 로드맵이다.

[그림 6-5] 고양시 아동돌봄 로드맵



제2절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1. 아동돌봄 지원 방향

[그림 6-6]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방향



1) 보편성: 보편적, 사회적 돌봄의 패러다임 적용

소득수준, 맞벌이 여부, 다자녀 유무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돌봄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한다.

2) 다양성: 아동 중심의 다양한 돌봄 유형 마련

아동의 욕구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도록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아이돌봄 등), 가정 방문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마련한다.

3) 접근용이성: 인프라 확대, 아동돌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주 생활공간인 집, 학교 근처의 일정 거리 내 돌봄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을 확대해야 하고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아동돌봄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통합성 및 연계성: 아동돌봄지원센터 및 거점센터 설치

여러 아동돌봄 담당 부서와 지역 내 다양한 돌봄 기관을 연계, 통합하며 아동돌봄의 수요 공급 등 종합적인 수급 관리 등 종합계획 수립,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을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 그리고 행정구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마을 내 연계를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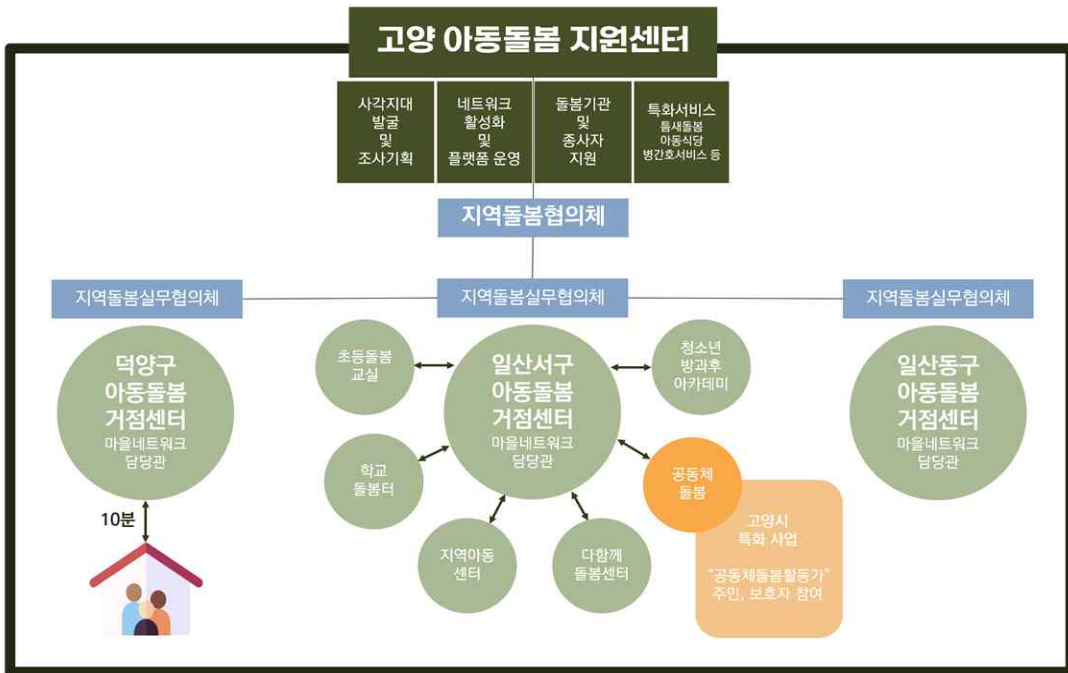
5) 충분성: 틈새, 일시, 긴급돌봄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의 질 향상

돌봄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틈새, 일시,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아동식당 운영, 병간호서비스, 아동 심리 정서 프로그램 운영, 아동 실내 놀이터와 아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2.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6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한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6-7] 고양시 아동돌봄 지원 모델



첫째, 돌봄 기관은 아동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도보 10분 거리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을 마련한다.

둘째, 지역 내 아동과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기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돌봄 기관과 함께 ‘공동체 돌봄’을 고양시 돌봄특화기관으로 활성화한다. 공동체 돌봄은 아동이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감 있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주민이 함께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여 마을에 대한 애착과 연대 의식을 높일 수 있어 돌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공동체 돌봄의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는 ‘공동체돌봄활동가’의 양성을 지원한다.

셋째,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행정구별(덕양구, 일산동구, 일산

서구) 또는 권역별(덕양남부, 덕양북부,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아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한다. 거점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아동돌봄의 허브로써 돌봄 기관 간 연계 협력을 주도하고 해당 거점의 센터장은 ‘마을네트워크담당’관 역할을 맡는다. 거점센터는 학교·마을 돌봄 기관의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지역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돌봄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돌봄실무협의체의 상위 기구로 ‘지역돌봄협의체’를 둔다. 지역돌봄협의체는 교육지원청, 돌봄 사업 관련 단체, 시의원,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고,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수립,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넷째, 고양시의 촘촘한 아동돌봄 특화서비스로 돌봄 틈새를 해소한다. 등교 전, 방학, 주말, 야간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틈새 돌봄을 확대한다. 그리고 돌봄 기관은 돌봄 기관 이용 아동뿐 아니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에게 예약제로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식당(급식서비스)’을 운영한다. 이 외 아동이 갑자기 아프는데 보호자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법정 전염병 및 질병에 걸려 등원하지 못할 때, 아이돌보미를 일정 시간 무상으로 파견하여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역 편차가 큰 아동돌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고양시 아동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돌봄 컨트롤타워로 ‘고양시아동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고양시아동돌봄지원센터는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아동돌봄 기관 수요-공급 분석,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연구 및 서비스 매뉴얼 개발 등을 담당한다. 또한 아동돌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며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리고 아동돌봄 기관 모니터링과 컨설팅, 종사자 교육과 대체인력 지원, 공동체돌봄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양성 등을 통해 아동돌봄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한다. 또한 틈새 돌봄, 아동식당, 아동 문화프로그램, 심리 정서 프로그램, 병간호 서비스 등 아동돌봄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2021 국회 온종일돌봄 토론회-아이들을 위한 공적돌봄 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발표자료. 강지원(2017). 지역아동센터 재정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접근성과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4(1), 115-147.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2021). 2022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안내.
- 경기도 도서관정책과(2021). 2022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계획.
- 경기도(2021).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경기도교육청(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판
- 관계부처 합동(2018).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계획.
-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 관계부처합동(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관계부처합동(2021).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학교돌봄터 사업-교육부(2021.08.04.).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 발표
- 김송이, 이경란, 염혜경(2021). 어린이집 '함께돌봄' 가치 확산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남승연, 이경민(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 마경희(2010).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한국사회정책, 17(3), 319-348.
- 문무경(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개발 센터.
- 보건복지부(2022a). 2022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2b). 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서울특별시(2022). 2022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송다영(2012). 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 24(3), 1~33.
- 양계민, 조혜영(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이 참여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학업성취요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2(1), 61-92.
- 양애경, 정현용(2021). 국외 선진 방과 후 활동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연구. 방과후학교연구, 8(2) 1-36
- 여성가족부(2021). 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여성가족부(2022).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이상희(2014). 스웨덴, 미국, 우리나라의 초등 방과후 학교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현 외 11인(2019). 해외 방과후돌봄정책 사례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현, 권택환(2021).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유형별 주요 의제 분석: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돌봄 지원 체제 확립. 한국교육개발원.
- 임의영(2019). 공공성의 도덕철학적 기초: A. Smith의 공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7(2), 35-69.
- 장수정, 송다영, 백경흔(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251-287.
-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최영(2022). 아동돌봄 서비스 공공성 담론과 관련 쟁점. 아동돌봄 정책 포럼.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최윤경, 김윤환, 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II):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최희경(20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8, 31-58.
- 홍나미, 정익중(2019).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론. 사회복지연구, 50(3), pp.5-31.
- 홍선미(2022). 통합돌봄의 경험과 성과,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제. 월간 복지동향, 279, 5-9.
- 황선준(2013). 스웨덴의 방과 후 활동과 시사점.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14, 245-272.
- Kittay, E.(2016).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 나상원 역. 박영사.

Tronto, J.(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역. 박영사.

[해외문헌]

후생노동성(2022).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 실시요강

후생노동성(2014).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 설비 및 운영기준(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후생노동성 보도자료(2021.05.01.). 2021년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방과 후 아동클럽) 실시 현황.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2013). 방과 후 아동교실 추진사업 실시요강(放課後児童健全育成事業実施要綱).

Skolverket(2000). *Child Care in Sweden*.

Skolverket(2022). *Elever och personal i fritidshem*.

OECD(2012). *Start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Publishing.

Fisher, Bernice and Tronto, J.(1990). *Toward a feminist theory of caring, 35-62, in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edited by Abel, E., and Nelson, M.,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Engster, D.(2007).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Noddings, N.(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ly, M. and Lewis, J.(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기타자료]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fterschool.go.kr/>. (접속일 2022.05.11.)
- 권형진(2021.10.11.). 논란의 돌봄 새모델 '학교돌봄터' 신청, 목표의 6.5% 그쳐. <https://www.news1.kr/articles/?4396819>
- 스웨덴. <https://sweden.se/life/equality/gender-equality>. (접속일 2022.06.09.)
- Skolverket. www.skolverket.se. (접속일 2022.05.22.)
- Lonestatistik. <https://www.lonestatistik.se>. (접속일 2022.05.18.)
- 아시아경제(2021.06.07.). 서울 중구 모든 국공립초등학교 '중구형 초등돌봄' 대열 합류.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0706233022182>
- 정연주(2022.02.16.). 서울 중구, 초등돌봄교실 신입생 모집 흥행...신청률 125%. <https://www.news1.kr/articles/4587035>
- 이승미(2022.03.15.). [썩~1분 복지정보]성남시의 방과후돌봄, 어디까지 아시나요?. 성남시청. <https://www.snbokji.net/5939>
- 김영철(2022.03.28.). 성남시, 성남형 돌봄시설 '학교돌봄터 3호점' 업무 협약.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32823>
- 신지윤(2021.07.22.).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센터 1학기 종료 간담회 개최. 뉴스신. <http://www.newsshin.co.kr>
- 오산시 시정 브리핑(2021.03.09). 오산시 새학기 초등돌봄에 자체육성 마을강사 본격투입. 오산시청.
- 신창균(2021.04.29.). “코로나19 양육 공백 해소”... 오산시, ‘아픈아이119 돌봄 지원’ 확대.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6137>
- 박성준(2021). “용인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인시정연구원
- 윤별(2021.01.17.). 광양아이키움센터로 취학아동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시민신문. <http://www.gycitize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5>
- 연합뉴스(2021.01.26.). 광양시, 방학 기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210126007400353>
- 자치분권위원회(2021.11.05.).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문제 스스로 해결.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7054&PID=photo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교육협력지구

홈페이지

<https://office.jbedu.kr/wjco-edu/M010205/> (접속일 2022.05.12.)

정재훈(2018.09.06.) ‘초등돌봄 절벽’이 앞에 있는데.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061029392466>

김호준(2022.06.15.) 일본 '아동가정청'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4월 신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6/524093/>

부 록

[부록 1]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및 현황조사 [아동용]

[부록 2]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및 현황조사 [학부모(보호자)용]

고양형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모델 개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및 현황조사

[아동용]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시와 함께 「고양형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그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응답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조사번호		조사일시		조사자명	
아동이 현재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 (이하 '돌봄 기관')		<input type="checkbox"/> 1) 초등돌봄교실 <input type="checkbox"/> 2) 학교돌봄터 <input type="checkbox"/> 3) 다함께돌봄 <input type="checkbox"/> 4) 지역아동센터 <input type="checkbox"/>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 응 답 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학년	<input type="checkbox"/> 1) 1학년 <input type="checkbox"/> 2) 2학년 <input type="checkbox"/> 3) 3학년 <input type="checkbox"/> 4) 4학년 <input type="checkbox"/> 5) 5학년 <input type="checkbox"/> 6) 6학년
	다니는 학교	_____ 초등학교

2-1. 현재 이용하는 돌봄 기관을 다니기 전에,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기관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2-2. 부모님(보호자)께서 돌봄 기관을 다니고 싶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2-3. 돌봄 기관을 다니기 전에 본인은 이 기관을 다니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찬성했습니까?

매우 반대함	반대함	보통	찬성함	매우 찬성함
①	②	③	④	⑤
→ 2-4번으로 이동		→ 3번으로 이동		

2-4. (반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기관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①
2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②
3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③
4	집에서 너무 멀어서	④
5	기타()	⑤

3. 돌봄 기관부터 집까지 갈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매우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함	매우 안전함
①	②	③	④	⑤

4.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하루 평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짧음	짧음	적당함	길	너무 길
①	②	③	④	⑤

5. 이용 중인 돌봄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약간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려함	매우 그려함
접근성	집에서 가깝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놀기에 공간이 충분함	①	②	③	④	⑤
시설 및 편의성	교재, 장난감 등이 충분함	①	②	③	④	⑤
	기관이 안전하고 편안함	①	②	③	④	⑤
돌봄 선생님	돌봄선생님께서 충분히 돌봐주심	①	②	③	④	⑤
	돌봄선생님이 친절하심	①	②	③	④	⑤
	숙제나 준비물 잘 챙겨줌	①	②	③	④	⑤
서비스	급간식이 맛있게 잘 나옴	①	②	③	④	⑤
	아플 때 돌봄선생님이 병원에 같이 가주심	①	②	③	④	⑤
권리	내가 원하는 것을 돌봄선생님께 편하게 말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돌봄선생님은 나의 건의 사항을 잘 받아들이심	①	②	③	④	⑤
프로 그램	공부 지도에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예체능 활동에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체험활동에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 사항	이 기관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음	①	②	③	④	⑤
	기관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냄	①	②	③	④	⑤
	이 기관에 다녀서 더 건강해짐	①	②	③	④	⑤
	이 기관에 다닌 이후로 더 행복해짐	①	②	③	④	⑤

6. 이용 중인 돌봄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이용하는 돌봄 기관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자랑스럽지 않은 편	보통	조금 자랑스러움	매우 자랑스러움
①	②	③	④	⑤

8-1. 돌봄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 9-1번으로 이동	→ 8-2번으로 이동

8-2.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중학교에 진학해서	①
2	돌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3	기관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4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④
5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서	⑤
6	집에서 너무 멀어서	⑥
7	기타()	⑦

9-1. 현재 학원, 학습지, 과외 등을 다니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 9-2번으로 이동	→ 10번으로 이동

9-2. 돌봄 기관과 학원/과외 등(예시: 피아노, 영어)을 같이 다니는 것이 공부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어디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상관없음(어디든 괜찮음)	①
2	학교	②
3	학원 등	③
4	돌봄 기관	④
5	집	⑤

11. 돌봄 기관에서 하루에 얼마나 머무는 것이 좋습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하루 1시간 미만	①
2	하루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②
3	하루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③
4	하루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④
5	하루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⑤
6	하루 5시간 이상	⑥

12. 돌봄 기관에서 만난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상급생(오빠, 언니, 형, 누나)	①	②	③	④	⑤
2	동급생(동갑 친구)	①	②	③	④	⑤
3	하급생(동생)	①	②	③	④	⑤

13. 만약 돌봄을 받아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의 돌봄이 가장 마음에 듭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학교 안에서 받는 돌봄	①
2	지역의 기관에서 받는 돌봄	②
3	집에 돌봄선생님이 오는 돌봄	③
4	경로당 등 지역공간에서 동네 어른에게 받는 돌봄	④
5	이웃과 부모님(보호자)가 돌아가며 돌봄	⑤
6	친척(할머니 등)이 오시거나 직접 그 집에 가서 받는 돌봄	⑥

14. 어른이 집에서 밥이나 간식을 챙겨주기 어렵다면, 어디서 끼니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도시락	근처의 일반식당	아동 전용 식당	편의점	기타
①	②	③	④	()
*아동 전용 식당은 아동만 이용하는 동네의 식당으로, 자유롭게 오가며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15. 만약 집에서 돌봐줄 사람(부모님 등)이 있다면, 돌봄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16. 집에서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도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입니다.

구분	문항	응답
1	하루 1시간 미만	①
2	하루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②
3	하루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③
4	하루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④
5	하루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⑤
6	하루 5시간 이상	⑥

17. 현재 이용하는 돌봄 기관이 주는 도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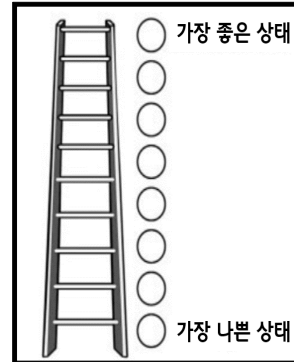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집 밖에서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함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생활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줌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해줌	①	②	③	④	⑤
4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해줌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됨	①	②	③	④	⑤

18. 돌봄 기관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19. 돌봄 기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20.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삶에서 가장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가장 나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본인이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바닥 ←————→ 꼭대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고양형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모델 개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및 현황조사

[학부모(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고양시와 함께 「고양형 아동돌봄 활성화 전략 및 지원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그중 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작성해 주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평안과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조사번호		조사일시		조사자명	
------	--	------	--	------	--

- **아동** = 초등 1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 **아동돌봄서비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방과후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예)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등
- **돌봄 기관** =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를 통칭함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 자녀 중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출생연도	_____ 년도 (만 _____ 세)
	학력	<input type="checkbox"/> 1) 무학 <input type="checkbox"/> 2) 초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4) 고등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5) 대학교 졸업(전문대학 포함) <input type="checkbox"/> 6)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에 표시해 주세요.
	아동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1) 부 <input type="checkbox"/> 2) 모 <input type="checkbox"/> 3)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4) 친인척 <input type="checkbox"/> 5) 기타()

2. 주택형태		<input type="checkbox"/> 1)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2)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3) 다세대 주택 <input type="checkbox"/> 4) 연립 <input type="checkbox"/> 5) 기타()					
3. 거주지역 *2021년의 행정동으로 응답	일산서구	① 대화동	② 송산동	③ 송포동	④ 일산1동	⑤ 일산2동	⑥ 일산3동
		⑦ 주엽1동	⑧ 주엽2동	⑨ 탄현동			
	일산동구	① 고봉동	② 마두1동	③ 마두2동	④ 백석1동	⑤ 백석2동	⑥ 식사동
		⑦ 장항1동	⑧ 장항2동	⑨ 정발산동	⑩ 중산동	⑪ 풍산동	
	덕양구	① 고양동	② 관산동	③ 능곡동	④ 삼송동	⑤ 성사1동	⑥ 성사2동
		⑦ 원신동	⑧ 주교동	⑨ 창릉동	⑩ 행신1동	⑪ 행신2동	⑫ 행신3동
⑬ 행주동		⑭ 화전동	⑮ 화정1동	⑯ 화정2동	⑰ 효자동	⑱ 흥도동	
⑲ 대덕동							
4. 가족 형태	동거가족 수	본인 포함 (명)					
	가족 유형	<input type="checkbox"/> 1) 부모+자녀 <input type="checkbox"/> 2) 부+자녀 <input type="checkbox"/> 3) 모+자녀 <input type="checkbox"/> 4) 조(부)모+부모+자녀 <input type="checkbox"/> 5) 조부모+한부모+손자녀 <input type="checkbox"/> 6) 조부모+손자녀 <input type="checkbox"/> 7) 기타 (구체적으로:)					
	가족 특징 *중복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1) 맞벌이가구 <input type="checkbox"/>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input type="checkbox"/> 3)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4) 장애 및 건강보호학생 가정					
5. 자녀 특성	자녀 수	_____ 명					
	자녀 연령	<input type="checkbox"/> 1) 첫째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2) 둘째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3) 셋째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4) 넷째 만 _____ 세					
6.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 단위: 만원)		<input type="checkbox"/> 1) 1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11) 1,000만원 이상					

7-1. 부	출생연도	_____년도 (만_____세)	<input type="checkbox"/>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비동거 → 7-2번으로 이동
	종사상 지위	<input type="checkbox"/> 1)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2)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3)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4) 프리랜서 <input type="checkbox"/> 5) 임시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6)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무직(주부, 학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이 없어도 계속 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로서,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을 포함 •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무급가족종사자: 가족의 자영업을 위해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근로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 		
	평균 실제 근무시간	_____시부터 _____시까지 <i>*근로를 위해 평일에 집을 비우는 시간을 말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야근 등의 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십시오</i>	

7-2. 모	출생연도	_____년도 (만_____세)	<input type="checkbox"/> 별거,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비동거 → 8번으로 이동
	종사상 지위	<input type="checkbox"/> 1) 고용주 <input type="checkbox"/> 2)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3) 상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4) 프리랜서 <input type="checkbox"/> 5) 임시일용근로자 <input type="checkbox"/> 6) 무급가족종사자 <input type="checkbox"/> 7) 무직(주부, 학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이 없어도 계속 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로서,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을 포함 • 임시일용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무급가족종사자: 가족의 자영업을 위해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근로시간의 1/3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 		
	평균 실제 근무시간	_____시부터 _____시까지 <i>*근로를 위해 평일에 집을 비우는 시간을 말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야근 등의 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십시오</i>	

8. 현재 이용 중인 돌봄 기관을 표시해 주세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③	④	⑤

9-1. 돌봄 기관을 이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를 골라주세요.

구분	문항	응답
1	시설이 깨끗하고 넓어서	①
2	학교 및 집과 가까워서	②
3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③
4	급간식을 제공해서	④
5	기관이 믿음직스러워서	⑤
6	돌봄 교사의 자질과 인품이 좋아서	⑥
7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⑦
8	원하던 다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⑧
9	자녀가 원해서	⑨
10	기타 ()	⑩

9-2. 돌봄 기관을 이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①	②	③	④	⑤

9-3.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횟수는 평균 얼마나 됩니까?

※ 학기와 방학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문항	학기 중	방학 중
0	해당 없음	①	①
1	1주일에 5일 이상	①	①
2	1주일에 3~4일	②	②
3	1주일에 1~2일	③	③
4	1개월에 1~2회	④	④
5	비정기적으로	⑤	⑤

9-4. 돌봄 기관을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이용하십니까?

※학기과 방학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문항	학기 중	방학 중
0	해당 없음	①	①
1	하루 1시간 미만	①	①
2	하루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②	②
3	하루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③	③
4	하루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④	④
5	하루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⑤	⑤
6	하루 5시간 이상	⑥	⑥

9-5. 돌봄 기관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응답해주세요.

구분	문항	응답
1	시청의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①
2	해당 기관의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②
3	정부 홈페이지를 보고	③
4	인터넷 매체(카페, 블로그 등)를 보고	④
5	동내에 센터가 생긴 것을 직접 보고	⑤
6	언론매체(TV, 신문, 잡지 등)를 보고	⑥
7	친구나 이웃이 알려줘서	⑦
8	학교에서 알려줘서	⑧
9	주민센터 직원(공무원 등)이 알려줘서	⑨
10	지역 내 복지관에서 알려줘서	⑩
11	기타 ()	⑪

10-1. 돌봄 기관의 등원(교)과 하원(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학과와 방학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문항	학기 중	방학 중
등원	자녀 혼자 걸어서	①	①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②	②
	돌봄 교사 등 외부인과 함께 걸어서	③	③
	학원 차량, 버스 등 교통수단을 타고	④	④
	기타 ()	⑤	⑤
하원	자녀 혼자 걸어서	①	①
	부모·조부모 등 가족과 함께 걸어서	②	②
	돌봄 교사 등 외부인과 함께 걸어서	③	③
	학원 차량, 버스 등 교통수단을 타고	④	④
	기타 ()	⑤	⑤

10-2. 돌봄 기관부터 집까지 자녀 기준으로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10분 미만	①
2	10분 이상 ~ 20분 미만	②
3	20분 이상 ~ 30분 미만	③
4	걸어서 다닐 수 없음(차로 이동함)	④

11-1. 위 돌봄 기관에서 급간식을 이용하십니까? ※학과와 방학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분	문항	학기 중	방학 중
1	예	①	①
2	아니오	②	②

11-2. 급간식, 프로그램 이용료 등 개인 부담 비용을 포함한 월평균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응답
한 달 평균 _____ 원

12-1. 이용하는 돌봄 기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접근성	이용 가능 시간이 충분함	①	②	③	④	⑤
	이동 거리(집-기관)	①	②	③	④	⑤
	이동 시 차량 지원	①	②	③	④	⑤
	자유로운 이용 (아동의 자유로운 출입, 일시/긴급돌봄 등)	①	②	③	④	⑤
	이용료	①	②	③	④	⑤
돌봄 기관 및 편의성	아동 1인당 충분한 공간	①	②	③	④	⑤
	교재 및 교구	①	②	③	④	⑤
	돌봄 기관의 안전 및 안락함	①	②	③	④	⑤
인력	돌봄 교사의 전문적 역량	①	②	③	④	⑤
	돌봄 교사의 인성(돌봄에 적합한지)	①	②	③	④	⑤
	돌봄 교사 1인당 아동의 수	①	②	③	④	⑤
서비스	등하교(원) 동행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숙제 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①	②	③	④	⑤
	급간식 제공	①	②	③	④	⑤
	병원 동행 및 아픈 아이 돌봄 제공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교과목 보충학습	①	②	③	④	⑤
	예체능 활동	①	②	③	④	⑤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인식	기관의 다른 아동과 자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기관에 대한 주변의 시선	①	②	③	④	⑤

12-2. 귀하께서 이용하는 돌봄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언제까지 해당 돌봄 기관을 이용하실 예정이십니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초등학교 졸업까지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이용하는 돌봄 기관이 자녀에게 다음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1	안전한 보호	①	②	③	④	⑤
2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정서 안정	①	②	③	④	⑤
4	학습 태도 및 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15. 돌봄 기관 이용이 가정의 교육비 감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도움 안 됨	도움 안 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아동돌봄서비스로써 다음 각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등하교(원) 동행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	종료 후 이동 편의 제공 (예: 집/학원까지 동행 또는 차량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숙제 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①	②	③	④	⑤
4	급간식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병원 동행 및 아픈 아이 돌봄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교과목 보충학습	①	②	③	④	⑤
7	예체능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17-1. 귀하의 자녀는 현재 학원, 방문학습 등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 17-2번으로 이동	→ 18-1번으로 이동

17-2. 사교육 관련하여 다음 세부 항목에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항목	응답
1	현재 총 몇 가지의 사교육을 이용합니까? (예) 태권도 주5일 다닐 경우, 1가지로 계산	_____개
2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원

17-3. 사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돌봄 기관에서 자녀가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①
2	돌봄 기관의 학업 지도가 부족해서	②
3	아동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길 원해서	③
4	아동이 원해서	④
5	기타 ()	⑤

18-1. 사교육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①	②
→ 18-2번으로 이동	→ 19-1번으로 이동

18-2. 사교육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병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사교육 장소와 돌봄 기관 간 거리가 멀어서	①
2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②
3	돌봄 기관의 이용 시간과 사교육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③
4	자녀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해서	④
5	기타 ()	⑤

19-1. 학기 중에 자녀가 시간대별로 어떤 형태의 돌봄을 받는지 응답해주시요.

*돌봄 기관 및 서비스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공동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분	아동 혼자 있음	가족이 돌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사교육	귀가	기타	
07:00~09:00	①	②	③	④	⑤	⑥	
학교 정규 수업							
13:00~15:00	①	②	③	④	⑤	⑥	
15:00~17:00	①	②	③	④	⑤	⑥	
17:00~19:00	①	②	③	④	⑤	⑥	
19:00~21:00	①	②	③	④	⑤	⑥	

19-2. 방학 중에 자녀가 시간대별로 어떤 형태의 돌봄을 받는지 응답해주시요.

*돌봄 기관 및 서비스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공동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구분	아동 혼자 있음	가족이 돌봄	돌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사교육	귀가	기타	
07:00~09:00	①	②	③	④	⑤	⑥	
09:00~11:00	①	②	③	④	⑤	⑥	
11:00~13:00	①	②	③	④	⑤	⑥	
13:00~15:00	①	②	③	④	⑤	⑥	
15:00~17:00	①	②	③	④	⑤	⑥	
17:00~19:00	①	②	③	④	⑤	⑥	
19:00~21:00	①	②	③	④	⑤	⑥	

20. 다음의 돌봄 기관 및 서비스를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동안 (1) 알고 있었는지, (2)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구분	문항	(1) 인지 여부		(2) 이용 여부	
1	초등돌봄교실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2	학교돌봄터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3	다함께돌봄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4	지역아동센터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6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프로그램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7	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방문)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8	공동육아나눔터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9	사설 기관(학원, 문화센터 등)	알고 있음()	모름()	예()	아니오()

21-1. 귀하께서는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 21-2번으로 이동	→ 22번으로 이동

21-2.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했던 이유와 돌봄 공백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이유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어렵지 않음	별로 어렵지 않음	보통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자녀가 아플 때	X	①	②	③	④	⑤
조부모 등 평소 돌봐주던 사람이 부재할 때	X	①	②	③	④	⑤
평소 가던 돌봄 기관이 휴원하는 때	X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개고기념일 등으로 인해 휴교하는 때	X	①	②	③	④	⑤
오전/야간 또는 휴일 업무가 생기는 경우	X	①	②	③	④	⑤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맡길 곳이 없을 때	X	①	②	③	④	⑤
야간에 비공식 모임이 있을 때	X	①	②	③	④	⑤
집안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X	①	②	③	④	⑤

21-3. 긴급한 상황에서 주로 누가 아동을 돌보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맡길 곳이 없어서 아동이 혼자 있음	①
2	부모 중 한 명이 맡아서 돌봄	②
3	조부모 등 가족이 돌봄	③
4	주변 이웃이나 친구에게 맡김	④
5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 서비스를 이용함	⑤
6	돌봄 기관에 맡김	⑥
7	기타 ()	⑦

22. 돌봄 공백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생긴다면, 1회 평균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
1회 평균 _____ 원

23-1. 아동이 자유롭게 오가며 저녁 및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아동 전용 식당이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①	②

23-2. (이용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24. 보호자가 없어서 자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못 가거나 늦게 간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②

25. 앞으로 고양시가 효과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돌봄 기관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것	①
2	기존 돌봄 기관의 시설환경 개선	②
3	돌봄 교사 인력 보충	③
4	돌봄 기관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	④
5	일시/긴급 상황의 돌봄 공백을 메꾸는 틈새돌봄서비스 추가	⑤
6	동행 및 차량 지원 같은 이동 서비스 추가	⑥
7	아동 전용 식당 추가운영	⑦
8	돌봄 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 홍보	⑧
9	기타 ()	⑨

26-1. 선호에 따라 다음의 돌봄 방식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해주시요.

구분	문항	1순위	2순위
1	학교 내 돌봄 기관 (예시: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①	①
2	지역 내 돌봄 기관 (예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②	②
3	가정 방문형 (예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베이비시터)	③	③
4	지역 내 돌봄 공동체 (아동돌봄에 관심 있는 이웃에게 돌봄을 받음)	④	④
5	육아 품앗이 (이웃과 돌아가며 돌봄)	⑤	⑤

26-2. 위의 1순위 돌봄 방식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와 2순위 이유를 답해주시요

구분	문항	1순위	2순위
1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①	①
2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이 쉬움	②	②
3	우수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	③	③
4	학교 또는 집과의 접근성이 좋음	④	④
5	서비스 이용이 유연함(자유로운 등원, 일시/긴급돌봄 가능 등)	⑤	⑤
6	급간식을 영양 있게 제공해서	⑥	⑥
7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⑦	⑦

27. 지역 내 아동돌봄을 위한 추가 공간을 마련한다면 다음 중 어디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구분	문항	응답
1	공공건물의 유휴공간 활용	①
2	초등학교의 유휴공간 활용	②
3	아파트를 임대하는 형태	③
4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활용	④
5	상가 내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	⑤
6	기타 ()	⑥

28. 고양시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1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의 양이 충분함	①	②	③	④	⑤
2	고양시 아동돌봄서비스의 질(수준)이 만족스러움	①	②	③	④	⑤
3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쉬움	①	②	③	④	⑤
4	원한다면 돌봄 기관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29. 아동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고양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30-1.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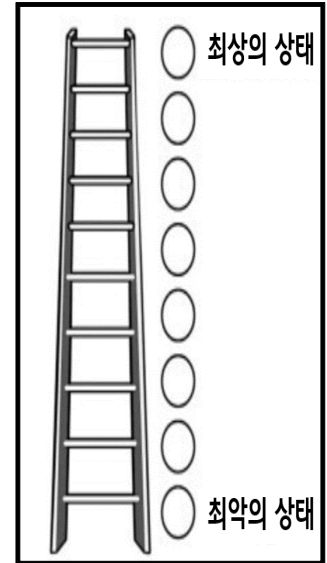
사다리의 꼭대기는 귀하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귀하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귀하는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바닥 ←————→ 꼭대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0-2. 같은 조건의 사다리입니다.

현재 귀하의 자녀는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닥 ←————→ 꼭대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Activation Strategy and Support Model Development for Childcare in Goyang City

Junghwa Moon*, Kiok Seong**, Seunga 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ategy and support model for childcare in Goyang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hildcare in Goyang.

This study proceed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hildcare and the current state of childcare policy.

Second, the current state of childcare in Goyang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population, delivery system and manpower, business status, and supply and demand analysis.

Third,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childcare in Goyang,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atisfaction and desire of 240 children and 240 parents who used childcare in Goyang, and FGI was conducted with parents who did not use childcare and childcare workers and experts. In addition, various secondary data were analyzed to derive needs and problems for childcare in Goyang.

Forth, overseas cases of Japan and Sweden, which are making efforts to overcome service fragmentation in childcare, were analyzed, and cases of local governments that were carrying out local government-specific projects to promote childcare were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upply rate of childcare in Goyang is 11.65%, which

*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 Research Director, Research Director, Life and Welfare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Associate,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is ver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demand and there is also a large regional variation. (2) childcare programs are fragmented and operated in various departments, and there is no dedicated organization to integrate them. (3) There is also a lack of connection with each institution. (4) Temporary care, interstitial care, and emergency care are also insufficient because only limited institutions provide them. (5)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quality of care, is poor. In addition, various childcare needs and problem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childcare activation strategy in Goyang city is as follows.

First, the childcare infrastructure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childcare services, such as strengthening temporary care and emergency/niche care, nursing care for children, operation of a children's restaurant, support for expert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support for outdoor activities at caring institutions. Third, support for childcare workers is needed, such as systematically nurturing childcare workers and improving the wage system.

Fifth,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control tower for childcare and activate the consultative body. To build a comprehensive childcare control tower, the Goyang Children's childcare Support Center can be established or a department dedicated to children can be established.

In addition, a childcare support model in Goyang City was presented based on universality, diversity, accessibility, integration connectivity, and sufficiency.